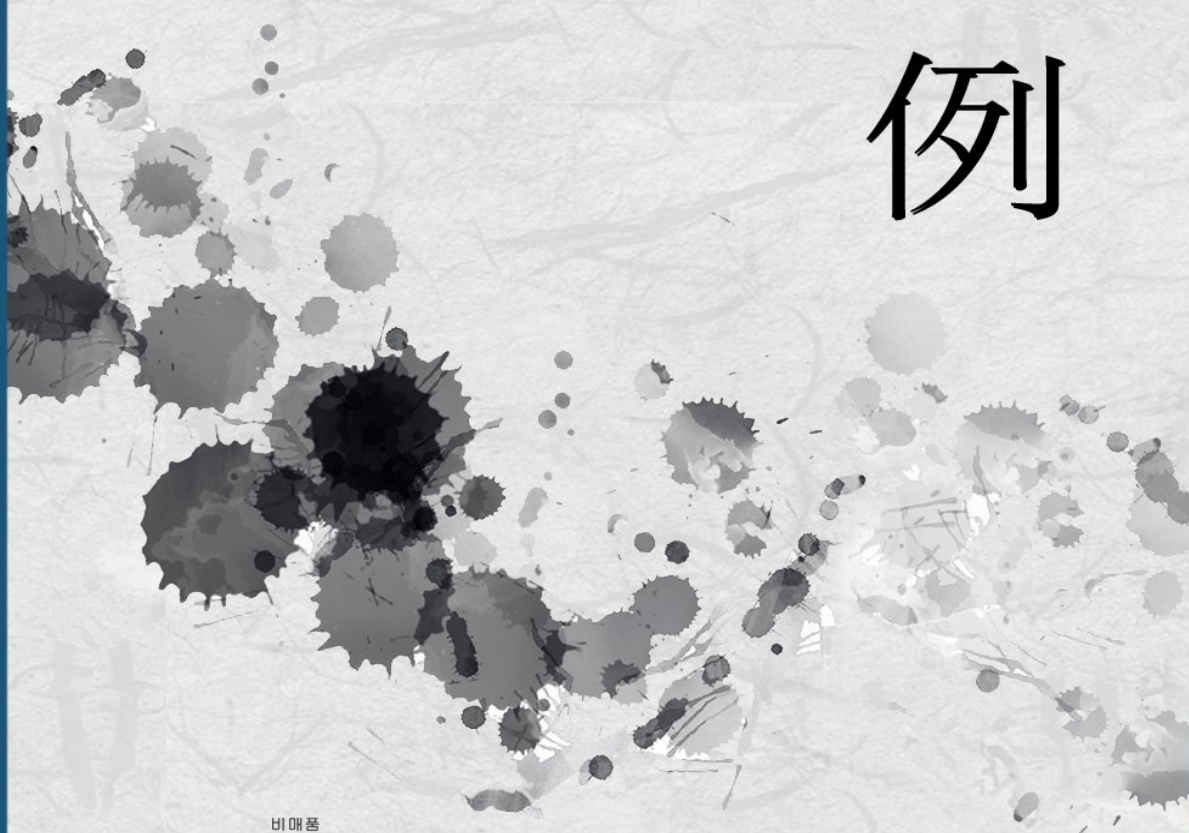


저자 劉純

국역 · 해제 오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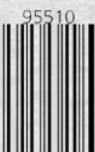
傷寒治例

국역



9 788959 705375

비매품



95510

ISBN 978-89-5970-537-5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상한치례인 傷寒治例引	1.1
상한치례 인용제서제가성명 傷寒治例 引用諸書諸家姓名	1.2
상한치례 傷寒治例	1.3
발열 發熱	1.3.1
열이 나지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發熱反欲得衣	1.3.2
몸이 춥지만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경우 身寒反不欲近衣	1.3.3
오한 惡寒	1.3.4
온몸이 모두 추운 경우 一身盡寒	1.3.5
등이 시린 경우 背惡寒	1.3.6
오풍 惡風	1.3.7
오한과 발열 寒熱	1.3.8
발열이 많고 오한이 적은 경우 熱多寒少	1.3.9
오한이 많고 발열이 적은 경우 寒多熱少	1.3.10
조열 潮熱	1.3.11

자한 自汗	1.3.12
도한 盜汗	1.3.13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경우 頭汗	1.3.14
손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 手足汗	1.3.15
땀이 나지 않는 경우 無汗	1.3.16
두통 頭痛	1.3.17
항강 項強	1.3.18
두현 頭眩	1.3.19
흉협만 胸脇滿	1.3.20
명치가 그득한 경우 心下滿	1.3.21
결흉 結胸	1.3.22
비 痞	1.3.23
해역 欬逆	1.3.24
복창만 腹脹滿	1.3.25
소복만 少腹滿	1.3.26
번열 煩熱	1.3.27
번조 煩躁	1.3.28
오뇌 懊惱	1.3.29
설상태 舌上胎	1.3.30

코피 衄	1.3.31
축혈 畜血	1.3.32
토혈 吐血	1.3.33
해수 咳嗽	1.3.34
숨참 喘	1.3.35
구토 嘔吐	1.3.36
계悸	1.3.37
경척 驚惕	1.3.38
갈증 渴	1.3.39
진 振	1.3.40
전을 戰慄	1.3.41
요두 搖頭	1.3.42
사역 四逆	1.3.43
겉 厥	1.3.44
정성 鄭聲	1.3.45
섬어 讖語	1.3.46
단기 短氣	1.3.47
계중 瘕瘕	1.3.48
근척육순 筋惕肉瞤	1.3.49

울모 鬱胃	1.3.50
동기 動氣	1.3.51
자리 自利	1.3.52
열입혈실 熱入血室	1.3.53
발황 發黃	1.3.54
발광 發狂	1.3.55
곽란 霍亂	1.3.56
노복 勞復	1.3.57
음양역 陰陽易	1.3.58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大便秘利	1.3.59
협통 脇痛	1.3.60
복통 腹痛	1.3.61
목구멍이 아픈 경우 咽痛	1.3.62
회궤 虵厥	1.3.63
양증양독 陽證陽毒	1.3.64
음증음독 陰證陰毒	1.3.65
태양양명합병 太陽陽明合病	1.3.66
태양소양합병 太陽少陽合病	1.3.67
삼양합병 三陽合病	1.3.68

태양소양병병 太陽少陽併病	1.3.69
양증처럼 보이는 음증 陰證似陽	1.3.70
음증처럼 보이는 양증 陽證似陰	1.3.71
음이 성하여 양을 막음 陰盛隔陽	1.3.72
양이 성하여 음을 막음 陽盛拒陰	1.3.73
발반 癍	1.3.74
낮이나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晝夜偏劇	1.3.75
입과 목구멍이 마름 口燥咽乾	1.3.76
백합병 百合病	1.3.77
호혹 狐惑	1.3.78
물로 입을 행구기만 하고 삼키려 하지 않는 경우 漱水不欲嚥	1.3.79
수기 水氣	1.3.80
소변이 불편한 경우 小便不利	1.3.81
양치 陽瘥	1.3.82
음치 陰瘥	1.3.83
불인 不仁	1.3.84
직시 直指	1.3.85
유뇨 遺尿	1.3.86
옷이나 침상을 더듬는 경우 循衣摸床	1.3.87

온병 溫病	1.3.88
온학 溫瘡	1.3.89
풍온 風溫	1.3.90
온역 溫疫	1.3.91
온독 溫毒	1.3.92
습온 濕溫	1.3.93
서증 暑證	1.3.94
갈증 渴證	1.3.95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傷寒治例引

상한치례인

傷寒治例者, 名醫劉翁之所著也. 翁名純, 字宗厚. 其先淮南人, 以事移關中, 遂家焉. 予晚生不及識翁, 因企慕而訪求翁後, 見其譜牒, 乃簪組裔也. 翁爲人博極群書, 尤精醫道. 厥考橘泉先生受業丹溪之門, 及翁繼之, 醫道大行, 家聲大著. 遂以所學於父師者爲此書, 蓋有以溯素問之源, 撮仲景之旨, 治傷寒者, 循此而行, 如射而中, 獵而獲, 足以起死回生, 易危爲安, 無夭橫之危, 皆躋仁壽之域矣. 予得而刻之, 益有以廣傳翁之德惠. 不特此爾, 翁所著又有醫經小學、玉機微義, 傳於世云. 成化己亥歲陽月吉旦, 易菴居士蕭謙書.

《상한치례》는 명의(名醫) 유(劉) 옹(翁)의 저작이다. 그의 이름은 순(純)이고, 자(字)는 종후(宗厚)이다. 그의 선조는 회남(淮南) 사람으로 관중(關中)으로 옮겨와 가문을 이루었다. 나는 늦게 태어나 유 옹과 알고 지내지 못하였으나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의 후손을 찾아뵈고 족보를 보았더니 관원의 후손이었다. 유 옹은 많은 책을 넓고 깊게 알았으며 특히 의학에 정통하였다. 그의 선친인 굴천(橘泉) 선생은 단계(丹溪)의 문하에서 수학하신 분이었고, 유 옹께서 이를 계승하고 나서 의술로 크게 유명해져 명성이 자자한 가문이 되었다. 그가 마침내 선친으로부터 배운 것을 이 책으로 엮었다.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 같은 원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장중경(張中景)의 요지까지 거머쥔 수

있을 것이니 상한(傷寒)을 치료하는 사람이 이 책을 따라 의술을 펼친다면 활을 적중시키고 사냥에 성공하는 것과 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죽을 이를 살려내고 위급한 상태를 안정시켜 요절하는 걱정을 없애 모두 장수하게 만들기 충분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구해 판각하려고 하니 유 옹의 은덕을 더욱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뿐만 아니라 유 옹의 다른 저서인 《의경소학(醫經小學)》과 《옥기미의(玉機微義)》도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성화(成化) 기해년(1479) 10월 1일. 역암거사(易菴居士) 소겸(蕭謙) 쓰다.



傷寒治例 引用諸書諸家姓名

상한치례 인용제서제가성명

內經 金匱方 鍼經 傷寒論 脈經 活人書 明理論 韓祗和 陳孔碩 王海藏 孫兆 片玉 曾氏家學 龐安常 保命集 李知先 嚴仁菴 趙慈心 傷寒 釋疑 直指方 仁存方 朱肱 究源方 良方 此事難知 宣明論 總錄 東垣方 索矩 無求子 證治 百證歌 孫用和 補亡 醫鏡 雲岐子 陰證略例 千金翼 高保衡 薛汝明 外臺秘要 易簡方

《황제내경(黃帝內經)》《금궐방》《침경》《상한론》《맥경》《활인서》《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한지화 진공석 왕해장 손조《편옥》《증씨가학》방안상《보명집》이지선 엄인암《조자심상한》《활인서석의(活人書釋疑)》《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인존방》주굉《구원방》《양방》《차사난지》《선명방론》《총록》《동원방》《색구》무구자《증치》《상한백증가(傷寒百證歌)》손용화《상한보망론》《의경》윤기자《음증약례》《천금익방(千金翼方)》고보형 설여명《외대비요》《이간방》

傷寒治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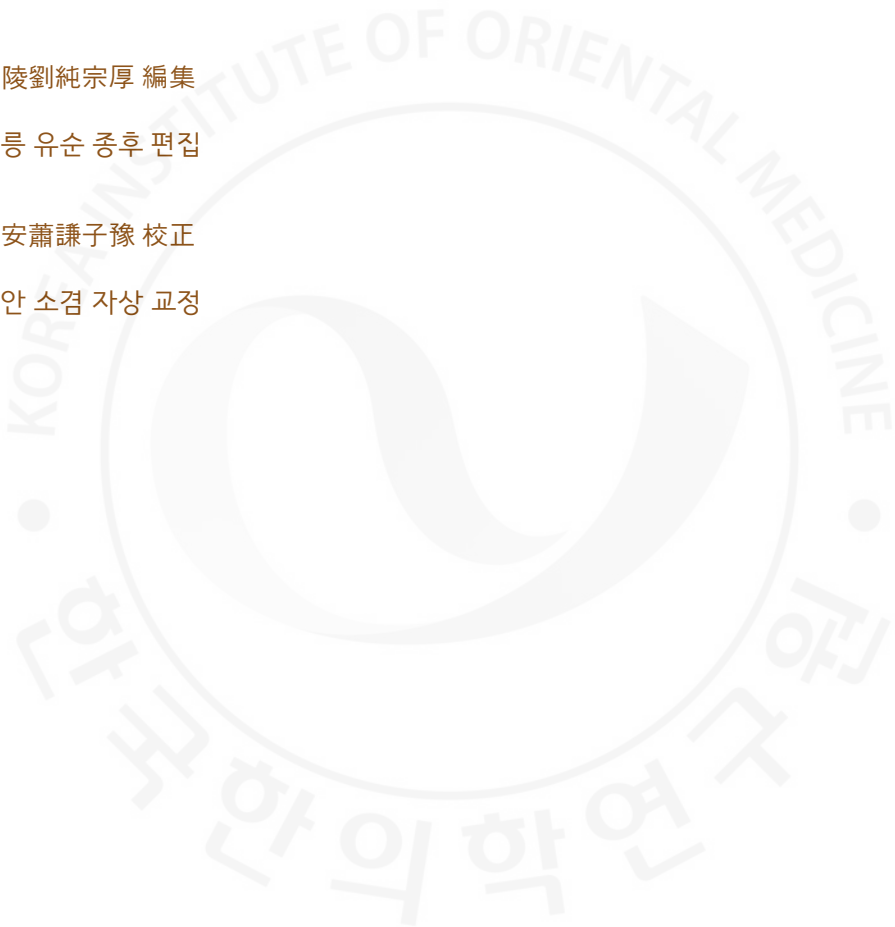
상한치례

吳陵劉純宗厚 編集

오릉 유순 종후 편집

長安蕭謙子豫 校正

장안 소겸 자상 교정



發熱 발열

屬表者, 卽風寒客於皮膚, 陽氣怫鬱所致, 翕翕發熱. 若翕所覆¹, 邪在外. 若小便黃, 非在外也.

표증(表證)인 경우는, 풍한(風寒)이 피부(皮膚)에 침입하여 양기(陽氣)가 풀어지지 못한 결과로 후끈하게(翕翕) 열(熱)이 난다. 깃털을 모아 덮어쓴 것과 같이 열이 나면 병사(病邪)가 밖에 있는 것이다. 만약 소변이 누렇다면 병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屬裏者, 陽氣下陷入陰分, 蒸蒸發熱. 若薰蒸, 邪在內. 若小便清, 非在內也.

이증(裏證)인 경우는, 양기(陽氣)가 아래로 침입하여 음분(陰分)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찌는 듯이(蒸蒸) 열(熱)이 난다. 찌는 듯이 열이 나면 병사(病邪)가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 소변이 맑으면 병사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邪在三陽, 太陽證多. 邪在三陰, 少陰證多.

병사(病邪)가 삼양(三陽)에 있을 때는 태양병(太陽病)이 가장 많다. 병사가 삼음(三陰)에 있을 때는 소음병(少陰病)이 가장 많다.

與潮熱若同而異, 此屬半表. 與煩躁相類而非, 此屬半裏.

조열(潮熱)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면 이것은 반표증(半表證)이다. 번조(煩躁)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면 이것은 반리증(半裏證)이다.

解表 해표

有發汗、解肌之別.

발한법(發汗法)과 해기법(解肌法)의 구분이 있다.

發汗 발한

脈浮緊, 爲表實無汗, 寒傷榮, 宜麻黃湯.

맥이 부(浮)、긴(緊)하면 표(表)가 실(實)하여 땀이 나지 않는 상태로 한사(寒邪)가 영혈(榮血)을 손상시킨 경우이니 마황탕(麻黃湯)을 써야 한다.

解肌 해기

脈浮緩, 爲表虛自汗, 風傷衛, 宜桂枝湯.

맥이 부(浮)、완(緩)하면 표(表)가 허(虛)하여 자한(自汗)이 나는 상태로 풍사(風邪)가 위기(衛氣)를 손상시킨 경우이니 계지탕(桂枝湯)을 써야 한다.

脈浮緩反無汗, 脈浮緊反煩躁, 宜桂枝麻黃各半湯.

맥이 부(浮)、완(緩)한데 도리어 땀이 나지 않거나, 맥이 부(浮)、긴(緊)한데 도리어 번조(煩躁)가 있을 때는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써야 한다.

和榮衛 영위를 조화시킴

風兼寒脈, 寒兼風脈, 榮衛兩傷俱實. 脈浮緊無汗, 宜大青龍湯.

풍사(風邪)에 상했는데 한사(寒邪)에 상한 맥이 함께 나타나거나, 한사(寒邪)에 상했는데 풍사(風邪)에 상한 맥이 함께 나타날 때는 영혈(榮血)과 위기(衛氣)가 모두 손상되어 실(實)해진 경우이다. 맥이 부(浮)·긴(緊)하고 땀이 나지 않을 때는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써야 한다.

解肌表 해기표

發熱, 脈浮大, 小便赤, 煩渴, 此表裏證俱見. 或汗後脈浮, 小便澀, 並宜五苓散.

열(熱)이 나고 맥이 부(浮)·대(大)하며 소변 색이 붉고 갈증이 심하게 나는 것은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함께 나타난 경우이다. 만약 발한법(發汗法)을 사용한 뒤에 맥이 부(浮)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모두 오령산(五苓散)을 써야 한다.

已上二條屬兩解例.

이상 2가지 조문은 양해(兩解)의 치료예이다.

隨經治例 경맥에 따른 치료

太陽, 麻黃湯. 太陽陽明, 六物麻黃湯. 陽明, 葛根湯. 太陽少陽, 七物柴胡湯.

태양병(太陽病)에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태양양명(太陽陽明) 합병(合病)에는 육물마황탕(六物麻黃湯)을 쓴다. 양명병(陽明病)에는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태양소양(太陽少陽) 합병(合病)에는 칠물시호탕(七物柴胡湯)을 쓴다.

六經表 육경의 표증(表證)

少陽, 小柴胡湯. 太陰, 桂枝湯.

소양병(少陽病)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태음병(太陰病)에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少陰, 麻黃附子細辛湯. 厥陰, 當歸四逆湯.

소음병(少陰病)에는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을 쓴다. 궤음병(厥陰病)에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合病表 합병(合病)의 표증(表證)

陽明少陽, 葛根柴胡湯. 太陰少陰, 眞武湯. 太陰厥陰, 當歸四逆湯. 少陰厥陰, 四逆湯.

양명소양(陽明少陽) 합병(合病)에는 갈근시호탕(葛根柴胡湯)을 쓴다. 태음소음(太陰少陰) 합병에는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태음궤음(太陰厥陰) 합병에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소음궤음(少陰厥陰) 합병에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助陽 조양

發熱, 脈沈無力, 或少陰病始得之反熱者, 亦屬表. 所以一經表有一經表藥也.

열(熱)이 나고 맥이 침(沈)하면서 힘이 없거나 소음병(少陰病) 초기에 도리어 열이 나는 경우도 표증(表證)이다. 각 경맥의 표증에 대해서 각 경맥의 표증약을 둔 까닭이다.

溫經 온경

發熱爲邪在表, 當汗. 脈沈細屬裏, 而當溫散. 凡熱而脈沈, 爲陽虛、經虛.

열(熱)이 날 때 병사(病邪)가 겉에 있으면 한법(汗法)을 써야 한다. 맥이 침(沈)·세(細)한 것은 이증(裏證)이니 따뜻한 성질의 약으로 병사를 풀어주어야 한다. 보통 열(熱)이 나면서 맥이 침(沈)한 것은 양(陽)이 허(虛)하거나 경맥(經脈)이 허한 것이다.

隨病治例 병증에 따른 치료

汗後不解, 脈浮大而遲, 或緊瀼, 或尺不應, 宜小建中加歸、芪, 俟脈盛再汗.

한법(汗法)을 쓴 뒤에 증상이 낫지 않고 맥이 부(浮)·대(大)하면서 지(遲)하거나, 긴(緊)·색(瀼)하거나, 척맥(尺脈)이 나타나지 않거나 할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에 당귀(當歸)·황기(黃芪)를 더하여 쓴 다음 맥이 충실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법(汗法)을 사용한다.

下 하법(下法)

或身熱汗出澌澌然, 脈實者, 調胃承氣.

만약 몸에서 열이 나고 축축하게 땀이 나며 맥이 실(實)하다면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써야 한다.

或汗後不惡寒, 但熱者實也, 並陽明發熱汗多者, 急下之, 大承氣湯.

만약 한법(汗法)을 쓴 뒤에 오한(惡寒)이 없어지고 열(熱)만 나는 경우는 실증(實證)이다. 이와 함께 양명병(陽明病)에 열(熱)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급히 하법(下法)을 써야 하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太陽病三五日, 發汗不解, 蒸蒸發熱, 屬胃也, 調胃承氣.

태양병(太陽病)이 든 지 3~5일에 한법(汗法)을 썼으나 증상이 풀리지 않고 찌는 듯이 열(熱)이 나는 것은 병의 원인이 위(胃)에 있으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써야 한다.

內實身熱, 汗不出, 反惡熱, 或發熱汗出不解, 心下痞, 嘔吐而利, 並大柴胡湯.

안이 실(實)하여 몸에서 열이 나지만 땀이 나지 않고 도리어 열(熱)을 싫어하는 경우, 또는 열(熱)이 나서 한법(汗法)을 썼으나 증상이 풀리지 않고 명치가 막히고(痞) 구토하면서 설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써야 한다.

非痞滿不可下. 非潮熱・渴不可下. 非脈沈數不可下. 非譫語不可下.

비만(痞滿)이 없다면 하법(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 조열(潮熱)과 갈증이 없다면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맥이 침(沈)·삭(數)하지 않다면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섬어(譫語)가 없다면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隨病變例 병증에 따른 응용

太陽病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或熱而脈微, 惡寒者, 並宜桂枝麻黃各半湯.

태양병이 든 지 8~9일째에 학(瘧)과 같이 발열과 오한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발열이 길고 오한이 짧은 경우, 또는 열이 나지만 맥이 미(微)하고 오한(惡寒)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써야 한다.

如大下後, 身熱不去, 心中結痛, 用梔子豉湯.

크게 하법을 사용한 뒤 몸에서 열이 내리지 않고 가슴 속이 마치고 아플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因以丸藥下後, 身熱不去, 微煩者, 梔子乾薑湯.

환약(丸藥)으로 크게 하법을 사용하였으나 몸에서 열이 내리지 않고 조금 번(煩)이 있을 때는 치자건강탕(梔子乾薑湯)을 쓴다.

陽明, 脈浮, 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 汗多者不可與.

양명병(陽明病)에 맥이 부(浮)하고 열이 나며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저령탕(猪苓湯)으로 치료한다.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써서는 안 된다.

陽明, 脈浮而緊, 咽燥口苦, 腹滿而喘, 發熱汗出, 不惡寒反惡熱, 身重. 若發汗則煩燥, 反譫語. 若加燒針, 則必怵惕, 煩而不得眠. 若下之則胃虛, 客氣動², 心中懊懣,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 全在隨證臨病加減擇法.

양명병에 맥이 부(浮)하고 긴(緊)하며 목구멍이 마르고 입이 쓰며 배가 그득하고 숨이 차며 열이 나고 땀도 나지만 오한은 없고 도리어 열(熱)을 싫어하며 몸이 무거운 경우가 있다. 이때 만약 한법(汗法)을 사용하면 번조(煩躁)가 나타나고 도리어 섬어(譫語)가 생긴다. 이때 만약 온침(溫鍼)을 더 쓰면 반드시 겁이 나고 번조(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만약 하법(下法)을 쓰면 위(胃) 속이 공허한데 침입해 온 기운(客氣)이 흉격을 동요시켜 가슴 속이 괴롭고 허 위에 태(胎)가 생긴다. 이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치료한다. 모두 증상과 병에 따라 본초를 가감하고 처방을 골라 쓰는 방법에 있다.

六經裏 육경(六經)의 이증(裏證)

太陽, 五苓散. 陽明, 調胃承氣湯. 少陽, 黃芩散. 太陰, 桂枝加大黃湯. 少陰, 黃連阿膠湯. 厥陰, 桃仁承氣湯.

태양병(太陽病)에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양명병(陽明病)에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소양병(少陽病)에는 황금산(黃芩散)을 쓴다. 태음병(太陰病)에는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을 쓴다. 소음병(少陰病)에는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을 쓴다.厥음병(厥陰病)에는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쓴다.

合病裏 합병(合病)의 이증(裏證)

三陽合病, 白虎湯. 太陽陽明, 小承氣湯. 正陽陽明, 調胃承氣湯. 少陽陽明, 大承氣湯. 合三陰卽是兩感證也.

삼양(三陽) 합병(合病)에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태양양명(太陽陽明) 합병에는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정양양명(正陽陽明)에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소양양명(少陽陽明) 합병에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삼음(三陰)과 합병된 경우는 곧 양감증(兩感證)이다.

隨時治例 절기에 따른 치료

傷寒本爲卒病, 故用已上一表一裏治例. 如夏至後用, 麻黃知母石膏湯. 或以防風通聖散加減用者, 是從其時令, 或地理方宜, 故不可執一也. 有近代諸方如正氣、五積之類.

상한(傷寒)은 본래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병이므로 이상 표증이나 이증의 치료법을 사용한다. 하지(夏至) 이후에는 마황지모석고탕(麻黃知母石膏湯)을 쓴다.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에 가감하여 사용할 때는 계절이나 지역적 특색에 따라야 하므로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근래 처방으로는 정기산(正氣散)、오적산(五積散)과 같은 것들이 있다.

禁例 금기

太陽病禁居多, 陽明二禁, 少陽三禁. 舉其略則知其餘證用藥皆有禁例也, 如藥禁.

태양병(太陽病)에는 금기가 많다. 양명병(陽明病)의 금기는 2가지로 토법(吐法)과 한법(汗法)을 써서는 안 된다. 소양병(少陽病)의 금기는 3가지로 토법(吐法)、한법(汗法)、하법(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 대략 거론했으므로 나머

지 병증에 약을 사용할 때도 모두 금기가 있음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약금(藥禁)과 같은 것이다.

鍼例 침 치료법

汗不出, 悽悽惡寒, 取玉枕大杼、肝俞、膈俞、陶道. 身熱惡寒, 後谿. 身熱汗出、身足厥冷³, 取大都. 身熱頭痛, 食不下, 三焦俞. 汗不出, 取合谷、後谿、陽池、厲兌、解谿、風池. 身熱而喘, 取三間. 餘熱不盡, 取曲池. 煩滿, 汗不出, 取風池、命門. 汗出寒熱, 取五處、攢竹、上脘. 煩心好嘔, 取巨闕、商丘. 身熱, 頭痛, 汗不出, 取曲泉. 身熱進退, 頭痛, 取神道、關元、懸顙. 已上出鍼經.

땀이 나지 않고 처처(悽悽)하게 오한(惡寒)이 들 때는 옥침(玉枕)、대저(大杼)、간수(肝俞)、격수(膈俞)、도도(陶道)를 쓴다. 몸에서 열이 나고 오한(惡寒)이 들 때는 후계(後谿)를 쓴다.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며 손과 발이 차가울 때는 대도(大都)를 쓴다.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삼초수(三焦俞)를 쓴다. 땀을 흘리지 않을 때는 합곡(合谷)、후계(後谿)、양지(陽池)、여태(厲兌)、해계(解谿)、풍지(風池)를 쓴다. 몸에서 열이 나고 숨이 찰 때는 삼간(三間)을 쓴다. 남은 열이 다 내려가지 않을 때는 곡지(曲池)를 쓴다. 가슴이 갑갑하고 그득하며 땀을 흘리지 않을 때는 풍지(風池)、명문(命門)을 쓴다. 땀이 나고 오한과 발열이 있을 때는 오처(五處)、찬죽(攢竹)、상완(上脘)을 쓴다. 가슴이 갑갑하고 쉽게 구역질할 때는 거궤(巨闕)、상구

(商丘)를 쓴다.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땀을 흘리지 않을 때는 곡천(曲泉)을 쓴다. 몸의 열이 내리지 않고 머리가 아플 때는 신도(神道)·관원(關元)·현로(懸顱)를 쓴다. 이상의 내용은 《침경》에 나온다.

雙解 상해

裏證已急, 或脈浮, 或頭疼, 風寒表證仍在者, 過經不解是也, 大柴胡主之. 此解表功裏法, 又非前兩解之比.

이증(裏證)이 이미 심한데, 맥이 부(浮)하거나 머리가 아픈 등 풍한(風寒)의 표증(表證)이 여전히 있는 것은 전경(傳經)되는 시일을 넘겨서도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은 경우이니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겉을 풀고 속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앞의 〈양해(兩解)〉와 비길 수 없다.

漬形爲汗 몸을 적시도록 땀을 냄

熱而脈弦細, 非往來寒熱不可和, 非脇肋痛不可和, 非胸滿而嘔不可和, 非脈緩不可和. 或表證未罷, 邪氣傳裏, 裏未實, 是爲半表半裏. 或自皮膚漸傳入裏. 或自內熱達於表. 直指方曰, 凡當汗下, 如有他證相妨, 切須和解, 俟其他證已退, 却依汗下法. 小柴胡湯.

열(熱)이 나면서 맥이 현(弦)·세(細)할 때,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지 않다면 화법(和法)을 쓸 수 없고, 옆구리 통증이 없다면 화법을 쓸 수 없으며, 가슴이 그득하면서 구역질 나지 않는다면 화법을 쓸 수 없고, 맥이 완(緩)하지 않으면 화법을 쓸 수 없다. 만약 표증(表證)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邪氣)가 속

〔裏〕으로 전경되었으나 속이 아직 실하지 않은 것이 반표반리증(半表半裏證)이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으면 피부(皮膚)의 열(熱)이 점차 속까지 들어가고, 사기가 안에 있으면 몸속에서 생긴 열(熱)이 겉까지 닿는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써야 할 때 만약 방해되는 다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화해시켜야 하며, 다른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법이나 하법을 쓴다."라고 하였다. 화해시킬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活人書去半夏名黃龍, 陳孔碩名冲和湯, 海藏名三禁湯, 孫兆名黃胡湯. 與四物對名調經湯, 守眞加減名三元湯.

《활인서(活人書)》에서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서 반하(半夏)를 빼고 황룡탕(黃龍湯)이라고 하였다. 진공석(陳孔碩)은 충화탕(冲和湯)이라고 하였으며, 왕해장(王海藏)은 삼금탕(三禁湯)이라고 불렀다. 손조(孫兆)는 황호탕(黃胡湯)이라고 불렀다. 사물탕(四物湯)과 합한 것을 조경탕(調經湯)이라고 하는데, 유수진(劉守眞)은 이것을 가감하고 삼원탕(三元湯)이라 불렀다.

散熱生津益氣 열(熱)을 흠고 진액을 만들며 기(氣)를 돋움

身熱, 目痛, 鼻乾, 惡熱自汗, 脈尺寸浮長, 白虎湯.

몸에서 열이 나는데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열(熱)을 싫어하고 자한(自汗)이 나며 척맥과 촌맥이 부(浮)·장(長)할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片玉云, 得汗脈靜, 身熱不退, 是發汗太過, 胃中亡津液故也. 處以生津液, 益氣血, 養胃氣之藥. 參、朮、茯苓、麥門冬、升麻、陳皮、甘草、桂、芪、歸、芍、半夏、飴糖, 三服而愈. 或只用補中益氣湯.

《편옥》에서 말하였다. "땀을 낸 뒤 맥이 안정되었으나 몸에서 나던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땀을 지나치게 많이 내서 위(胃) 속의 진액(津液)이 모두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진액(津液)을 만들고 기혈(氣血)을 돋우며 위기(胃氣)를 기르는 약을 처방해야 한다. 인삼(人蔘)、백출(白朮)、복령(茯苓)、맥문동(麥門冬)、승마(升麻)、진피(陳皮)、감초(甘草)、계(桂)、황기(黃芪)、당귀(當歸)、작약(芍藥)、반하(半夏)、이당(飴糖)을 3번 복용시키면 낫는다. 혹은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만 쓰기도 한다."

출혈 출혈

曾氏家學, 治傷寒七八日不解, 自胸上至頭目, 黑紫壅腫, 寸脈浮大而數, 是欲作衄而不能出也. 用乾栗幹任兩鼻, 彈刺之, 出血五六升而安, 翦葉亦可. 西北方人或於兩尺澤中出血而射即安, 諒亦此意.

《증씨가학》에서 다음과 같은 환자를 치료하였다. 상한(傷寒)이 든 지 7~8일이 되어도 병이 풀리지 않고 가슴에서 머리와 눈까지 어두운 자줏빛의 옹종(壅腫)이 생겼는데, 촌맥이 부(浮)、대(大)하면서 삭(數)하였다. 이것은 코피가 나아 하나 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말린 밤나무 줄기를 양쪽 콧구멍에 넣고 튕겨

서 찢러 넣어 코피를 5~6되〔升〕 쏟아내자 편안해졌다. 약엽(蕝葉)을 써도 좋다. 서북방 사람들은 양쪽 척택(尺澤)에서 피를 빼 내면 곧 편안해진다고 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뜻이다.

復脈 복맥

龐氏云, 有不因大汗下, 而兩手忽無脈, 謂之雙伏. 或一手無, 謂之單伏. 或下過如此⁴, 必有正汗, 急四逆輩溫之, 晷時⁵有汗便安. 脈汗不出者死⁶. 脈結用炙甘草湯.

방안시(龐安時)가 말하였다. "크게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양쪽 손에서 갑자기 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쌍복(雙伏)이라고 한다. 한쪽 손에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단복(單伏)이라고 한다. 만약 설사가 멎은 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땀이 날 것이니 급히 사역탕(四逆湯) 등의 처방으로 따뜻하게 해준다면 금세 땀이 나면서 편안해진다. 맥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죽는다." 맥이 결(結)할 때는 자감초탕(炙甘草湯)을 쓴다.

越婢 월비

太陽病,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 不可表散, 宜桂枝二越婢一湯, 以解表邪而益衛滋津液.

태양병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데 발열이 심하고 오한이 약하며 맥이 미약할 때는 발한시켜서는 안 되며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을 써서 걸의 사기(邪氣)를 풀 다음 위기(衛氣)를 돕고 진액(津液)을 늘려주어야 한다.

外迎 밖에서 맞이함

薰蒸在外, 取汗是也. 但病脈微弱遲細, 動氣, 瘡, 淋, 亡血, 虛煩, 皆不可用此.

밖에서 찌는 듯 열이 날 때는 한법(汗法)을 써야 한다. 그러나 맥이 미(微)·약(弱)·지(遲)·세(細)하거나, 동기(動氣)가 있거나 창(瘡)이 있거나 임증(淋證)이 있거나 망혈(亡血)이 있거나 허번(虛煩)이 있을 때는 모두 한법을 쓸 수 없다.

灸 뜸

六脈沈細, 一息二三至, 取氣海·關元. 少陰發熱, 取太谿.

육맥(六脈)이 침(沈)·세(細)하고 한 호흡에 맥이 2~3번 뛸 때는 기해(氣海)·관원(關元)에 뜸을 뜬다. 소음병(少陰病)에 열이 날 때는 태계(太谿)에 뜸을 뜬다.

劫 겁법(劫法)

有汗下後, 陰陽之氣下陷, 熱不退, 其人昏倦, 不渴不食者, 用來復丹·靈砂之類.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음기(陰氣)나 양기(陽氣)가 아래로 침범하여 열(熱)이 내리지 않고 환자의 정신이 혼미하며 물과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때는 내복단(來復丹)·영사(靈砂) 등을 쓴다.

吐 吐법(吐法)

病如桂枝證, 頭不痛, 項不强, 脈浮, 胸中痞鞭, 氣上逆, 胸有寒也, 宜瓜蒂散吐之. 或心中結痛而煩, 宜梔子豉湯之類.

계지탕(桂枝湯)을 써야 할 증상과 비슷하지만 머리가 아프지 않고 목덜미도 뻐뻐하지 않으며 맥은 부(浮)하고 가슴 속이 짝 막히며 숨이 거꾸로 차오르는 것은 가슴속에 한(寒)이 있기 때문이다.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켜야 한다. 만약 가슴 속이 마치고 아프며 갑갑할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 등을 써야 한다.

四證似傷寒 상한(傷寒)과 유사한 4가지 병증

寒痰、脚氣、食、勞煩, 皆從病別治.

한담(寒痰)、각기(脚氣)、식적(食積)、노번(勞煩)은 모두 병에 따라 구분하여 치료한다.

1. 若翕所覆 : 《상한명리론》을 근거로 "若翕羽所覆"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

2. 客氣動 ⇨ 客氣動膈 ※《상한론》←

3. 身足厥冷 ⇨ 手足厥冷 ※문맥 ←

4. 或下過如此 ⇨ 或利止如此 ※《상한총병론》←

5. 晬時 晬時 ※《상한총병론》↩

6. 脈汗不出者死 脈終不出者死 ※《상한총병론》↩



發熱反欲得衣 열(熱)이 나지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熱在肌表, 寒在骨髓.

열(熱)이 기표(肌表)에 있고 한(寒)이 골수(骨髓)에 있기 때문이다.

溫 온법(溫法)

脈沈, 手足微厥, 下利, 發熱, 四逆湯. 活人書云, 表熱裏寒, 先與陰旦湯. 寒已, 次用小柴胡加桂溫表.

맥이 침(沈)하고 손발이 조금 차가우며 설사하고 열(熱)이 날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활인서(活人書)》에서 말하였다. "겉에 열(熱)이 있고 속에 한(寒)이 있을 때는 먼저 음단탕(陰旦湯)을 쓴다. 한(寒)이 사라진 뒤에 다음으로 소시호탕(小柴胡湯)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겉을 따뜻하게 해준다."

反治¹ 반치법(反治法)

¹. 反治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身寒反不欲近衣 몸이 춥지만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경우

熱在骨髓, 寒在肌表.

열(熱)이 골수(骨髓)에 있고 한(寒)이 기표(肌表)에 있기 때문이다.

從治 종치법(從治法)

先用白虎加人參湯, 次用麻桂各半湯.

먼저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을 쓰고 다음으로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脈滑而厥, 口噤舌乾¹. 所以少陰, 惡寒而倦², 時時自煩, 不欲厚衣, 大柴胡下之.

걸이 차고 속에 열이 있을 때는³ 맥이 활(滑)하고 손발이 차지만 입이 마르며 혀가 건조하다. 소음병(少陰病)에 오한(惡寒)이 들고 웅크리지만 때때로 까닭 없이 갑갑하여 옷을 두껍게 입으려 하지 않을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설사시킨다.

1. 口噤舌乾 ㉞ 口燥舌乾 ※《활인서》↩

2. 惡寒而倦 ㉞ 惡寒而踰 ※《상한론》↩

3. 겉이 차고 속에 열이 있을 때는 : 《활인서》를 근거로 "表寒裏熱者"가 누락
된 것으로 보고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



惡寒 오한

有熱惡寒者, 發於湯¹. 有汗表虛, 無汗表實. 無熱惡寒者, 發於陰. 陰寒爲病, 口中和.
陽氣內陷, 口乾而渴.

열이 나고 오한(惡寒)이 드는 것은 병이 양(陽)에서 생겨난 경우이다. 땀을 흘리면 표(表)가 허한 것이고 흘리지 않으면 표(表)가 실한 것이다. 열이 나지 않고 오한(惡寒)이 드는 것은 병이 음(陰)에서 생겨난 경우이다. 음(陰)에 한사(寒邪)가 있어 병이 나면 입맛을 잃지 않는다. 양기(陽氣)가 안으로 침범하면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난다.

1. 發於湯 ⇨ 發於陽 ※문맥 ⇐

一身盡寒 온몸이 모두 추운 경우

由陰氣上入陽中, 或陽微陰虛相搏之所致. 有脈沈實, 爲陽盛格陰.

음기(陰氣)가 올라가 양(陽)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거나, 미약한 양(陽)과 허해진 음(陰)이 서로 다투는 결과이다. 맥이 침(沈)、실(實)한 것은 치성한 양(陽)이 음(陰)을 가로막은 경우이다.



背惡寒 등이 시린 경우

皆爲陽¹. 陽氣不足, 陰寒盛故耳. 或三陽合病, 額有汗, 口燥不仁, 清熱用白虎湯.

등은 양(陽)에 속한다. 양기(陽氣)가 부족하고 음한(陰寒)이 치성해졌기 때문 일 뿐이다. 또는 삼양(三陽) 합병(合病)으로 이마에서 땀이 나고 입이 건조하며 불인(不仁)할 때는 열을 식혀야 하므로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發汗 발한

表實無汗, 不惡風, 麻黃湯或各半湯.

겉이 실(實)하여 땀이 나지 않고 오풍(惡風)이 없을 때는 마황탕(麻黃湯)이나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脈緊, 寒傷榮, 麻黃湯. 脈浮, 升麻湯.

맥이 긴(緊)한 것은 한사(寒邪)가 영혈(榮血)을 손상시킨 경우이니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맥이 부(浮)하면 승마탕(升麻湯)을 쓴다.

解肌 해기

表虛自汗, 惡風, 桂枝湯. 保命集曰, 表未解, 葛根湯. 李氏用桂枝湯. 嚴仁菴曰, 風傷衛, 桂枝湯.

겉이 허(虛)하여 자한(自汗)이 나고 오풍(惡風)이 들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보명집》에서 말하였다. "겉이 풀리지 않았다면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이지선(李知先)은 계지탕(桂枝湯)을 썼다. 엄인암(嚴仁菴)이 말하였다. "풍사(風邪)가 위기(衛氣)를 손상시켰을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溫 온법(溫法)

發汗後不解, 及惡寒者, 虛也, 陽微也, 與芍藥甘草附子湯, 以補榮衛.

한법(汗法)을 사용한 뒤에 증상이 풀리지 않고 오한이 드는 것은 허증(虛證)으로 양(陽)이 미약한 경우이니 작약감초부자탕(芍藥甘草附子湯)으로 영위(榮衛)를 보해준다.

在陰者, 四肢冷, 大小便滑, 溫中湯、四逆湯. 或脈沈緊且細, 內自煩躁, 不飲水者, 此爲陰盛格陽. 身冷, 宜四逆湯、霹靂散.

음(陰)에 있으면 팔다리가 싸늘하고 대소변이 흘러나오니 온중탕(溫中湯)、사역탕(四逆湯)을 쓴다. 만약 맥이 침(沈)、긴(緊)하고 또 세(細)하고 속에서 까닭 없이 번조(煩躁)가 나지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치성한 음(陰)이 양(陽)을 가로막은 경우이다. 몸이 차가울 때는 사역탕(四逆湯)、벽력산(霹靂散)을 쓴다.

尺脈遲, 小建中湯. 易簡方加附子名附子建中湯. 身寒拘急, 泄, 下重腹痛, 皆少陰也, 宜溫中益陰.

척맥이 지(遲)할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이간방(易簡方)》에서 여기에 부자(附子)를 더하여 부자건중탕(附子建中湯)이라고 하였다. 몸이 차갑고 팔다리가 오그라들며 설사하고 대변이 시원치 않고 배가 아픈 것은 모두 소음병(少陰病)이니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陰)을 길러야 한다.

和解 화해

兼潮熱, 柴胡加桂湯. 汗已, 寒而心下痞, 附子瀉心湯.

등이 시리면서 조열(潮熱)이 있을 때는 시호가계지탕(柴胡加桂枝湯)을 쓴다. 한법(汗法)을 쓴 뒤에 등이 시리면서 명치가 답답할 때는 부자사심탕(附子瀉心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寒而潮熱, 腹滿, 與小承氣湯.

등이 시리면서 조열(潮熱)이 나고 배가 그득할 때는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灸 뜸

背惡寒, 口中和, 須灸之, 關元穴.

등이 시린데 입맛을 잃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뜸을 떠야 하니 관원혈(關元穴)을 쓴다.

𩇛² 찜질

1. 皆爲陽 𩇛 背爲陽 ※문맥 ←

2. 𩇛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惡風 오풍

悉屬於陽. 有汗而惡風爲中風, 衛病也, 桂枝加葛. 無汗而惡風爲傷寒, 榮病也, 葛根湯.

모두 양(陽)에 속한다. 땀을 흘리면서 오풍(惡風)이 드는 것은 중풍(中風)으로 위분(衛分)의 병이니 계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을 쓴다. 땀이 나지 않으면서 오풍(惡風)이 드는 것은 상한(傷寒)으로 영분(榮分)의 병이니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解肌 해기

設反無汗, 雖服桂枝, 反煩不解, 無裏證.

해기(解肌) 시켰는데 만약 도리어 땀을 흘리지 않고, 계지탕(桂枝湯)을 복용하고도 도리어 번(煩)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증(裏證)이 없는 것이다.

刺 침자(鍼刺)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葛根湯¹.

먼저 풍지(風池)、풍부(風府)에 자침한 다음 계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을 쓴다.

發表 발표

無汗而惡風.

땀을 흘리지 않고 오풍(惡風)이 들 때 사용한다.

溫經 온경

發汗多, 漏不止則亡陽, 外不固, 是以惡風, 以桂附溫其經而固衛.

한법(汗法)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 땀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않으면 망양(亡陽)이 되어 밖이 견고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오풍(惡風)이 들면 계지(桂枝)와 부자(附子)로 그 경맥(經脈)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기(衛氣)를 튼튼히 해야 한다.

散濕 산습

風濕相搏, 骨節疼, 濕勝自汗, 而皮腠不密, 是以惡風, 必以甘草附子湯, 散濕而實其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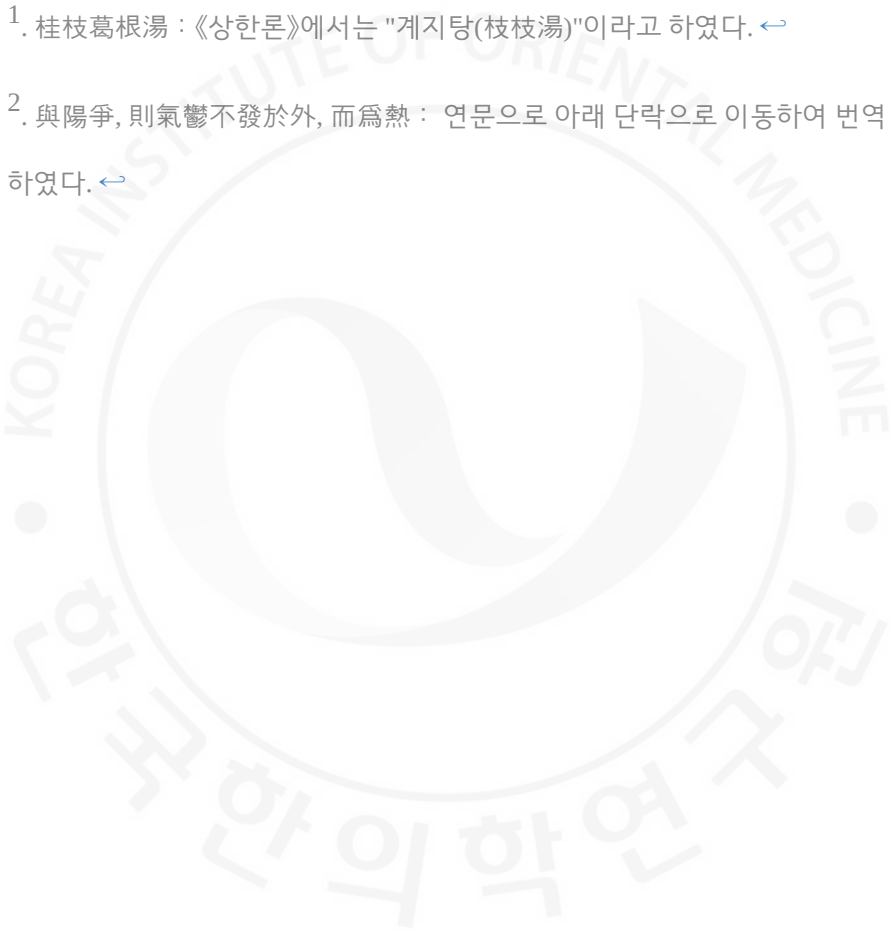
풍(風)과 습(濕)이 서로 뒤엉키면 뼈마디가 아픈데, 습(濕)이 우세하면 자한(自汗)이 나고 주리가 성글게 되니 이 때문에 오풍(惡風)이 들면 반드시 감초부자탕(甘草附子湯)으로 습(濕)을 흘리고 위기(衛氣)를 충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利痰 이담

憎寒發熱, 惡風自汗, 胸膈滿, 氣上衝不得息, 而頭不疼, 項不强, 爲有痰, 隨其虛實散利. 與陽爭, 則氣鬱不發於外, 而爲熱².

오한(惡寒)이 심하고 열이 나며 오풍(惡風)과 자한(自汗)이 있고 가슴이 그득하고 위로 숨이 차올라 숨쉬기 힘들지만 머리도 아프지 않고 목덜미도 뻐뻐하지 않은 것은 담(痰) 때문이니 허실(虛實)에 따라 담을 제거해 준다.

1. 桂枝葛根湯 : 《상한론》에서는 "계지탕(枝枝湯)"이라고 하였다. [↩](#)
2. 與陽爭, 則氣鬱不發於外, 而爲熱 : 연문으로 아래 단락으로 이동하여 번역하였다. [↩](#)



寒熱 오한과 발열

身之陽虛, 則邪客於表, 與陽爭則爲寒.

몸의 양(陽)이 허하면 사기(邪氣)가 겉에서 침입하는데, 침입한 사기가 양(陽)과 다투게 되면 오한(惡寒)이 생긴다.

身之陰虛, 則邪客於裏, 與陰爭則爲熱.

몸의 음(陰)이 허하면 사기(邪氣)가 속에서 침입하는데, 침입한 사기가 음(陰)과 다투게 되면 발열(發熱)이 생긴다.

與陽爭, 則氣鬱不發於外, 而爲熱¹.

양(陽)과 다투면 기(氣)가 울체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열(熱)이 된다.

與陰爭則憤然而熱, 故寒已而熱作焉.

음(陰)과 다투면 울결되어 열이 나므로 오한이 그친 뒤에 열이 나타난다.

表裏 표리

邪在表, 多寒多. 邪在裏, 多熱多.

사기(邪氣)가 겉에 있으면 주로 오한(惡寒)이 많이 나타난다. 사기가 속에 있으면 주로 발열(發熱)이 많이 나타난다.

半在表, 半在裏, 則寒熱相半.

사기(邪氣)가 절반은 겉에, 절반은 속에 있으면 오한과 발열이 함께 섞여 나타난다.

和解 화해

半表裏, 往來寒熱, 小柴胡主之. 熱多, 白虎加桂湯. 寒多, 柴胡姜桂湯. 先寒後熱, 陽不足也, 小柴胡加桂湯. 先熱後寒, 陰不足也, 小柴胡加芍藥湯主之.

사기(邪氣)가 절반은 겉에 절반은 속에 있어 오한과 발열이 왕래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다스린다. 발열이 많을 때는 백호가계지탕(白虎加桂枝湯)을 쓴다. 오한이 많을 때는 시호계지건강탕(柴胡桂枝乾薑湯)을 쓴다. 먼저 오한이 든 뒤에 열이 나는 것은 양(陽)이 부족한 것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쓴다. 먼저 열이 난 뒤에 오한이 드는 것은 음(陰)이 부족한 것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작약(芍藥)을 더하여 다스린다.

難知曰, 若用柴胡而移其時於早晚, 氣移於血, 血移於氣, 是邪無所容之地, 知可解也.

《차사난지》에서 말하였다. "만약 소시호탕(小柴胡湯)을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변하는 것은 기(氣)에서 혈(血)로 이동하거나 혈(血)에서 기(氣)로 이동한 경우로 사기(邪氣)가 있을 곳이 없어진 까닭이니 병이 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下 하법(下法)

日病多²而結熱在裏, 復往來寒熱, 大柴胡湯主之. 惡熱者, 胃實也, 調胃承氣湯下之.

병든 지 여러 날 되어 속(裏)에 열이 맺혀 다시 오한과 발열이 왕래할 때는 대
시호탕(大柴胡湯)으로 다스린다. 오열(惡熱)은 위(胃)가 실(實)한 경우이니 조
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하법(下法)을 사용한다.

兩解³ 양해

1. 與陽爭, 則氣鬱不發於外, 而爲熱 : 〈이담(利痰)〉에 있으나 착간으로 보고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2. 日病多 : "病至十余日" ※《상한명리론》 ←
3. 兩解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熱多寒少 발열이 많고 오한이 적은 경우

脈浮, 各半湯. 微弱, 桂枝二越婢一湯.

맥이 부(浮)할 때는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을 쓴다. 맥이 미약할 때는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을 쓴다.

脈遲, 小建中加黃芪, 或溫中.

맥이 지(遲)할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에 황기(黃芪)를 더하여 쓰거나 온중탕(溫中湯)을 쓴다.

寒多熱少 오한이 많고 발열이 적은 경우

不煩躁, 手足厥逆, 爲傷寒. 脈反浮緩, 爲中風, 大青龍主之, 或各半湯.

번조(煩躁)가 없고 손발이 차가운 것은 상한(傷寒)이다. 맥이 도리어 부(浮)·완(緩)한 것은 중풍(中風)이다. 대청룡탕(大靑龍湯)으로 다스리거나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을 쓴다.

仲景一書只有熱多寒少之條, 無寒多熱少之證.

중경(中景)의 책에는 '발열이 많고 오한이 적은 경우'에 대한 조문에만 치료 처방이 있고 '오한이 많고 발열이 적은 경우'에 대한 병증에는 치료 처방이 없다.

潮熱 조열

發於寅卯巳午時者, 邪未入胃. 日晡所發者, 乃入於胃也.

조열이 인시(寅時)、묘시(卯時)、사시(巳時)、오시(午時)에 나타나면 사기(邪氣)가 아직 위(胃)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해 질 녘에 조열이 나타나는 것은 사기가 위(胃)에 들어간 것이다.

有兼證, 結胸, 脈不浮, 陷胸湯.

조열이 있을 때 결흉(結胸)이 있고 맥이 부(浮)하지 않다면 함흉탕(陷胸湯)을 쓴다.

腹滿, 身黃, 梔子柏皮湯.

조열이 있을 때 배가 창만하고 몸이 누렇게 되면 치자백피탕(梔子柏皮湯)을 쓴다.

和解 화해

小柴胡湯. 脈浮兼寒加桂.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맥이 부(浮)하고 아울러 오한이 들면 계지(桂枝)를 더한다.

攻下 공하

邪入胃, 腹滿, 脈實, 大便硬, 脈滑. 脈浮, 仍和解.

사기(邪氣)가 위(胃)로 들어가 배가 창만하고 맥이 실(實)한 경우, 대변이 단단하고 맥이 활(滑)한 경우는 공하시킨다. 맥이 부(浮)할 때는 화해(和解)시킨다.

解肌 해기

脈虛, 自汗, 桂枝湯.

맥이 허(虛)하고 자한(自汗)이 흐를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自汗 자한

多主衛, 此衛氣不和, 兼熱邪所干也.

주로 위기(衛氣)를 다스리니, 이것은 위기가 조화롭지 못할 때 열사(熱邪)가 위기를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太陽中暈, 汗出惡寒, 身熱而渴. 汗出而濡, 風濕自甚, 皆邪干於衛氣, 氣不能固於外, 皮膚爲之疎, 而津液妄泄澌澌潤潤然出也.

태양(太陽) 중갈(中暈)에는 땀을 흘리고 오한(惡寒)이 들며 몸에서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난다. 땀을 축축하게 흘리는 것은 풍습(風濕)이 심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기(邪氣)가 위기(衛氣)를 침범하여 위기가 겉을 견고하게 호위하지 못하므로 피부가 느슨해지고 주리가 성글어져 이 때문에 진액이 함부로 새서 축축하게 나오는 것이다.

表虛, 汗後惡寒. 裏未解¹, 惡風, 微惡寒.

겉이 허한 경우는 한법(汗法)을 쓴 뒤에 오한이 있는 경우이다. 겉이 풀리지 않은 경우는 오한(惡寒)이 있거나 약한 오한(惡寒)이 있는 경우이다.

表未和², 汗出, 不惡寒. 熱越, 陽明發熱.

속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는 땀을 흘리지만 오한(惡寒)이 나지 않는 경우이다. 월비탕(越婢湯)은 양명병(陽明病)에 열이 날 때 사용한다.

解肌 해기

桂枝湯.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滲洩 삼설

渴者, 五苓散.

갈증이 있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補 보법(補法)

自汗而小便數者, 不可與桂枝, 宜芍藥、甘草二物, 或小建中諸方加芪, 名黃芪建中湯.

자한(自汗)이 나며 소변이 잦을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써서는 안 되며 작약(芍藥)、감초(甘草) 2가지 약재를 쓰거나 혹은 소건중탕(小建中湯)에 황기(黃芪)를 더한 황기건중탕(黃芪建中湯)을 써야 한다.

和解 화해

柴胡加桂湯.

시호가계지탕(柴胡加桂枝湯)을 쓴다.

溫經 온경

發汗多, 遂漏不止, 曰漏風亡陽, 桂枝附子湯. 表虛未解, 桂枝湯. 四逆厥有汗, 四逆湯.

한법(汗法)으로 땀을 많이 내서 땀이 그치지 않고 줄줄 나오는 것을 '누풍망양(漏風亡陽)'이라고 하는데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쓴다. 걸이 허하고 풀리지 않았다면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팔다리가 차갑고 땀을 흘릴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疎風 풍(風)을 흠어줌

太陽病熱, 脈沈細, 搖頭口噤, 背反汗出, 不惡寒, 名柔痙, 中風也, 宜小續命湯.

태양병(太陽病)에 열이 나고 맥이 침(沈)·미(細)하며 머리를 흔들고 입을 악다물며 등에서 도리어 땀이 나고 오한(惡寒)은 없는 것을 유치(柔痙)라고 부르는데 풍사(風邪)에 적중된 것이다. 소속명탕(小續命湯)을 써야 한다.

汗多亡陽, 惡風煩躁, 先與防風白朮牡蠣湯. 汗止, 次服小建中湯.

땀을 많이 흘려 망양(亡陽)이 되었을 때 오향(惡風)과 번조(煩躁)가 있다면 먼저 방풍백출모려탕(防風白朮牡蠣湯)을 쓴다. 땀이 그친 뒤에 이어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복용시킨다.

下 하법(下法)

裏未和, 熱越, 故下之. 纔覺汗多, 未至津液乾, 速下之, 則爲捷徑, 免致用蜜導也.

속이 조화롭지 못하여 땀을 흘리는 것은 열월(熱越)³이므로 하법(下法)을 쓴다. 막 땀이 많다고 느껴지고 아직 진액(津液)이 마르지는 않았을 때 빠르게 하법(下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렇게 하면 밀도법(蜜導法)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

從治 종치법(從治法)

吐利止後, 汗而厥, 脈微欲絕, 通脈四逆.

구토와 설사가 멈춘 뒤에 땀이 나면서 손발이 차갑고 맥이 미(微)하여 끊어질 것만 같을 때는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을 쓴다.

清暑 청서

暑邪干衛, 非傷寒此⁴.

서사(暑邪)가 위기(衛氣)를 침범한 것으로, 상한(傷寒)과 다르다.

流濕潤燥 습(濕)을 흘려보내고 마른 것을 적셔줌

多汗而濡, 此其風濕甚, 濕邪干於衛也.

많은 땀이 나와 축축해지는 것은 풍습(風濕)이 심한 경우로 습사(濕邪)가 위기를 침범한 것이다.

撲法⁵ 두드려 바름

蜜導 밀도

陽明自汗, 小便利, 爲津液內竭, 雖硬不可攻.

양명병(陽明病)에 자한(自汗)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은 진액(津液)이 안에서 고갈된 경우이니 비록 대변이 단단하더라도 공하(攻下)시켜서는 안 된다.

1. 裏未解 ㉞ 表未解 ※《상한명리론》↩

2. 表未和 ㉞ 裏未和 ※《상한명리론》↩

3. 열월(熱越) : 열이 나면서 땀이 많이 나는 상태 ↩

4. 此 ㉞ 比 ※문맥 ↩

5. 撲法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盜汗 도한

睡而汗出, 覺而則止方是, 非若雜證, 邪在半表裏使然也.

잠이 든 뒤에 땀이 나고, 잠에서 깨면 땀이 멈추는 것이 도한이다. 잡병(雜病)의 도한과 달리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기 때문이다.

解肌 해기

出而微惡寒, 小柴胡加桂湯.

도한이 나면서 약간 오한(惡寒)이 들 때는 소시호가계탕(小柴胡加桂湯)을 쓴다.

和解¹ 화해

下 하법(下法)

素有積, 或熱在內, 脈實.

평소 적(積)이 있거나 또는 안에 열이 있으면서 맥이 실(實)한 경우에 쓴다.

撲法 두드려 바름

白朮、白芷、藁本、川芎 [各一兩], 米粉 [一兩半] 爲末, 周身撲之.

백출(白朮)·백지(白芷)·고본(藁本)·천궁(川芎) [각 1냥], 미분(米粉) [1냥 반] 을 가루 내어 온몸에 발라준다.

1. 和解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頭汗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경우

邪搏諸陽，津液上湊，則汗見於頭也.

사기(邪氣)가 양분(陽分)에 침입하여 진액이 위로 몰리면 머리에 땀이 난다.

瘀熱在裏，身必發黃，小便不利，引水.

어열(瘀熱)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몸에 발황(發黃)이 생기니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물을 마시려고 한다.

熱入血室，陽明被火，水結胸中，寒濕相搏，邪在半表裏.

열입혈실(熱入血室)인 경우, 양명병(陽明病)에 화법을 잘못 쓴 경우, 수결흉(水結胸)인 경우, 한(寒)과 습(濕)이 뒤엉킨 경우,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 경우에 머리에서 땀이 난다.

和解 화해

頭汗惡寒，小柴胡加桂. 汗不止者，難治.

머리에서 땀이 나고 오한(惡寒)이 들 때는 소시호가계탕(小柴胡加桂湯)을 쓴다. 머리에서 나는 땀이 멈추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若汗下後¹，胸滿微結，如往來寒熱，手足冷，心下滿，脈細，惡寒，小便不利，此皆頭汗之逆者. 小便不利而成關格，陽脫也. 喘者亦然.

만약 한법(汗法)을 쓰고 다시 하법(下法)을 쓴 뒤에 흉협(胸脇)이 그득하고 조금 맺힌 것이 있으며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는 경우, 손발이 차고 명치가 답답하며 맥이 세(細)하고 오한(惡寒)이 들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두 두한(頭汗)에서의 역증(逆證)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다가 관격(關格)이 된 것은 양탈(陽脫)이다. 숨이 찬 것도 그러하다.

下 하법(下法)

瘀熱在裏.

어열(瘀熱)이 속에 있을 때 쓴다.

1. 若汗下後 已發汗而復下之 ※《상한론》

手足汗 손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

熱聚於胃, 是津液滂達也. 有陽明中寒, 不能食, 小便不利, 手足澼澼然汗出, 此欲作痼瘕, 卽是中寒也.

열(熱)이 위(胃)에 모인 것으로 진액이 옆으로 나오는 것이다. 양명병 중한(中寒)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손발에서 축축하게 땀이 나는 것으로, 고가(痼瘕)가 생기려는 것이니 곧 중한(中寒)이다.

下 하법(下法)

胃熱可下.

위(胃)에 열(熱)이 있을 때는 하법을 써야 한다.

溫 온법(溫法)

寒聚於胃, 爲不可下, 當溫之.

한(寒)이 위(胃)에 모여 있을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되며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無汗 땀이 나지 않는 경우

寒邪傷人, 獨不汗出, 寒傷榮, 而不傷衛, 衛無邪氣所干, 則皮膚得以密, 津液得以固, 是以汗不出也. 及其傳變裏爲熱, 則亦便自汗¹, 蓋熱則榮衛通. 服三劑無汗, 熱病, 脈躁盛而不得汗, 經謂陽脈之極也, 主死.

한사(寒邪)가 사람을 손상시켜도 땀이 나지 않는 것은 한(寒)이 영분(榮分)만 손상시키고 위분(衛分)은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분(衛分)이 사기(邪氣)에 침범받지 않으면 주리(腠理)가 조밀해지고 진액이 안으로 스며들어 땀이 나오지 않는다. 또 이증(裏證)으로 전경(傳經)되어 열(熱)이 생겨나도 자한(自汗)이 날 수 있으니, 열(熱)이 생기면 영분(營分)과 위분(衛分)이 통하기 때문이다. 3제(劑)까지 복용시켜도 땀이 나지 않는 경우, 열병(熱病)에 맥이 날뛰고 땀이 나지 않아 경문(經文)에서 "양맥(陽脈)의 기운이 다한 것"이라고 한 경우는 모두 죽게 된다.

助陽 조양

熟附配麻黃, 發中有補, 出趙氏釋疑.

숙부자(熟附子)와 마황(麻黃)을 함께 쓰는 것은 발산시키면서 보하는 방법이다. 조사진(趙嗣眞)의 《활인서석의(活人書釋疑)》에 보인다.

乾薑配生附, 補中有發.

건강(乾薑)을 생부자(生附子)와 함께 쓰는 것은 보하면서 발산시키는 방법이다.

無汗而解者, 屬少陽也. 戰而汗解者, 太陽也. 不戰汗解者, 陽明也.

땀이 나지 않았는데 병이 풀리는 경우는 소양(少陽)에 속한다. 심하게 떨다가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경우는 태양(太陽)에 속한다. 떨지 않고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경우는 양명(陽明)에 속한다.

1. 亦便自汗 ⇄ 亦使自汗 ※문맥 ⇄

頭痛 두통

太陽證居多. 三陽經受風寒伏留而不去, 則名厥頭痛. 痛甚而手足寒者, 爲黃病¹.

주로 태양병(太陽病)에 있다. 삼양경(三陽經)이 풍한(風寒)의 사기(邪氣)를 받은 뒤 이 사기가 잠복하여 제거되지 않은 것을 궤두통(厥頭痛)이라고 한다. 통증이 심하면서 손과 발이 차가운 것은 진장병(眞臟病)이 된 경우이다.

頭頂痛屬厥經². 頭角痛屬少陽. 額痛及鼻屬陽明.

정수리가 아픈 것은 궤음(厥陰)에 속한다. 두각(頭角)³이 아픈 것은 소양(少陽)에 속한다. 이마에서 코까지 아픈 것은 양명(陽明)에 속한다.

發汗 발한

傷寒無汗, 發熱惡寒, 不惡風, 麻黃湯.

상한(傷寒)으로 땀이 나지 않고 발열(發熱)과 오한(惡寒)이 있으나 오풍(惡風)이 들지 않을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 小便清者, 知不在裏, 仍在表也, 當汗解. 痛甚者必衄. 葛根蔥白湯、荊防散、川芎石膏湯.

6~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며 열이 날 때 소변이 맑다면 열이 속에 있지 않고 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한법(汗法)을 써야 한다. 통증이 심하면 반드시 코피를 흘린다. 이때는 갈근충백탕(葛根蔥白湯)、형방산

(荊防散)、천궁석고탕(川芎石膏湯)을 쓴다.

解肌 해기

傷風汗出, 發熱惡風, 不惡寒, 桂枝湯.

상풍(傷風)으로 땀이 나고 발열(發熱)과 오풍(惡風)이 있으나 오한(惡寒)이 들지 않을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輕者, 柴胡桂枝湯.

가벼운 경우에는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溫經 온경

厥陰、少陰證, 嘔而吐沫, 吳茱萸湯.

궤음병(厥陰病)과 소음병(少陰病)에 머리가 아픈데 구역질하면서 거품 섞인 침만 토할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쓴다.

夏月頭痛, 身冷自汗, 此中暑濕, 朮附湯.

여름철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차가우며 자한(自汗)이 나는 것은 서습(暑濕)에 적중된 경우이니 출부탕(朮附湯)을 쓴다.

清上 청상

大頭傷寒, 須用酒炒黃芩、荷葉、羌活輩.

대두상한(大頭傷寒)⁴에는 술을 넣고 볶은 황금(黃芩)·하엽(荷葉)·강활(羌活) 등을 써야 한다.

攻下 공하

表邪入裏, 不大便, 有熱, 脈沈而滑, 尺寸俱長, 皆可下之. 有熱, 不惡寒, 反惡熱, 或不大便, 小便赤者, 胃實也, 宜調胃主之.

표사(表邪)가 속으로 들어가 대변이 나오지 않고 열이 나며 맥이 침(沈)하고 활(滑)한데 척맥(尺脈)과 촌맥(寸脈)이 모두 길 때는 모두 하법(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 열이 있고 오한(惡寒)이 들지 않으며 도리어 오열(惡熱)이 있거나, 대변을 보지 않고 소변이 붉은 것은 위(胃)가 실(實)한 경우이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다스린다.

和解 화해

邪在半表裏, 少陽往來寒熱, 脈弦細, 宜小柴胡. 發熱頭痛似瘧, 欲愈, 麻桂各半湯.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 소양병(少陽病)에서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고 맥이 현(弦)·세(細)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써야 한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데 증상이 학(瘧)과 같을 때는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을 쓴다.

分利 분리

夏月頭痛, 惡寒, 心下煩躁不快, 五苓散.

여름철에 머리가 아프고 오한(惡寒)이 들며 명치가 답답하고 불편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清鎮 식히고 진정시킴

自汗頭痛, 及風暑雜病, 俱宜白虎, 少加芎、荊芥尤妙, 或竹葉石膏湯.

자한(自汗)이 나고 머리가 아플 때는 풍사(風邪)나 서사(暑邪)로 인한 외감병에서 잡병(雜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호탕(白虎湯)을 써야 한다. 천궁(川芎)、형개(荊芥)를 조금 더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또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吐 토법(吐法)

頭痛, 及發寒熱, 脈緊寸大, 卽是痰飲, 宜瓜蒂散吐之.

머리가 아픈데 오한과 발열이 있고 맥이 긴(緊)한데 촌맥(寸脈)이 대(大)한 것은 담음(痰飲) 때문이니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켜야 한다.

敷瘡 붙이는 방법

汗後不解, 因芷、辛、烏輦, 同藻白⁵搗膏貼於額角.

한법(汗法)을 쓴 뒤에 병이 풀리지 않을 때는 백지(白芷)·세신(細辛)·오두(烏頭) 등에 총백(葱白)을 넣고 찜어 고(膏)로 만들어 액각(額角)에 붙인다.

吹搐 붙어넣어 줌

汗後不解, 用不卧散末吹之鼻內.

한법(汗法)을 쓴 뒤에 병이 풀리지 않을 때는 불와산(不卧散)을 가루 내어 콧구멍 속에 붙어넣는다.

鍼刺⁶ 자침(刺鍼)

1. 爲黃病 爲眞病 ※《상한명리론》↩

2. 屬厥經 屬厥陰 ※문맥 ↩

3. 두각(頭角) : 이마 좌우 양 끝 모서리 진 곳이다. ↩

4. 대두상한(大頭傷寒) : 대두온(大頭瘟). 머리와 얼굴이 붉게 붓는 것이 특징인 역병(疫病)이다. ↩

5. 藻白 葱白 ※문맥 ↩

6. 鍼刺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項強 항강

發汗 발한

表實.

표(表)가 실(實)한 경우.

解肌 해기

汗出惡風.

땀이 나고 오풍(惡風)이 있는 경우.

和解 화해

身熱惡風, 頭項強, 腹中滿, 手足溫而渴, 小柴胡主之.

몸에서 열이 나고 오풍(惡風)이 들며 머리와 목덜미가 뻣뻣하며 배속이 그득하고 손발이 따뜻하고 갈증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다스린다.

下 하법(下法)

結胸病亦項強, 如柔痙狀, 大陷胸主之.

결흉(結胸)에도 목덜미가 뻣뻣하여 유치(柔瘥)와 비슷할 때가 있으니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다스린다.

鍼¹ 침

1. 鍼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頭眩 두현

少陽與太陽併病, 故眩者, 責其虛也. 眩冒者, 皆發汗下後所致, 是知其陽虛也. 針經有云, 上虛則眩, 下虛則厥. 與風家眩暈同.

소양(少陽)과 태양(太陽)이 병병(併病)되어 어지러운 것은 원인이 허(虛)에 있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은 모두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생겨나므로 양허(陽虛)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침경(針經)》에서 "위가 허(虛)하면 어지럽고, 아래가 허하면 곁(厥)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풍(風)이 많은 이에게 현훈(眩暈)이 생기는 경우와 같다.

和解 화해

半表裏, 邪漸行於裏, 表中易虛¹, 故時時目眩也. 中風家, 多頭眩, 宜解肌, 傷寒亦然.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다가 점차 속으로 들어갈 때 겉의 양(陽)이 허해지므로 때때로 눈앞이 아득해진다. 풍사(風邪)에 잘 적중되는 이가 자주 어지러운 때는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상한(傷寒)도 그러하다.

溫經 온경

頭眩, 身瞤動, 或虛弱汗多, 宜眞武湯.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푸들거리거나 허약하여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진무탕(眞武湯)을 써야 한다.

吹鼻 코에 붙어넣어 줌

眩暈, 鼻塞而煩, 此頭中寒濕, 宜瓜蒂散吹鼻中, 取下濕水.

현훈(眩暈)이 있고 코가 막히며 가슴이 갑갑한 것은 머리에 한습(寒濕)이 든
경우이니 과체산(瓜蒂散)을 콧속에 붙어넣고 물이 흘러나오도록 한다.

1. 表中易虛 表 表中陽虛 ※《상한명리론》←

胸脇滿 흉협만

胃滿多帶表證, 多夾半表半裏證.

가슴이 그득할 때는 주로 표증(表證)을 동반하거나 반표반리증(半表半裏證)을 끼고 있다.

邪氣自表傷裏, 必先自胸脇, 已次經心腹入胃.

사기(邪氣)가 겉에서부터 속으로 손상시켜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가슴과 옆구리에서부터 점차 명치를 지나 위(胃)로 들어간다.

發汗 발한

太陽陽明合病.

태양(太陽)과 양명(陽明)의 합병(合病)인 경우.

調中 속을 다스림

寒中太陰, 悞下之, 愈不快, 臍脹, 或吐或利, 理中湯, 枳實、陳皮輩.

한사(寒邪)가 태음(太陰)에 적중되었는데 잘못 하법(下法)을 사용하여 더욱 병이 심해지고 창만하며 혹시 구토하거나 설사한다면 이중탕(理中湯)과 지실(枳實)·진피(陳皮) 등을 쓴다.

和解 화해

半表裏, 脇下痞鞭, 冲和去棗加牡蠣. 或已汗下, 胸脇滿微結, 小便不利, 渴而不嘔, 但頭汗出, 或往來寒熱, 柴胡姜桂湯.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어 옆구리 아래가 막혀 단단할 때는 충화탕(冲和湯)에서 대추를 빼고 모려(牡蠣)를 더하여 쓴다. 이미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썼는데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조금 마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갈증이 나지만 구역질은 없고 머리에서만 땀이 나며 더러 오한과 발열이 왕래할 때는 시호강계탕(柴胡薑桂湯)을 쓴다.

토 토법(吐法)

邪氣留於胸中, 聚而爲實者, 非上吐不可. 如四日在胸, 吐之則已.

가슴속에 머물렀던 사기(邪氣)가 뭉쳐서 단단해졌을 때는 위로 구토시키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는다. 만약 상한이 든 지 4일째가 되어 사기가 가슴에 머물렀을 때는 구토시키면 낫는다.

침 자침(刺鍼)

兼譴語, 刺期門.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섬어(譴語)가 있을 때는 기문(期門)에 자침한다.

下 하법(下法)

陽明少陽合病, 下利身熱, 脇痛, 大柴胡湯主之. 汗後, 頭疼, 心下痞, 脇滿疼, 短氣, 十棗湯.

양명소양(陽明少陽) 합병(合病)으로 설사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옆구리가 아플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다스린다. 한법(汗法)을 쓴 뒤에 머리가 아프고 명치가 막히며 옆구리가 그득하여 아프고 숨이 가쁠 때는 십조탕(十棗湯)을 쓴다.

心下滿 명치가 그득한 경우

是不經下後而滿, 有吐下之殊.

하법(下法)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득해진 경우는 토법(吐法)을 써야 할 경우와 하법(下法)을 써야 할 경우의 차이가 있다.

若下後滿者, 又有結痞之別. 虛邪留滯, 則但滿而不鞭痛也. 脈雙弦而遲者, 必心下硬. 實則心下滿, 虛則心下悸.

하법(下法)을 쓴 뒤에 그득해진 경우는 다시 경흉(結胸)과 비(痞)의 차이가 있다. 허사(虛邪)가 정체되면 그득하기만 하고 단단하거나 아프지 않다. 맥이 양쪽 모두 현(弦)하면서 지(遲)하다면 분명 명치가 단단할 것이다. 실하면 명치가 그득하고 허하면 명치가 두근거린다.

和解 화해

滿而不痛, 半夏瀉心湯.

명치가 그득하지만 아프지 않을 때는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쓴다.

分消 분소

飲水多, 心下脹滿, 用牡蠣澤瀉湯利小水. 傷寒例云, 心下滿, 心下悸, 皆邪在胸, 水停也.

물을 많이 마셔 명치가 팽만할 때는 모려택사탕(牡蠣澤瀉湯)으로 소변을 내보낸다. 《상한례(傷寒例)》에서 말하였다. "명치가 그득하거나 명치가 두근거리
는 것은 모두 사기(邪氣)가 가슴에 있고 물이 정체된 경우이다."

吐 토법(吐法)

邪在胸中, 病則滿而煩, 饑不能食者.

사기(邪氣)가 가슴에 있으면 명치가 그득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배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下 하법(下法)

心下滿而鞭痛, 近乎結胸, 大陷胸湯主之.

명치가 그득하면서 단단하고 아픈 것이 결흉(結胸)에 가까울 때는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다스린다.

心下痞, 按之濡, 脈關上浮者, 大黃黃連瀉心湯.

명치가 답답하나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관맥(關脈)이 부(浮)할 때는 대황황련사심탕(大黃黃連瀉心湯)을 쓴다.

諸瀉心例 사심(瀉心)의 여러 치료법

心下痞而復惡寒汗出者, 附子瀉心湯.

명치가 답답하고 다시 오한이 들며 땀이 흐를 때는 부자사심탕(附子瀉心湯)을 쓴다.

汗後胃不和, 心下痞鞭, 乾噦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下利者, 生薑瀉心湯.

한법(汗法)을 쓴 뒤에 위(胃)가 불편하여 명치가 답답하고 단단하며 음식 냄새가 나는 트림을 하고, 옆구리 아래에 수기(水氣)가 있으며 배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설사할 때는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을 쓴다.

下多痞而乾嘔, 心煩不得安, 下之痞益甚, 此非熱, 但胃中虛, 客氣上逆故鞭也, 甘草瀉心湯.

설사를 많이 하고 나서 명치가 답답하고 헛구역질하며 가슴이 답답하여 편안하지 않았는데 하법을 사용하였더니 명치가 더욱 답답해졌다. 이것은 열증(熱證)이 아니다. 단지 위(胃) 속이 허하여 침범한 사기가 위로 솟구쳐 단단하게 된 것이다.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을 쓴다.

結胸 결흉

有下之早而成者, 脈浮緊, 心下硬痛, 未可下之. 按則痛, 爲小結. 不按而痛, 爲大結. 直指方曰, 臟氣閉結而不復流布也.

하법(下法)을 일찍 사용하여 생겨난 경우에 맥이 부(浮)·긴(緊)하고 명치가 단단하며 아플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명치를 누르면 아픈 것은 소결흉(小結胸)이다. 누르지 않아도 아픈 것은 대결흉(大結胸)이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장기(臟氣)가 막히고 맺혀 퍼지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結胸證悉具, 而加之煩躁者, 爲不治. 藥之所以能勝邪者, 必待胃氣施布, 藥力始能溫汗吐下, 以逐其邪氣. 邪氣勝, 胃氣絕者, 安可爲之.

결흉(結胸)의 증상이 모두 있을 때 번조(煩躁)까지 있다면 치료할 수 없다. 약(藥)이 병사(病邪)를 이기려면 반드시 위기(胃氣)를 통해 약 기운이 퍼져야 약의 힘이 비로소 따뜻하게 하거나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켜 원인이 된 사기(邪氣)를 몰아낼 수 있다. 사기(邪氣)가 왕성한데 위기(胃氣)가 끊어지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理中 이중

邪熱在上, 胸膈痞結, 或未辨虛實, 先與理中, 加枳實尤妙. 先理其氣, 枳朮理中丸、桔梗枳殼湯. 韓祗和用七物調中丸.

사열(邪熱)이 상부에 있어서 흉격(胸膈)이 답답하고 마칠 때는 허(虛)·실(實)을 변별하기 전에 먼저 이중환(理中丸)을 쓰는데 지실(枳實)을 더하면 더 좋다. 먼저 그 기(氣)를 다스리는 것이니 지출이중환(枳朮理中丸)·길경지각탕(桔梗枳殼湯)을 쓴다. 한지화(韓祗和)는 칠물조중환(七物調中丸)을 사용하였다.

看寒熱兼證隨治.

오한과 발열 그리고 동반된 증상을 보고 이에 따라 치료한다.

按不按皆痛者, 乃熱結在心下也.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모두 아픈 것은 열(熱)이 명치에 뭉친 것이다.

攻下 공하

大小陷胸及大陷胸丸選用. 韓祗和用茯苓陷胸湯. 究源方用鶴頂丹治陰陽二結如神.

대함흉탕(大陷胸湯)·소함흉탕(小陷胸湯)·대함흉환(大陷胸丸)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한지화(韓祗和)는 복령함흉탕(茯苓陷胸湯)을 사용하였다. 구원방(究源方)은 학정단(鶴頂丹)으로 음양(陰陽)이 모두 맺힌 것을 치료하였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다.

水漬法 수지법

仁存方治結胸煩亂欲死, 凝雪湯漬布薄胸上, 熱除爲度. 當溫發四肢¹, 防厥逆也.

《인존방》에서 결흉(結胸)으로 죽을 듯이 가슴이 답답한 경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응설탕(凝雪湯)을 천에 적서 열(熱)이 내려갈 때까지 덮여 주었다. 팔다리를 따뜻하게 하여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泄熱 열(熱)을 배출함

如汗後未全解, 悞下之, 悞而之², 爲小結胸, 煩渴脈實, 宜三黃瀉心湯. 表全未解亦不可用.

만약 한법(汗法)을 쓴 뒤에 다 낫지 않아 잘못 하법(下法)을 사용한 탓에 소결흉(小結胸)이 되어 갈증이 심하고 맥이 실(實)할 때는 삼황사심탕(三黃瀉心湯)을 써야 한다. 표증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 때는 모두 쓸 수 없다.

輕者小結, 正在心下, 按之痛, 脈浮滑, 小陷胸湯. 無熱證者, 小陷胸、三物白散亦可, 此寒實也.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소결흉(小結胸)인데, 명치에만 국한되어 손을 대면 아프고 맥이 부활(浮滑)한 것으로 소함흉탕(小陷胸湯)을 쓴다. 열증(熱證)이 없을 때는 소함흉탕(小陷胸湯)、삼물백산(三物白散)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한(寒)이 실(實)한 결흉(結胸)이다.

重者, 熱實, 脈沈緊, 心下痛, 大陷胸湯. 有兼項強, 如柔痙狀, 或從心下至臍上不可近者, 大陷胸湯.

증상이 심할 때는 열(熱)이 실(實)하고 맥이 침(沈)·긴(緊)하며 명치가 아픈데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여기에 목덜미가 뻣뻣하여 유치(柔痙)와 비슷하거나, 명치에서 배꼽까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는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逐寒 한(寒)을 몰아냄

無熱證, 此寒實結也, 枳實理中丸, 或三物白散. 龐氏用檳榔散. 良方用海蛤散.

열증(熱證)이 없는 것은 한(寒)이 실(實)한 결흉(結胸)이다. 지실이중환(枳實理中丸)이나 삼물백산(三物白散)을 쓴다. 방안시(龐安時)는 빈랑산(檳榔散)을 사용하였다. 《양방(良方)》에서는 해합산(海蛤散)을 사용하였다.

刺 자침(刺鍼)

期門. 嚴仁菴刺肺俞. 婦人因血結胸, 亦熱入血室, 刺期門.

기문(期門)에 자침한다. 엄인암(嚴仁菴)은 폐수(肺俞)에 자침하였다. 부인(婦人)의 혈결흉(血結胸)이나 열입혈실증(熱入血室證)에도 기문(期門)에 자침한다.

和解 화해

結胸有熱, 或煩渴, 宜先用沖和加枳實, 次下本藥. 活人書治水結, 沖和去棗加茯苓牡蠣湯. 此事難知用五苓合枳朮湯. 飲水不散而結, 小半夏茯苓湯.

결흉(結胸)에 열이 나고 더러 갈증이 심할 때는 먼저 충화탕(沖和湯)에 지실(枳實)을 더하여 쓰고 이어서 증상에 따라 주된 약을 써야 한다. 《활인서(活人書)》에서 수결흉(水結胸)을 치료할 때 충화거조가복령모려탕(沖和去棗加茯苓牡蠣湯)을 사용하였다. 《차사난지》에서는 오령산(五苓散)과 지출탕(枳朮湯)을 합방하여 사용하였다. 마신 물이 흡수되지 않고 뱉혔을 때는 소반하가복령탕(小半夏加茯苓湯)을 사용한다.

與水 물을 줌

直指方云, 結胸, 喘促, 狂亂, 極熱大躁, 用地龍水, 一服未效, 再服, 自然汗出則愈.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결흉(結胸)으로 숨이 차고 미친 듯이 행동하며 열이 극심해서 마구 날뛰 때는 지룡수(地龍水)를 사용한다. 1번 복용하여 효과가 없을 때는 다시 복용시키는데 저절로 땀이 나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又用太乙牛黃丸, 竹葉湯調下, 以手揉其心膈卽下. 二藥兼治上一證.

또 태을우황환(太乙牛黃丸)을 죽엽탕(竹葉湯)으로 삼키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풀어주면 곧 내려간다. 이 2가지 약은 함께 앞의 1가지 증상을 치료한다.

灸 뜸

以黃連、巴豆七粒, 作餅子, 置臍中, 以火灸之, 得利爲度.

황련(黃連)과 파두(巴豆) 7알(粒)을 떡(餅子)처럼 만들어 배꼽 위에 두고 설사할 때까지 그 위에 뜸을 뜬다.

1. 當溫發四肢 ⇨ 當溫暖四肢 ※《보제방(普濟方)》⇨

2. 悞而之 : 연문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았다. ⇨



痞 비

不痛爲痞, 寸脈浮, 關脈沈, 心下滿而不硬, 按之不痛, 名曰痞. 不滿不硬, 但妨悶者, 非痞也, 謂之支飲. 有下之太早而致. 凡痞而硬爲水停, 濡者爲氣聚. 保命集云, 脾不能行氣於四臟, 結而不散則爲痞.

아프지 않은 것은 비증(痞證)이다. 촌맥(寸脈)이 부(浮)하고 관맥(關脈)이 침(沈)하며 명치가 그득하지만 단단하지 않고 눌러도 아프지 않은 것을 비(痞)라고 부른다. 그득하지도 단단하지도 않고 단지 갑갑하기만 한 것은 비증(痞證)이 아니고 지음(支飲)이라고 한다. 비증은 하법(下法)을 너무 일찍 사용하여 생긴다. 비증이 있을 때 명치가 단단한 것은 수(水)가 정체된 것이고 단단하지 않은 것은 기(氣)가 뭉친 것이다. 《보명집》에서 "비(脾)가 네 장(臟)으로 기(氣)를 보내지 못하여 이것이 맺혀 흠어지지 않으면 비(痞)가 된다."라고 하였다.

瀉痞例 비(痞)를 사하는 치료법

滿而不痛, 半夏瀉心湯, 泄熱而緩脾.

그득하나 아프지 않을 때는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써서 열(熱)을 배출시키고 비(脾)를 따뜻하게 한다.

色黃, 手足溫, 心下痞, 按之濡, 其脈關上浮者, 黃連瀉心湯, 泄虛熱. 痞而惡寒, 方見前, 兼溫通陽. 乾嘔食臭, 脇下有水氣者, 生薑瀉心湯, 兼止嘔逆. 下痢腹鳴例, 見瀉心, 用甘草瀉心湯, 兼調胃. 韓祗和用厚朴瀉心湯, 宣明論治痞, 檳榔散.

낮빛이 누르고 손발이 따뜻한데 명치에 비증(痞證)이 있어 단단하지 않으며 관맥(關脈)이 부(浮)할 때는 황련사심탕(黃連瀉心湯)으로 허열(虛熱)을 배출시킨다. 비증(痞證)이 있는데 오한(惡寒)이 들 때,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써서 양기(陽氣)를 따뜻하게 소통시킨다. 음식 냄새가 나는 트림을 하고 옆구리 아래에 수기(水氣)가 있을 때는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을 써서 구역질까지 그치게 한다. 설사하고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날 때 사심탕(瀉心湯)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을 써서 위(胃)까지 조화롭게 한다. 한지화(韓祗和)는 후박사심탕(厚朴瀉心湯)을 사용하였고, 《선명방론(宣明方論)》에서 비증(痞證)을 치료할 때 빈랑산(檳榔散)을 사용하였다.

雙解 쌍해

胸滿硬, 按之不痛, 脈沈緊, 大柴胡湯.

가슴이 그득하고 단단하며 눌러도 아프지 않고 맥(脈)이 침(沈)·긴(緊)할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解表 해표

當先解未解之表, 宜桂枝湯. 甚者兼治.

미처 풀리지 않은 표증(表證)이 있을 때는 먼저 이것을 풀어야만 하므로 계지탕(桂枝湯)을 써야 한다. 증상이 심할 때는 표증과 비증(痞證)을 함께 치료한다.

分利 분리

痞而小便不利, 五苓散.

비증(痞證)이 있으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散濕 산습

痞而下利, 直指方用朮附湯.

비증(痞證)이 있으면서 설사할 때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는 출부탕(朮附湯)을 사용하였다.

和解 화해

不滿不硬, 心下妨悶, 謂之支結, 小柴胡加桂湯. 胸滿而濡者, 半夏瀉心湯、旋覆代赭石湯. 輕者通用桔梗枳實湯主之. 直指方加茯苓、甘草. 補亡云, 常氏用茯苓甘草白朮生薑湯. 成痿可振痿湯.

그득하지도 단단하지도 않고 명치가 단지 갑갑하기만 한 것을 지음(支飲)이라고 한다. 소시호가계탕(小柴胡加桂湯)을 쓴다. 가슴이 그득하지만 명치가 단단하지 않을 때는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선복대자석탕(旋覆代赭石湯)을 쓴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길경지실탕(桔梗枳實湯)으로 통용하여 치료한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는 복령(茯苓)、감초(甘草)를 더하여 사용하

였다. 《상한보망론》에서 "상기지(常器之)는 복령감초백출생강탕(茯苓甘草白朮生薑湯)을 사용하였다. 위증(痿證)이 되었을 때는 진위탕(振痿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下 하법(下法)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 十棗湯主之.

명치에 비증(痞證)이 있는데 단단하고 그득하며, 옆구리 아래까지 아프며 헛구역질하고 숨이 가쁘며 땀이 나지만 오한(惡寒)이 들지 않을 때는 십조탕(十棗湯)으로 다스린다.

欬逆 해역(咳逆)

保命集云, 胸中氣不交也. 少陰經至胸中, 交於厥陰, 水火相搏而有聲, 故噫氣也.

《보명집》에서 "해역은 가슴속에서 기(氣)가 교류하지 못한 것이다. 소음경(少陰經)이 가슴속에 이르면 궤음경(厥陰經)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수(水)와 화(火)가 서로 다투어 소리가 나므로 딸꾹질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溫 온법(溫法)

胃寒先服理中湯, 次服旋復代赭石湯. 水寒相搏, 小青龍去麻加附. 脈微細, 宜重溫燥之.

위(胃)가 한(寒)할 때는 먼저 이중탕(理中湯)을 복용시키고 이어서 선복대자석탕(旋覆代赭石湯)을 복용시킨다. 수(水)와 한(寒)이 함께 뒤엉켰을 때는 소청룡탕(小青龍湯)에서 마황(麻黃)을 빼고 부자(附子)를 더하여 쓴다. 맥(脈)이 미세(微細)할 때는 거듭 따뜻하게 하여 말려주어야 한다.

導氣 기(氣)를 빼냄

保命集云, 如聖加枳實湯. 汗下後, 喘而噫氣, 如聖加人參藿香杏仁湯, 世俗或用橘皮半夏湯.

《보명집》에서 "여성가지실탕(如聖加枳實湯)을 쓴다. 한법(汗法)을 쓴 뒤에 숨이 차고 트림할 때는 여성가인삼곽향행인탕(如聖加人蔘藿香杏仁湯)을 쓴다. 세속에서는 귤피반하탕(橘皮半夏湯)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下 하법(下法)

有因失下所致脈散者死. 便軟, 用瀉心湯, 便硬, 用大承氣湯.

잘못 하법(下法)을 사용하여 맥이 흩어지는 경우는 죽는다. 대변이 단단하지 않으면 사심탕(瀉心湯)을 쓰고 대변이 단단하면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活人書一名噦. 傷寒又謂, 陰陽氣欲作汗, 升之不止¹, 降之不下, 而欬逆, 此胃氣上逆所致也.

《활인서(活人書)》에서는 열(噦)이라고도 하였다. 《상한》에서도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오르내리며 땀을 내려고 하는데 올려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도 내려가지 못하면 해역(咳逆)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위기(胃氣)가 거슬러 올랐기 때문이다.

刼 겁법(刼法)

總錄治嘔吐逆, 通正散、柿蒂散.

《총록(總錄)》에서 구역질 할 때 통정산(通正散)·시체산(柿蒂散)을 사용하였다.

平胃 평위

索矩云, 食穀者噦, 香橘散主之.

《색구》에서 "곡식을 먹고 딸꾹질할 때는 향귤산(香橘散)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和解 화해

潮熱, 時時噦, 與小柴胡.

조열(潮熱)이 나고 때때로 딸꾹질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瀉心 사심

便軟者, 宜用之. 如脈浮洪, 或有熱而欬逆者, 乃火熱逆上, 肺不納也, 甘草瀉心湯.

대변이 단단하지 않을 때는 사심탕(瀉心湯)을 써야 한다. 맥이 부(浮)·홍(洪)하고 더러 열(熱)이 나면서 해역(咳逆)이 있는 것은 화열(火熱)이 거슬러 올라 폐(肺)가 납기(納氣)의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을 쓴다.

清利 청리

少陰下利, 咳而嘔渴, 心煩不眠, 豬苓湯主之.

소음병(少陰病)에 설사하고 기침하면서 구역질이 나며 갈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저령탕(猪苓湯)으로 다스린다.

灸 뜸

期門

기문(期門)에 뜸을 뜬다.

鯁法 후법

藥無效, 以硫黃、乳香爲末, 酒煎鯁之.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유황(硫黃)、유향(乳香)을 가루 내고 술로 달여 냄새 맡게 한다.

1. 升之不止 ㉞ 升之不上 ※《고금의통대전》↩

腹脹滿 복창만

傷寒一日在皮、膚、肌、肉、胸。六日入胃，是在腹也，太陰證居多。經謂非太陰¹，腹中無虛滿。

상한(傷寒)이 들었을 때 사기(邪氣)는 1일째에 피(皮), 2일째에 부(膚), 3일째에 기(肌), 4일째에 육(肉), 5일째에 흉(胸)을 거쳐, 6일째에 위(胃)로 들어가게 된다. 위에 들어가면 사기가 배에 있게 되므로 태음병(太陰病)이 대부분이 된다. 《상한론》에서 "크게 그득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배 속이 허만(虛滿)하지 않은 것이다.

和解 화해

腹中滿痛，小柴胡去芩加芍。

배 속이 그득하고 아플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서 황금을 빼고 작약을 더하여 쓴다.

攻下 공하

腹滿痛者，急下之。脹而不大便者，急下之。大實痛，桂枝大黃。譫妄，脈沈數，煩渴，不拘日，調胃承氣湯。

배가 그득하고 아플 때는 급히 하법(下法)을 쓴다. 배가 창만하고 대변을 보지 못할 때는 급히 하법을 쓴다. 매우 단단하고 아플 때는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을 쓴다. 헛소리를 하고 맥이 침(沈)·삭(數)하며 갈증이 심할 때는 발병한 날 수와 상관 없이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溫 온법(溫法)

太陽病反下之, 因而腹滿時痛, 桂枝芍藥湯主之. 腹痛時減²者, 爲虛也.

태양병(太陽病)에 도리어 하법(下法)을 사용하여 이 때문에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플 때는 계지가작약탕(桂枝加芍藥湯)으로 치료한다. 배가 그득한 것이 때때로 줄어드는 경우는 허증(虛證)이다.

吐 토법(吐法)

下後心煩, 腹脹滿, 臥起不安, 此妄下, 邪氣乘虛入鬱胸中, 爲虛煩, 上下不得通利, 故宜吐也. 要識邪氣日漸起, 所在虛實之的, 則溫補針艾適當.

하법(下法)을 쓴 뒤에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부풀어 올라 그득하며 항상 편안하지 못한 것은 하법(下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사기(邪氣)가 허(虛)한 틈을 타고 가슴속에 들어와 울체되어 허번(虛煩)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나 아래로 소통시킬 수 없으므로 토법(吐法)을 써야 한다. 사기(邪氣)가 날로 점차 일어나는 것과 허(虛)하고 실(實)한 곳을 알아야만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和中氣 증기(中氣)를 조화시킴

汗後脹滿者, 厚朴姜草半夏參湯. 此脾胃津液不足, 氣塞不通, 壅而滿. 無求子用桔梗半夏湯.

한법(汗法)을 쓴 뒤에 배가 창만 할 때는 후박생강반하감초인삼탕(厚朴生薑半夏甘草人蔘湯)을 쓴다. 이것은 비위(脾胃)의 진액(津液)이 부족하여 기(氣)가 막혀 통하지 않고 정체되어 그득한 것이다. 무구자(無求子)는 길경반하탕(桔梗半夏湯)을 썼다.

1. 非太陰 非大滿 ※《상한명리론》←

2. 腹痛時減 腹滿時減 ※《상한명리론》←

少腹滿 소복만

必有物聚而爲之滿. 在上而滿者, 氣也. 在下而滿者, 物也. 物者溺與血也.

분명 어떤 물체가 모여 그득해진 것이다. 상부에서 그득해지면 기운 때문이고, 하부에서 그득해지면 물질 때문이다. 물질은 소변이나 혈(血)이다.

少腹硬,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當出不出, 積而爲滿.

아랫배가 단단한데 소변이 잘 나오며 환자가 미친 듯한 것은 혈증(血證)이 확실하다. 나가야 할 것이 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그득해진 경우이다.

下 하법(下法)

少腹急結者, 可攻之, 桃仁承氣湯.

아랫배가 갑자기 마칠 때는 공하(攻下)시켜야 하므로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쓴다.

輕者, 犀角地黃湯.

가벼운 경우에는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쓴다.

滲利 삼리

少腹硬, 小便不利, 爲無血也, 當滲利之.

아랫배가 단단한데 소변이 불편한 것은 혈(血)이 없기 때문이니 소변을 잘 나가도록 해야 한다.

刺括 자침(刺鍼)과 괄법(括法)

有中, 腹虛脹, 或腹中急痛, 刺括痿中, 或奪命穴等處.

중사(中痧)가 있어서 배가 허창(虛脹)하거나 배 속이 갑자기 아플 때는 위중혈(委中穴)에 침을 찌르거나 괄법(括法)을 사용한다. 또는 탈명혈(奪命穴) 등에 그렇게 한다.

煩熱 번열

爲煩而熱, 無時而渴是也. 有陰, 有陽, 有眞陽內鬱, 陰中伏陽之證, 虛實.

번열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며 정해진 때 없이 갈증이 나는 것이다. 음증(陰證)인 경우, 양증(陽證)인 경우, 진양(眞陽)이 안에서 울체된 경우, 음(陰) 속에 양(陽)이 잠복한 경우, 허증(虛)인 경우, 실증(實)인 경우가 있다.

發汗 발한

邪氣在表而煩.

사기(邪氣)가 겉에 있고 번열(煩熱)이 날 때는 한법(汗法)을 써야 한다.

分利 분리

汗後煩熱而渴, 辰砂五苓散主之.

한법(汗法)을 쓴 뒤에 번열(煩熱)과 갈증이 있을 때는 진사오령산(辰砂五苓散)으로 치료한다.

下 하법(下法)

汗多煩熱, 脈實, 宜下之. 陽明病, 不吐不下, 心煩者, 煩之實也, 宜調胃承氣湯.

땀을 많이 흘리고 번열(煩熱)이 나며 맥이 실(實)할 때는 하법(下法)을 써야 한다. 양명병(陽明病)에 토법이나 하법을 쓰지 않았으나 가슴이 답답한 것은 번(煩)이 실(實)한 것이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써야 한다.

和解 화해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經吐而心煩不眠, 酸棗仁湯.

가슴이 답답하고 잘 토하거나 가슴 속이 답답하지만 토하지 않을 때, 토법(吐法)을 사용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산조인탕(酸棗仁湯)을 쓴다.

吐 토법(吐法)

汗後煩熱, 心胸煩悶, 宜人參散吐之. 反復顛倒, 心中懊憹, 但藥有輕重之不同耳. 實煩而胸中窒者, 梔子豉湯.

한법(汗法)을 쓴 뒤에 번열(煩熱)이 나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인삼산(人蔘散)으로 토하게 해야 한다. 몸을 뒤척이고 가슴 속이 불편한 경우는 다만 쓰는 약(藥)의 경중이 다를 뿐이다. 실증(實證)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짝 막혔을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脈浮, 上部壅塞, 胸心而滿者, 用瓜蒂散.

맥이 부(浮)하고 상부가 막혀 가슴이 그득할 때는 과체산(瓜蒂散)을 쓴다.

可水 물을 마시게 함

汗後胃乾, 煩不得眠, 欲飲水者, 少以與之.

한법(汗法)을 쓴 뒤에 위(胃)가 건조해져서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조금씩 마시도록 한다.

和中 화중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是煩之虛也. 小建中湯補之.

상한(傷寒)이 든 지 2~3일째에 가슴 속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것은 번(煩)의 허증(虛證)이다. 소건중탕(小建中湯)으로 보한다.

和表裏生津液 겉과 속을 화해시켜 진액(津液)이 생겨나도록 함

有寒者, 附子湯. 熱者, 白虎湯.

한(寒)이 있을 때는 부자탕(附子湯)을 쓴다. 열(熱)이 있을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脈浮, 表未解也. 渴者, 熱¹大實, 上焦燥也, 宜五苓生津和表.

맥이 부(浮)한 것은 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갈증이 있는 것은 열(熱)이 아직 실하지 않고 상초(上焦)가 메마른 것이다. 이때는 오령산(五苓散)으로 진액을 생겨나게 하고 겉과 속을 화해시켜야 한다.

陰虛而邪盛, 熱煩於內, 心中煩, 不得眠者, 黃連阿膠湯, 以扶陰散熱.

음(陰)이 허(虛)하고 사(邪)가 성하여 열(熱)이 안에 쌓이면 가슴 속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으로 음(陰)을 북돋고 열(熱)을 흩어준다.

陰虛客熱, 下利咽痛, 胸滿心煩, 與猪膚湯, 以調陰散熱.

음(陰)이 허(虛)한데 열(熱)이 침입하여 설사하고 목구멍이 아프며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할 때는 저부탕(猪膚湯)을 주어 음(陰)을 조리하고 열(熱)을 흩어준다.

1. 熱犬實 ⇨ 熱未實 ※문맥 ⇐

煩躁 번조

煩爲擾擾而煩, 躁爲憤躁之躁, 邪氣在裏. 煩爲內不安, 躁爲外不安. 有因火劫, 有陽虛, 有陰盛. 兼結胸者死. 無求子曰, 脈洪實或滑, 小便赤者, 陽躁也. 脈微, 手足逆冷, 大小便利者, 陰躁也.

번(煩)은 불안하면서 답답한 것이고, 조(躁)는 부산스러운 것으로 사기(邪氣)가 속(裏)에 있는 경우이다. 번(煩)은 안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고 조(躁)는 밖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쫓다 생긴 경우, 양(陽)이 허약한 경우, 음(陰)이 왕성한 경우가 있다. 번조가 있을 때 결흉(結胸)까지 있으면 죽는다. 무구자(無求子)가 "맥이 홍(洪)·실(實)하거나 활(滑)하고, 소변이 붉은 것은 양조(陽躁)이다. 맥이 미(微)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는 것은 음조(陰躁)이다."라고 하였다.

兩解 양해

散榮衛風寒. 太陽中風, 脈浮而緊, 不汗出而煩躁, 大青龍湯主之. 惡寒而倦¹, 時時自煩, 欲去衣服, 大柴胡主之.

영분(榮分)과 위분(衛分)의 풍한(風寒)을 흩어준다. 태양(太陽) 중풍(中風)에 맥이 부(浮)·긴(緊)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며 번조(煩躁)가 있을 때는 대청룡탕(大靑龍湯)으로 치료한다. 오한(惡寒)이 들고 웅크리지만 때때로 까닭 없이 갑갑하여 옷을 벗으려는 경우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

解肌 해기

煩躁消渴, 辰砂五苓散.

번조(煩躁)와 소갈(消渴)이 있을 때는 진사오령산(辰砂五苓散)을 쓴다.

與水 물을 마시게 함

汗後煩躁不得眠, 欲水者, 少少與之.

한법(汗法)을 쓴 뒤에 번조(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조금씩 주어야 한다.

和 화법(和法)

下利咽痛, 胸滿而煩, 猪膚湯. 自汗心煩, 小便多者, 芍藥甘草湯.

설사하고 목구멍이 아프며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할 때는 저부탕(猪膚湯)을 쓴다. 자한(自汗)을 흘리고 심번(心煩)이 있으며 소변이 잦을 때는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不大便六七日, 繞臍痛, 煩躁發作有時, 此有燥屎也, 小承氣下之.

6~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고 배꼽 주변이 아프며 정해진 때에 번조(煩躁)가 생겨나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기 때문이니 소승기탕(小承氣湯)으로 설사시켜야 한다.

溫 온법(溫法)

陰盛而煩燥, 少陰病, 吐利, 手足厥冷, 煩燥欲死者, 吳茱萸湯主之. 證治云, 八石散, 治煩躁佳. 活人書云, 身冷, 脈沈疾, 煩躁不飲水, 名陰盛隔陽, 霹靂散・火焰丹.

온법(溫法)은 음(陰)이 성하여 번조(煩躁)가 있는 경우에 쓴다. 소음병(少陰病)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번조(煩躁)로 죽을 듯할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 《증치》에서 "팔석산(八石散)은 번조를 치료할 때 좋다."라고 하였다. 《활인서(活人書)》에서 "몸이 차갑고 맥은 침(沈)하고 빠르며 번조(煩躁)가 있으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음성격양(陰盛隔陽)'이라고 부른다. 벽력산(霹靂散)・화염단(火焰丹)을 쓴다."라고 하였다.

外臺云, 陰躁欲坐井水, 宜熱溫之.

《외대비요(外臺秘要)》에서 "음조(陰躁) 때문에 우물물에 앉아 있으려 할 때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退陰復陽 음(陰)을 물러나게 하고 양(陽)을 회복시킴

汗下後, 晝日煩燥不得眠, 夜而安靜, 不渴不嘔, 無表證, 脈沈微者, 乾薑附子湯. 陰盛發燥名陰躁, 四逆湯.

한법(汗法)을 쓴 뒤에, 낮에는 번조(煩躁)가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이 되어야 안정되며 구토하지도 않고 갈증도 없으며 표증이 없고 맥이 침미(沈微)할 때는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을 쓴다. 음(陰)이 치성하여 번조가 생긴 것을 음조(陰躁)라고 하니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陰盛隔陽, 身冷, 脈細, 煩躁, 霹靂散.

음성격양(陰盛隔陽)으로 몸이 차고 맥이 세(細)하며 번조가 있을 때는 벽력산(霹靂散)을 쓴다.

補陽益陰 양(陽)을 보하고 음(陰)을 더함

發汗下後, 病仍不解, 煩躁者, 茯苓四逆湯. 無求子云, 昔人患傷寒, 身冷脈微, 手足厥而躁甚, 醫以艾湯調硫黃末四錢與之, 卽時安臥, 良久出汗而愈.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도 병이 풀리지 않고 번조가 있을 때는 복령사역탕(茯苓四逆湯)을 쓴다. 무구자(無求子)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상한(傷寒)을 앓아 몸이 차갑고 맥이 미(微)하며 손발이 차고 번조가 심했다. 의원(醫員)이 쑥 달인 물에 유황(硫黃) 가루 4돈을 타서 주었더니 곧바로 편안해져 잠을 이루었고, 한참 후에 땀을 흘리고 나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灸 뜸

傷寒六七日, 脈微, 手足厥冷, 煩躁, 宜灸厥陰穴.

상한(傷寒)이 든 지 6~7일에 맥이 미(微)하고 손발이 차며 번조가 있을 때는 곁 음혈(厥陰穴)에 뜸을 뜬다.

扶陰泄熱 음(陰)을 돕고 열을 배출시킴

少陰, 躁不得眠, 黃連雞子湯.

소음병(少陰病)에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황련계자탕(黃連雞子湯)을 쓴다.

總錄云, 雞清散治煩躁悶亂. 絳雪治狂躁發熱. 大安丸、凝水石丸, 治狂躁悶亂.

《총록(總錄)》에서 "계청산(雞淸散)은 번조와 가슴 갑갑함을 치료한다. 강설(絳雪)은 미친 듯이 부산스럽고 열(熱)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대안환(大安丸)、응수석환(凝水石丸)은 미친 듯이 부산스럽고 가슴이 갑갑한 것을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韓氏云, 不甚實, 丹砂丸. 輕者, 朱砂安神丸.

한지화(韓祗和)가 "아주 실(實)하지 않다면 단사환(丹砂丸)을 쓴다. 가벼울 때는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을 쓴다."라고 하였다.

熨 찜질

陰毒用火熨.

음독(陰毒) 때문일 때는 뜨겁게 찜질한다.

1. 惡寒而倦 ⇨ 惡寒而踈 ※《상한론》 ⇨



懊惱 오뇌

比之煩悶不甚者也¹. 有表未解, 下早所致. 有虛有實.

오뇌는 번민(煩悶)에 비해 심한 것이다. 표증(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하법(下法)을 사용하여 생긴다. 허증(虛證)과 실증(實證)이 있다.

下 하법(下法)

陽明, 無汗, 小便不利, 心中懊惱者, 必發黃. 二者爲邪熱結於胸中, 當攻下. 陽明病下之, 心下懊惱, 微煩, 胃中有燥屎.²

양명병(陽明病)에 땀을 흘리지 않고 소변이 불편하며 가슴속에 오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긴다. 양명병에 하법을 사용하여 가슴속에 오뇌(懊惱)가 생기고 조금 답답하며 위 속에 조시(燥屎)가 있는 것이다. 이 2가지 경우는 사열(邪熱)이 가슴속에 맺힌 것이므로 공하시켜야 한다.

吐 토법(吐法)

邪熱鬱於胸中, 宜梔子豉湯吐之. 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惱, 亦用之.

사열(邪熱)이 가슴속에 울체되었을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구토시켜야 한다.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심하면 반드시 몸을 뒤척이며 가슴속에 오뇌(懊惱)가 생긴다. 이때도 치자시탕

(梔子豉湯)을 쓴다.

1. 比之煩悶不甚者也 比之煩悶而甚者也 ※《상한명리론》↩

2. 《상한명리론》을 근거로 착간을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舌上胎 설상태

舌上有膜, 白滑如胎, 或燥或澁, 或黃或黑, 皆熱氣之淺深也. 有邪氣傷裏, 或在半表裏, 或邪氣客於胸中.

혀 위에 이끼처럼 희고 매끈한 막이 생겨 심하면 메마르기도 하고 꺼끌꺼끌하기도 하며 누렇기도 하고 검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열기(熱氣)의 깊이를 의미한다. 사기(邪氣)가 속으로 전경(傳經)된 경우,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 경우, 사기(邪氣)가 가슴속에 침입한 경우에 설태가 낀다.

丹田有熱, 胸上有寒, 邪初傳入裏者也.

"단전(丹田)에 열(熱)이 있고 가슴 위에 한(寒)이 있는 경우"는 사기(邪氣)가 속으로 막 전경된 경우이다.

和解 화해

陽明病, 脇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胎者, 與小柴胡主之.

양명병(陽明病)에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구역질하며 혀 위에 백태가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다스린다.

吐 토법(吐法)

陽明, 脈浮緊, 咽燥, 腹滿而喘, 心中懊憹,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

양명(陽明)에 맥(脈)이 부(浮)·긴(緊)하고 목구멍이 마르며 배가 그득하면서 숨이 차고 가슴속에 오뇌(懊惱)가 생기고 혀 위에 설태가 끼었을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다스린다.

下 하법(下法)

舌黃未下者, 下之. 黑滑皆然.

혀가 누런데 아직 하법(下法)을 쓰지 않았다면 하법을 쓴다. 혀가 검고 미끈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清熱生津 열을 식히고 진액을 생성함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 時時惡風, 大渴, 舌上燥, 白虎加人參湯.

상한이 든 지 7~8일이 되어도 병이 풀어지지 않고 속에 열이 맺혀서 겉과 속에 열이 있고 때때로 오풍이 생기며 심한 갈증이 일고 혀가 매우 건조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

衄 코피

傷寒衄者, 積熱在表. 或出口鼻, 是謂下厥上竭.

상한(傷寒)에 코피를 흘리는 것은 적열(積熱)이 표(表)에 있기 때문이다. 또 입과 코로 피가 나오는 것을 '하궤상궤(下厥上竭)'이라고 부른다.

發汗 발한

傷寒, 脈浮緊, 不發汗, 因致衄者, 麻黃湯. 脈證諦當, 方可用是發散經中邪氣爾.

상한(傷寒)에 맥이 부(浮)·긴(緊)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며 이 때문에 코피를 흘릴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맥상과 증상이 참으로 합당해야만 비로소 마황탕을 사용하여 경맥 속의 사기(邪氣)를 발산시킬 수 있다.

衄家不可發汗, 蓋慎之也.

평소 자주 코피가 나는 환자에게 한법(汗法)을 사용해서는 안 되니, 모두 신중해야 한다.

解肌 해기

脈浮, 自汗, 桂枝湯.

맥이 부(浮)하고 자한(自汗)을 흘릴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溫 온법(溫法)

許氏治少陰候汗, 衄血及臍中出, 用姜附湯治本.

허숙미(許叔微)는 소음병(少陰病)에 한법(汗法)을 잘못 사용하여 코와 배꼽에서 피가 나는 것을 강부탕(薑附湯)으로 치료하였다.

下 하법(下法)

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而衄者, 與小承氣下之. 或涼膈加生地黃.

대변을 보지 못한지 6~7일째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면서 코피를 흘릴 때는 소승기탕(小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혹은 양격산(涼膈散)에 생지황(生地黃)을 더하여 쓴다.

分利 분리

衄而渴, 心煩, 飲則吐者, 先五苓散, 次竹葉湯.

코피를 흘리면서 갈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물을 마시면 토할 때는 먼저 오령산(五苓散)을 쓴 뒤에 죽엽탕(竹葉湯)을 쓴다.

涼血 혈을 서늘하게 함

脈微爲血虛. 凡傷寒及溫病應發汗而失之, 熱蘊爲血衄及吐者, 犀角地黃湯, 黃芩芍藥. 不止者, 茆花湯.

맥이 미미(微)한 것은 혈(血)이 허한 것이다. 상한(傷寒)과 온병(溫病)에는 한법(汗法)을 써야 하지만 이를 잘못하면 열(熱)이 쌓여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니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을 쓴다. 멈추지 않으면 모화탕(茅花湯)을 쓴다.

水貼 수첩

汗後熱退, 血不止, 用新井水濕草紙於鼻上貼之, 及頭頂項上皆貼, 時時易之.

한법(汗法)을 쓴 뒤에도 열이 물러나지 않고 코피도 그치지 않을 때는 새로 길어온 우물물에 적신 종이를 코 위에 붙여주고 정수리와 목덜미에도 모두 붙여준다. 그리고 때때로 새로 붙여준다.

墨汁, 倍灰必用.

흑즙(墨汁)·배회필용(倍灰必用)을 쓴다.

축혈¹ 축혈(蓄血)

熱毒流於下而瘀血者, 謂之蓄血².

열독(熱毒)이 아래로 흘러 어혈(瘀血)이 된 것을 축혈(蓄血)이라고 한다.

附下血例.

하혈(下血)시키는 경우를 덧붙여 둔다.

亦有年高人, 小便不利者. 韓祗和用嚏法通之.

나이 많은 사람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한지화(韓祗和)는 재채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통시켰다.

溫經 온경

陰證, 下如豚肝, 當溫之, 芎歸朮附湯.

축혈의 음증(陰證)은 대변에 돼지 간과 같은 피가 섞여 나온다. 이때는 궁귀출부탕(芎歸朮附湯)을 쓴다.

涼血 혈을 서늘하게 함

陽證, 溢出鮮血, 當清之, 芩、連、生熟地黃、地骨、柴胡、芍藥、甘草之類.

축혈의 양증(陽證)은 선혈이 흘러나온다. 이때는 열을 식혀 주어야 하므로 황금(黃芩)·황련(黃連)·생지황(生地黃)·숙지황(熟地黃)·지골피(地骨皮)·시호(柴胡)·작약(芍藥)·감초(甘草) 등을 쓴다.

下 하법(下法)

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 以熱在下焦. 少腹當硬,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太陽隨經瘀在裏也.

태양병(太陽病)이 든 지 6~7일째에 표증(表證)이 여전히 있으나 맥이 미(微)하면서 침(沈)하고 도리어 결흉이 생기지는 않았으며 그 환자의 증상이 광증과 비슷한 것은 열이 하초(下焦)에 있기 때문이다.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소변이 잘 나올 때는 하법으로 어혈(瘀血)을 제거해야 낫는다. 저당탕(抵當湯)으로 치료한다. 병사(病邪)가 태양경을 따라 들어가 속에서 열(熱)로 뭉쳤기 때문이다.

傷寒有熱, 少腹滿硬, 小便自利, 爲有血也, 抵當丸主之.

상한(傷寒)에 열이 있어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은 혈(血)이 있기 때문이니 저당환(抵當丸)으로 다스린다.

輕者, 犀角地黃湯·芍藥地黃加大黃黃芩湯. 孫用和用破棺丹. 無求子云, 陽毒入胃, 下血, 用消蘊湯.

가벼울 때는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작약지황가대황황금탕(芍藥地黃加大黃黃芩湯)을 쓴다. 손용화(孫用和)는 파관단(破棺丹)을 썼다. 무구자(無求子)가 "양독(陽毒)이 위(胃)로 들어가 하혈(下血)할 때는 소온탕(消蘊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韓祗和用地黃湯.

한지화(韓祗和)는 지황탕(地黃湯)을 사용하였다.

解肌 해기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發狂, 血自下者愈. 不愈者, 用桂枝湯.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고 열(熱)이 방광(膀胱)에 맺혀 광증(狂證)과 비슷할 때 혈(血)이 대변으로 나오면 낫는다. 낫지 않으면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補中散寒鬱 중기(中氣)를 보하고 울체된 한(寒)을 흠어줌

少陰, 下利膿血者, 桃花湯, 以固脫散寒補正.

소음병(少陰病)에 대변으로 피고름이 나올 때는 도화탕(桃花湯)으로 허약해진 것을 튼튼히 하고 한(寒)을 흠어주며 정기(正氣)를 보한다.

補虛消熱 허(虛)한 것을 보하고 열(熱)을 내림

許氏治協熱下膿血, 梅煎散.

허숙미(許叔微)는 열(熱)을 동반하며 대변으로 피고름이 나오는 것을 치료할 때 매전산(梅煎散)을 사용하였다.

難知云, 傷寒熱毒入胃, 下膿血, 阿膠散.

《차사난지》에서 "상한(傷寒)에 열독(熱毒)이 위(胃)로 들어가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올 때는 아교산(阿膠散)을 쓴다."라고 하였다.

小便出血, 總錄用竹茹湯.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총록(總錄)》에서는 죽여탕(竹茹湯)을 사용하였다.

鍼 침

少陰證, 下利, 便膿血者, 可刺.

소음병(少陰病)에 설사하고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올 때는 자침해야 한다.

陽明病, 下血而譫語者, 必熱入血室, 頭汗出者, 當刺期門.

양명병(陽明病)에 대변이 피가 섞여 나오면서 섬어(譫語)가 있는 것은 분명 열(熱)이 혈실(血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머리에서만 땀이 날 때는 기문(期門)에 자침해야 한다.

下血兼看雜病例.

잡병(雜病)으로 하혈(下血)이 생긴 경우를 아울러 참고하라.

1. 蓄血 ㉠ 蓄血 ※문맥 ㉡

2. 蓄血 ㉠ 蓄血 ※문맥 ㉡



吐血 토혈

當汗不汗, 熱毒蘊結而成吐血.

한법(汗法)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열독(熱毒)이 울결되어 피를 토하게 된다.

凉血 혈을 서늘하게 함

犀角地黄湯、升麻湯、黃芩湯.

서각지황탕(犀角地黄湯)、승마탕(升麻湯)、황금탕(黃芩湯)을 쓴다.

芍藥地黄湯、三黃丸、倍灰必用.

작약지황탕(芍藥地黄湯)、삼황환(三黃丸)、배회필용(倍灰必用)을 쓴다.

下 하법(下法)

三黃瀉心湯、抵當湯、大黃散.

삼황사심탕(三黃瀉心湯)、저당탕(抵當湯)、대황산(大黃散).

溫 온법(溫法)

略例上焦熱血¹用黃芪桂枝湯. 中焦血, 用當歸建中湯、增損胃風湯. 下焦血, 用芎歸朮附湯、桂附六合湯. 陰證三焦出血, 色紫不鮮, 此重沓寒濕化毒, 凝泣浸漬而成, 治要用黑錫丹, 見直指方.

《음증약례(陰證略例)》상초(上焦)의 혈(血)에는 황기계지탕(黃芪桂枝湯)을 쓰고, 중초(中焦)의 혈(血)에는 당귀건중탕(當歸建中湯)、증손위풍탕(增損胃風湯)을 쓰며, 하초(下焦)의 혈(血)에는 궁귀출부탕(芎歸朮附湯)、계부육합탕(桂附六合湯)을 쓴다. 음증(陰證)으로 삼초(三焦)에서 나는 피는 색이 어둡고 밝지 못하다. 거듭된 한습(寒濕)이 독(毒)으로 변하고 이것이 응체되고 스며들어서 그렇게 된다. 《치요》에서는 이때 흑석단(黑錫丹)을 사용하였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을 참고하라.

1. 上焦熱血 上焦熱血 ※《음증약례》

咳嗽 해수

有肺寒而欬, 有停飲而欬, 或邪在半表裏.

폐(肺)에 한사(寒邪)가 있어 기침하는 경우, 정체된 음(飲)이 있어 기침하는 경우, 혹은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 경우가 있다.

發汗 발한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欬, 小青龍主之.

표증(表證)이 풀리지 않고 명치에 수기(水氣)가 있어 헛구역질하며 열(熱)이 나면서 기침할 때는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 다스린다.

溫經 온경

少陰病,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欬者, 眞武湯加五味、細辛、乾薑主之.

소음병(少陰病)에 배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팔다리가 무겁고 육신육신 아프며 절로 설사하는 경우는 수기(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그 환자가 기침한다면 진무탕(眞武湯)에 오미자(五味子)、세신(細辛)、건강(乾薑)을 더하여 다스린다.

和解 화해

小柴胡湯證悉具而欬者, 本方去參、棗、生薑, 加乾薑、五味主之. 此陽邪傳表也.

소시호탕(小柴胡湯)의 증상이 모두 있으면서 기침할 때는 소시호탕에서 인삼(人蔘)、대추、생강(生薑)을 빼고 건강(乾薑)、오미자(五味子)를 더하여 치료한다. 이것은 양사(陽邪)가 겉으로 전경(傳經)된 것이다.

少陰病, 四逆, 其人或欬者, 四逆散加乾薑、五味主之. 此爲陰邪傳裏也.

소음병(少陰病)에 팔다리가 차가운데 환자가 기침한다면 사역산(四逆散)에 건강(乾薑)、오미자(五味子)를 더하여 치료한다. 이것은 음사(陰邪)가 속으로 전경(傳經)된 것이다.

清利 청리

見欬逆例中.

〈해역(咳逆)〉 내용을 참고하라.

導痰 담(痰)을 빼냄

其人素有痰證, 看熱濕風火, 宜兼治之.

환자에게 평소 담(痰)의 증상이 있다면 열(熱)、습(濕)、풍(風)、화(火)를 살펴 아울러 치료해야 한다.



喘 숨참

有邪氣在表不利¹, 有水氣射肺, 形寒飲冷傷肺, 故其氣逆上爲喘, 有腎氣乘心.

사기(邪氣)가 겉에 있어 기운이 순조롭지 못하여 천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수기(水氣)가 폐(肺)를 압박하여 천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몸이 추울 때 차가운 것을 마시면 폐를 상한 것으로, 그로 인해 기가 거슬러 오르게 되면 치받아 숨이 찬다. 또 신기(腎氣)가 심(心)을 억눌러 생긴 경우가 있다.

發汗 발한

邪氣外感壅遏, 使氣不利爲病. 雖汗而喘不已, 邪在表也. 雖經汗下, 亦可發之, 麻黃杏仁甘草石膏湯. 龐氏用麻黃甘草湯.

겉에서 감촉된 사기(邪氣)가 응체되어 기(氣)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면 숨이 차게 된다. 땀이 나더라도 숨이 찬 증상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기가 겉에 있는 것이다. 비록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사용했더라도 발한시킬 수 있으니 마황행인감초석고탕(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쓴다. 방안시(龐安時)는 마황감초탕(麻黃甘草湯)을 사용하였다.

解肌 해기

用桂枝湯加厚朴、杏仁, 汗出而喘者主之.

계지탕(桂枝湯)에 후박(厚朴)·행인(杏仁)을 더하여 쓰면 땀이 나면서 숨이 찬 것을 치료한다.

兩解 양해

心下有水氣, 乾嘔, 熱而欬或喘, 小青龍去麻黃加杏仁主之, 是散水寒也. 活人書加茯苓. 脈盛自汗大柴胡主之. 傷寒例用茯苓湯, 卽敗毒散去枳殼加陳皮倍柴胡, 此兼消痰飲也.

명치에 수기(水氣)가 있어 헛구역질하고 열이 나면서 기침하거나 숨이 찰 때는 소청룡탕(小青龍湯)에서 마황(麻黃)을 빼고 행인(杏仁)을 더하여 치료한다. 이 처방으로 수(水)와 한(寒)을 흠는다. 《활인서(活人書)》에서는 복령(茯苓)을 더한다고 하였다. 맥이 왕성하고 자한(自汗)을 흘릴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 《상한례》에서는 복령탕(茯苓湯)을 사용하였으니, 곧 패독산(敗毒散)에서 지각(枳殼)을 빼고 진피(陳皮)를 더한 뒤 시호(柴胡)를 배로 늘린 처방이다. 이 처방으로 아울러 담음(痰飲)을 삭인다.

溫 온법(溫法)

直指方曰, 陰證, 喘則必促, 脈伏而厥, 宜返陰丹. 證治曰宜理中、四逆輩. 陰厥喘促²用來甦丹.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음증(陰證)의 숨참(喘)은 반드시 숨이 가쁘고 맥이 복(伏)하며 손발이 찰 것이니 반음단(返陰丹)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증치》에서는 "이중탕(理中湯)·사역탕(四逆湯)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

고 하였다. 음독(陰毒)으로 숨이 차고 가쁠 때는 내소단(來蘇丹)을 쓴다.

潤肺養氣 폐(肺)를 적시고 기(氣)를 길러줌

陰促³ 脈浮而厥者, 或陰陽未和, 並用五味子湯.

매우 숨이 차면서 맥이 부(浮)하고 손발이 차거나, 음양(陰陽) 조화롭지 못할 때는 아울러 오미자탕(五味子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或腹滿而喘, 或潮熱, 並大柴胡湯, 或小承氣湯微解之.

배가 그득하면서 숨이 차거나 조열(潮熱)이 있을 때는 아울러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쓰거나 소승기탕(小承氣湯)으로 약하게 풀어준다.

兼結胸者, 看輕重用陷胸.

결흉(結胸)까지 있는 경우는 경중을 보아 대함흉환(大陷胸丸)·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分利 분리

水停心下, 腎氣乘心, 爲悸爲喘, 五苓散.

수(水)가 명치에 정체되고 신기(腎氣)가 심(心)을 억눌러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찰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清熱 청열

內蘊熱邪, 有汗喘者, 葛根黃芩黃連湯.

안에 열사(熱邪)가 쌓여 땀을 흘리고 숨이 찰 때는 갈근황금황련탕(葛根黃芩黃連湯)을 쓴다.

灸 뜸

寒邪陷下者, 灸肺俞, 欬多者主之.

한사(寒邪)가 안으로 침범하여 숨이 찰 때는 폐수(肺俞)에 뜸을 뜬다.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1. 有邪氣在表不利 有邪氣在表氣不利 ※《상한명리론》↩

2. 陰厥喘促 陰毒喘促 ※《고금의통대전》↩

3. 陰促 喘促 ※문맥 ↩

嘔吐 구토

大抵表邪傳裏, 裏氣上逆, 則爲嘔也.

표사(表邪)가 속으로 전경(傳經)되어 이기(裏氣)가 위로 치밀면 구토하게 된다.

有積¹爲熱, 有積²爲寒, 有停飲, 有胃脘有膿. 癰膿不必治. 吐家多是胃虛冷. 先嘔後渴, 此爲欲解. 先渴後嘔, 此爲水停心下. 龐氏云, 病傳陰, 必吐利.

열(熱) 때문인 경우, 한(寒) 때문인 경우, 정체된 음(飲)이 있는 경우, 위완(胃脘)에 고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구토하는 환자에게 옹저로 고름이 차 있으면 반드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잘 토하는 이는 주로 위(胃)가 허랭(虛冷)하다. 먼저 구토한 뒤에 갈증이 나는 것은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먼저 갈증이 있고 난 뒤에 구토하면 이것은 수(水)가 명치에 있기 때문이다. 방안시(龐安時)가 "병이 음분(陰分)으로 전경되면 반드시 토하고 설사한다."라고 하였다.

發汗 발한

太陽與陽明合病, 氣下而不下³, 但下利不嘔. 裏氣上逆不下者, 但嘔而不利, 與葛根加半夏湯. 傷寒例云, 兩經俱病, 邪氣壅盛於表, 正氣怫鬱於裏, 邪正分爭, 爭於下則爲利, 爭於上則爲嘔, 與半夏以下逆氣.

태양(太陽)과 양명(陽明)의 합병(合病)일 때, 기(氣)가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설사만 하고 구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기(裏氣)가 위로 거슬러 올라 내려가지 않으면 구토만 하고 설사하지 않는다. 이때는 갈근가반하탕(葛根加半夏湯)을 쓴다. 《상한례》에서 "두 경맥이 모두 병들어 사기(邪氣)는 겉에 왕성하고 정기(正氣)는 속에 억눌리게 되면 사기와 정기가 다투게 되는데, 아래쪽에서 다투면 설사하고 위쪽에서 다투면 구토한다. 구토할 때는 반하(半夏)로 거슬러 오른 기운을 내려준다."라고 하였다.

兩解 양해

嘔而發熱, 柴胡證具. 心下急, 鬱鬱微煩, 大柴胡主之.⁴

구토하며 열이 날 때 소시호탕(小柴胡湯)의 증상이 모두 있다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그리고 나서 명치가 켕기고 울렁거리며 약간 번(煩)이 있을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

溫經 온경

膈上有寒及寒飲, 或嘔不渴, 乾薑附子湯. 鬱鬱吐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

흉격(胸膈) 위에 한(寒)과 한음(寒飲)이 있어 만약 구토하지만 갈증이 없다면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을 쓴다. 울렁거리며 헛구역질 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

清熱 청열

有虛熱少氣, 氣逆欲吐, 竹葉石膏湯. 活人書治差後嘔, 竹葉湯加生薑. 嘔而思水者, 急與猪苓湯.

허열(虛熱)이 나고 기운이 없으며 구역질이 날 때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활인서(活人書)》에서 상한이 나은 뒤에 구토하는 것을 죽엽탕(竹葉湯)에 생강(生薑)을 더하여 치료하였다. 구토하면서 갈증이 날 때는 급히 저령탕(猪苓湯)을 쓴다.

分利 분리

中風發熱, 六七日不解而煩渴, 飲水則吐, 名曰水逆, 五苓散.

중풍(中風)으로 열(熱)이 나서 6~7일 동안 풀리지 않는데 갈증이 심하지만 물을 마시면 토하는 것을 수역(水逆)이라고 부른다. 오령산(五苓散)으로 치료한다.

和解 화해

半表裏證, 多嘔, 與小柴胡和之. 胸中有熱, 胃中有邪氣, 陰陽不交, 腹中痛欲嘔吐者, 黃連湯主之, 或黃芩加半夏生薑湯, 以升降陰陽.

반표반리(半表半裏)의 증상에는 구토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화해시킨다. 가슴속에 열이 있고 위(胃) 속에 사기(邪氣)가 있어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교류하지 못하면 배 속이 아프고 구토하려고 하니 황련탕(黃連湯)으로 치료하거나 황금가반하생薑탕(黃芩加半夏生薑湯)으로 음기와 양기를 오르내리도록 한다.

溫胃 위(胃)를 따뜻하게 함

嘔吐, 手足冷, 小橘皮湯、理中湯、生薑汁、半夏湯、半夏加橘皮湯、溫中丸. 薑汁爲要藥, 散其逆氣.

구토하고 손발이 차가울 때는 소굴피탕(小橘皮湯)、이중탕(理中湯)、생강즙(生薑汁)、반하탕(半夏湯)、반하가굴피탕(半夏加橘皮湯)、온중환(溫中丸)을 쓴다. 강즙(薑汁)은 가장 중요한 약으로 거스르는 기운을 흠는다.

下 하법(下法)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表解裏未和, 十棗湯. 曾氏家學治吐逆, 大小便不通, 厥逆無脈, 大承氣下之愈.

헛구역질하고 단기(短氣)가 있으며 땀을 흘리지 않고 오한(惡寒)이 없는 것은 겉은 풀렸으나 속은 안정되지 않은 경우이니 십조탕(十棗湯)을 쓴다. 《증씨가학》에서 구역질하고 대소변이 통하지 않으며 손발이 차갑고 맥이 없는 것을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공하시켜 낮게 하였다.

灸 뜸

口中和, 脈微澁弱, 皆灸厥陰. 脈經及千金翼林氏本曰, 一云灸厥陰五十壯.

입맛이 있고 맥이 미(微)·삽(澁)·약(弱)할 때는 모두 결음(厥陰)에 뜸을 뜬다. 《맥경(脈經)》과 《천금익방(千金翼方)》 임씨본(林氏本)에서는 "어떤 곳에는 결음(厥陰)에 50장 뜸을 뜨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收臟氣之眞 장부의 진기(眞氣)를 수렴시킴

治例云, 若熱嘔, 不可無烏梅.

《치례》에서 "열이 나면서 구토할 때는 오매(烏梅)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1. 有積 有責 ※《상한명리론》↩

2. 有積 有責 ※《상한명리론》↩

3. 不下 不上 ※문맥 ↩

4. 《상한론》을 근거로 "太陽病, 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則愈"로 보고 번역하였다. ↩



悸 계

氣虛, 停飲. 陽氣內弱, 心下空虛, 正氣內動而爲悸也. 胃不和則煩而悸.

기허(氣虛)로 인한 경우와 정체된 음(飲)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기허로 인한 경우는 양기가 안에서 약하고 명치가 공허한 까닭에 정기(正氣)가 안에서 요동쳐 계(悸)가 된 것이다. 또 위(胃)가 조화롭지 못하여 번(煩)과 계(悸)가 되는 경우도 있다.

悸證有八九皆屬三陽.

계(悸)와 관련된 병증에는 8~9가지가 있는데 모두 삼양(三陽)에 속한다.

補中 중기(中氣)를 보함

虛則心下悸. 脈結代, 心動悸, 炙甘草湯. 傷寒三二日, 心下悸, 小建中湯. 發汗過多, 其人胸中陽氣不足, 手冒, 心下悸, 欲得按者, 與桂枝甘草湯.

허(虛)하면 명치가 두근거린다〔悸〕. 맥이 결(結)·대(代)하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자감초탕(炙甘草湯)을 쓴다. 상한(傷寒)이 든 지 2~3일째에 명치가 두근거릴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한법(汗法)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환자의 가슴속에 양기(陽氣)가 부족하여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가슴의 두근거림을 안정시키려 할 때는 계지감초탕(桂枝甘草湯)을 쓴다.

溫 온법(溫法)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 眞武湯. 少陰病, 四逆, 其人或悸者, 四逆散加桂主之. 或汗後臍下悸, 欲作奔豚, 茯苓桂甘大棗湯主之.

땀이 난 뒤에 병이 풀리지 않고 환자에게 계속 열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몸이 푸들거리고 몸이 흔들려 넘어질 것만 같을 때는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소음병(少陰病)에 팔다리가 차가운데 환자가 어떤 경우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사역산(四逆散)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치료한다. 한법(汗法)을 쓴 뒤에 배꼽 아래가 두근거리는 것은 분돈(奔豚)이 되려는 것이니 복령계지감초대조탕(茯苓桂枝甘草大棗湯)으로 치료한다.

鎮固原氣 원기(原氣)를 진정시키고 튼튼히 함

脈浮, 因火迫劫之, 驚卧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 以固陽收脫, 鎮定其浮氣也.

맥이 부(浮)한데 화법(火法)으로 사기(邪氣)를 몰아낸 까닭에 미쳐 날뛰고 항상 불안해할 때는 계지거작약가축칠모려옹골구역탕(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으로 양(陽)을 든든히 하고 허탈된 것을 수렴시켜 들뜬 기운을 진정시킨다.

和 화법(和法)

飲水多, 必心下悸, 雖有他邪, 亦先治悸, 恐水溢爲喘爲腫爲噦爲利也, 茯苓甘草湯.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리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사기(邪氣)가 없더라도 먼저 계(悸)를 치료해야 한다. 물이 넘쳐 숨이 차거나 부종이 되거나 딸꾹질하거나 설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으로 치료한다.

往來多熱¹, 心下悸, 小便不利, 心煩喜嘔, 小柴胡主之.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며 잘 토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1. 往來多熱 ⇨ 往來寒熱 ※《상한론》 ⇐

驚惕 경척

或因汗下, 或因溫針, 或因火劫.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써서 생긴 경우, 온침법(溫鍼法)을 써서 생긴 경우, 화법(火法)을 써서 생긴 경우가 있다.

鎮定浮氣 들뜬 기운을 안정시킴

見前悸下.

앞의 〈계(悸)〉 내용을 참고하라.

和解 화해

傷寒八九日, 因下之, 胸滿煩驚, 小便不利, 譫語, 一身盡重, 不可轉側. 滿而煩者, 陽熱客於胸中也. 驚者, 心惡熱, 而神不守也. 便不利¹, 津液不行, 裏虛丸². 譫語者, 胃熱也. 一身盡重, 不能轉側者, 陽氣內行於裏, 不營於表也, 與柴胡加龍骨牡蠣湯, 以解錯雜之邪.

상한(傷寒)이 든 지 8~9일에 하법(下法)을 사용하고 나서 가슴이 그득하고 갑갑하며 극도로 두려워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헛소리를 하고 온몸이 다 무거워 몸을 뒤척이지도 못할 때가 있다.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은 양열(陽熱)이 가슴속에 침입한 것이다. 극도로 두려워하는 증상은 심(心)이 열(熱)을 싫어하여 신(神)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진액(津液)이 흐르지 못하고 속이 허한 것이다. 섬어(譫語)를 하는 것은 위(胃)의 열(熱) 때문이다. 온몸이 모두 무거워 몸을 뒤척이지 못하는 것은 양기(陽氣)가 속으로 들어가 겉을 든든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시호가용골모려탕(柴胡加龍骨牡蠣湯)으로 뒤엉킨 병사(病邪)를 풀어준다.

凉心 양심

朱砂安神丸 [東垣方] .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동원방》] .

1. 便不利 ㉞ 小便不利 ※《주해상한론》↩

2. 裏虛丸 ㉞ 裏虛也 ※문맥↩

渴 갈증

邪氣初傳入裏, 熱氣散漫未收斂, 成熱熏蒸焦膈, 搏耗津液, 遂成渴也.

사기(邪氣)가 처음 전경되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열기(熱氣)가 사방으로 퍼져 수렴되지 못하다가, 열을 형성하면 흉격(胸膈)을 훈증시켜 진액을 말리므로 결국 갈증이 생긴다.

六經渴, 有陰證, 有陽證.

육경(六經)의 갈증은 음증(陰證)과 양증(陽證)이 있다.

解肌生津 기육(肌肉)을 풀고 진액을 생성함

在太陽脈浮, 必用桂枝. 脈浮, 熱, 渴欲飲水, 小便不利, 豬苓湯.

태양병(太陽病)에 맥이 부(浮)할 때는 반드시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맥이 부(浮)하고 열이 나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 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저령탕(豬苓湯)으로 치료한다.

清熱生津 열을 식히고 진액을 생성함

潤燥白虎加人參, 吐汗下之後渴者用之.

마른 것을 적셔주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은 토법(吐法)·한법(汗法)·하법(下法)을 쓴 뒤 갈증이 날 때 사용한다.

陽明, 脈長, 有汗發熱而渴, 白虎之類.

양명병(陽明病)에 맥이 장(長)하고 땀을 흘리며 열(熱)이 나면서 갈증이 있을 때는 백호탕(白虎湯) 등을 사용한다.

夏至左右, 煩渴, 發熱, 不惡寒, 虛煩, 竹葉石膏湯.

하지(夏至) 전후로 갈증이 심하고 열이 나지만 오한은 없는 것은 허번(虛煩)이니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和解 화해

太陽, 脈弦而嘔, 邪在半表裏, 小柴胡加瓜薑根之類. 證治云, 厥陰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茯苓白朮甘草桂四物湯.

태양병(太陽病)에 맥이 현(弦)하면서 구토하는 것은 병사(病邪)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 것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과루근(瓜薑根)을 더한 처방 같은 것으로 치료한다. 《증치》에서 "궤음병(厥陰病)에 소갈(消渴)이 있고 기운이 치밀어 가슴을 찌르며 가슴 속이 아프고 뜨거울 때는 복령백출감초계사물탕(茯苓白朮甘草桂四物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汗下後, 胸脇滿微結, 小便不利, 渴而不嘔, 但頭汗出, 往來寒熱, 心煩者, 柴胡桂枝乾薑湯.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조금 마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갈증이 있지만 구토하지 않으며 머리에서만 땀을 흘리고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며 가슴이 답답할 때는 시호계지건강탕(柴胡桂枝乾

薑湯)을 쓴다.

溫中 온중

少陰, 自利而渴, 小便清白, 下焦虛寒也, 甘草乾薑湯. 心煩但欲寐, 或自利而渴, 屬少陰, 理中湯. 活人書云, 自利而渴, 屬少陰, 白通湯加猪膽汁, 通脈四逆、眞武湯選用之.

소음병(少陰病)에 설사하고 갈증이 나며 소변이 맑은 것은 하초(下焦)가 허한(虛寒)한 것이다. 감초건강탕(甘草乾薑湯)을 쓴다. 가슴이 답답하여 잠만 자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 설사하면서 갈증이 나는 것은 소음(少陰)에 속하는 경우로 이중탕(理中湯)을 쓴다. 《활인서(活人書)》에서 "설사하면서 갈증이 나는 것은 소음(少陰)에 속한다. 백통탕가저담즙탕(白通湯加猪膽汁湯)、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진무탕(眞武湯)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分利 분리

小便不利而渴, 必發黃, 茵陳五苓散.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갈증이 나면 반드시 황달이 생길 것이니 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을 쓴다.

汗後脈浮, 煩渴者, 五苓主之.

한법(汗法)을 쓴 뒤에 맥이 부(浮)하고 갈증이 심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으로 치료한다.

與水 물을 줌

厥陰, 脈微, 引飲, 宜少少與之, 但渴與水, 常令不足, 勿極意也.

궤음병(厥陰病)에 맥이 미(微)한데 마시려고 할 때는 조금씩 주어야 한다. 항상 부족하게 주어야 하고 갈증을 충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淸瀝 식히고 진정시킴

天水或加辰砂.

천수(天水)를 쓰거나 진사(辰砂)를 더하여 쓴다.

解肌表 기표(肌表)를 풀어줌

表邪不解, 或有或爲¹之證, 小青龍去半夏加瓜蒌根主之.

표사(表邪)가 풀리지 않고 명치에 수기(水氣)가 있어 갈증이 날 때는 소청룡탕(小青龍湯)에서 반하(半夏)를 빼고 과루근(瓜蒌根)을 더하여 치료한다. ; 고금의통대전: 太陽表不解, 心下水氣渴者, 小青龍湯去半夏加栝蒌湯.

下 하법(下法)

陽明, 脈長而實, 有汗而渴者, 調胃承氣主之. 脈沈滑, 熱實, 煩燥而渴, 大陷胸.

양명병(陽明病)에 맥이 장(長)하면서 실(實)하고 땀을 흘리면서 갈증이 있을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다. 맥이 침(沈)·활(滑)하고 열(熱)이 실(實)하며 번조(煩躁)가 나면서 갈증이 있을 때는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치료한다.

陽毒燥盛大渴, 黑奴丸. 厥陰證, 此事難知云煩懣囊縮, 大小便不通, 發熱引飲, 尺寸俱微緩. 直指方云, 厥陰屬肝, 心之母也, 裏熱已極, 子氣乘母, 挾心火以爲煩, 煩則消渴矣.

양독(陽毒)으로 매우 건조하고 갈증이 심할 때는 흑노환(黑奴丸)을 쓴다. 궤음병(厥陰病)에 대해, 《차사난지》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고환이 오그라들고 대소변이 통하지 않으며 열이 나고 물을 마시려 하며 척(尺)·촌(寸)의 맥이 모두 미(微)·완(緩)하다."라고 하였고,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는 "궤음(厥陰)은 간(肝)에 속하여 심(心)의 어미에 해당한다. 속의 열이 이미 극심하면 자식의 기운이 어미에게 미치듯이 심(心)이 화(火)를 끼게 되어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소갈(消渴)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1. 或有或爲 心下水氣 ※《고금의통대전》

振 振

近乎戰也. 傷寒振者, 皆積其虛寒也¹. 下後復發汗, 必振寒者, 表裏俱虛也. 亡血家發汗, 則寒慄而振者, 血氣俱虛也. 其振振欲擗地, 有身爲振振搖者, 皆爲發汗過多, 亡陽經虛, 不能自主持, 故身爲振搖也.

진(振)은 전(戰)과 비슷하다. 상한(傷寒)의 진(振)은 모두 허한(虛寒) 때문이다. 하법(下法)을 쓴 뒤에 다시 한법(汗法)을 사용하면 반드시 추위에 떨게 되니 표(表)와 리(裏)가 모두 허하기 때문이다. 망혈(亡血)이 되었을 때 한법(汗法)을 사용하면 추위로 오들오들 떨게 되니 혈(血)과 기(氣)가 모두 허하기 때문이다. "덜덜 떨면서 땅에 넘어지려고 하는 것"과 "몸이 덜덜 떨리고 흔들리는 것"은 모두 한법(汗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망양(亡陽)이 되고 경맥(經脈)이 허하여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몸이 떨리고 흔들리는 것이다.

溫經 온경

太陽病, 發汗後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 眞武湯主之.

태양병(太陽病)에 한법(汗法)을 쓴 뒤에 병사(病邪)가 풀리지 않고 그 후 환자에게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푸들거리며 몸이 흔들려 넘어질 것만 같을 때는 진무탕(眞武湯)으로 치료한다.

和經益陽 경맥을 조화시키고 양(陽)을 더함

吐下後, 裏虛, 氣上逆, 陽不足, 起則頭眩,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爲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 或小建中湯主之.

토법(吐法)과 하법(下法)을 쓴 뒤에 속이 허하여 기운이 치솟고 양(陽)은 부족하여 일어서면 머리가 어지러우며 맥이 침(沈)·긴(緊)할 때 한법(汗法)을 사용하면 경맥을 요동시켜 몸이 떨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복령계지백출감초탕(茯苓桂枝白朮甘草湯)이나 소건중탕(小建中湯)으로 치료한다.

¹. 皆積其虛寒也 ㉞ 皆責其虛寒也 ※《상한명리론》↩

戰慄 전을

爲病欲解也. 戰爲上與邪爭¹, 爭則爲鼓慄而戰. 振但虛而不至爭, 故止從行動而振也². 慄爲心戰. 戰外爲慄內, 皆陰陽之爭也. 戰者, 正氣勝, 慄者, 邪氣勝也.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전(戰)은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다투는 것이니, 다투면 벌벌 떨게 된다. 진(振)은 정기가 허하기만 하고 사기와 다투지는 않으므로 단지 바르르 떨리기만 한다. 율(慄)은 가슴이 떨리는 것이다. 전(戰)은 밖에 해당하고 율(慄)은 안에 해당하니 모두 음양(陰陽)의 다툼이다. 전(戰)은 정기(正氣)가 이긴 것이고, 율(慄)은 사기(邪氣)가 이긴 것이다.

助陽 양(陽)을 도움

具前.

앞에서 설명하였다.

溫經散寒 경맥을 따뜻하게 하고 한(寒)을 흠어줌

具前. 桂苓白朮甘草.

앞에서 설명하였다. 계령백출감초(桂苓白朮甘草)을 쓴다.

救逆 구역

韓氏治汗下後戰, 與救逆湯, 微減與羊肉湯, 再投而戰解.

한씨(韓氏)는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쓰고나서 몸이 떨리는 증상을 치료하였는데, 먼저 구역탕(救逆湯)을 쓰고 나서 증상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양육탕(羊肉湯)을 썼으며 다시 투약한 뒤에 떨리는 증상이 해소되었다.

灸 뜸

陰氣內盛, 正氣太虛, 心慄而鼓顫, 身不戰者, 已而遂成寒逆者, 宜灸之.

음기(陰氣)가 안에서 왕성하고 정기(正氣)가 매우 허약하면 심(心)에 울(慄)이 생겨 턱을 부딪칠 뿐 몸에 전(戰)이 생기지 않으니 이미 한역(寒逆)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뜸을 떼야 한다.

1. 戰爲上與邪爭 ㉞ 戰爲正與邪爭 ※《상한명리론》↩

2. 故止從行動而振也 ㉞ 故止聳動而振也 ※《상한명리론》↩

搖頭 요두

陽脈不治, 則頭爲之搖, 有裏痛所致.

양맥(陽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머리를 흔들게 된다. 속이 아프기 때문이다.

卒口噤, 背反張, 獨搖頭者, 瘕病, 風主動使然也. 直視搖頭者, 爲心絕.

갑자기 입을 악다물고 각궁반장이 생기며 유독 머리를 흔드는 것은 경병(瘕病)이다. 풍(風)이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눈을 곧추뜨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기(心氣)가 끊어진 증상이다.

缺治例 치료법 빠짐

四逆 사역

四肢臂逆而不溫者是也. 積涼成寒, 積溫成熱, 非一朝一夕之故. 六腑氣絕於外者, 四肢手足寒冷. 足脛寒逆, 少陰也. 四肢厥冷, 身寒者, 厥陰也.

팔다리가 거스르면서 따뜻하지 않은 것이다. 서늘한 기운이 쌓여 한(寒)이 되고 따뜻한 기운이 쌓여 열(熱)이 되는 것은 하루 밤낮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육부(六腑)의 기운이 밖에서 끊어지면 팔다리와 손발이 차가워진다. 발과 정강이가 시린 것은 사기(邪氣)가 소음(少陰)에 전경된 것이다. 팔다리가 차갑고 몸까지 차가운 것은 사기가 궤음(厥陰)에 전경된 것이다.

溫 온법(溫法)

若始得之, 手足便厥而不溫者, 是陰經受邪, 陽氣不足, 可用四逆湯輩溫之.

만약 처음부터 손발에 궤(厥)이 있어 따뜻하지 않은 것은 음경(陰經)이 사기를 받아 양기(陽氣)가 부족한 것이니 사역탕(四逆湯)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다.

散熱收陰 열을 흘리고 음(陰)을 수렴시킴

若手足自熱而至溫, 從四逆而至厥者, 傷經之邪也¹, 與四逆散. 甘草、枳殼、柴胡、芍藥以散傷陰之熱, 而收陰氣, 此非虛寒之證也.

만약 손과 발에서 열이 나다가 따뜻해졌거나 사역(四逆)의 증상이 꺾(厥)로 변하는 것은 전경된 사기(邪氣) 때문이니 사역산(四逆散)으로 치료한다. 사역탕을 구성하는 감초(甘草)·지각(枳殼)·시호(柴胡)·작약(芍藥)으로 음기(陰氣)를 손상시킨 열(熱)을 흠어준 다음 음기를 수렴시킨다. 이것은 허한(虛寒)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니다.

熱之 뜨겁게 함

活人書有玉女散・霹靂散. 許學士用黑錫丹. 近世用三建湯.

《활인서(活人書)》에 옥녀산(玉女散)·벽력산(霹靂散)이 있다. 허숙미(許叔微)는 흑석단(黑錫丹)을 사용하였다. 근래에는 삼건탕(三建湯)을 사용한다.

陰病²,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者, 身反不惡寒,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此陰盛於內, 不相通也, 與通脈四逆湯.

소음병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清穀)을 설사하고 속(裏)은 차지만 밖(外)은 뜨거우며 손발에 꺾역(厥逆)이 있고, 맥이 약하여 끊어질 것 같으나 몸에 도리어 오한이 들지 않으며, 환자가 낮빛이 붉거나 배가 아프거나 헛구역질하거나 목구멍이 아프거나 설사가 멈추어도 맥이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것은 음기(陰氣)가 안에서 치성하여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으로 치료한다.

以成氏謂厥證甚於四逆, 詳仲景治例, 則四肢通冷, 其病爲重.

성무기(成無己)가 궤증(厥證)은 사역(四逆)이 심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장중경(張中景)의 치험례를 보면 사역은 팔다리 전체가 차가운 것으로 그 병이 더욱 위중한 것이다.

췌³ 뜸

췌⁴ 파 찜질

1. 傷經之邪也 傳經之邪也 ※《상한명리론》↩

2. 陰病 少陰病 ※《상한론》↩

3. 췌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4. 췌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厥 궡

有陰陽不相順接便爲厥. 厥者, 手足逆冷是也. 陽氣內陷, 熱氣逆伏, 而手足冷也.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서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 궤이 된다. 궤는 손발이 말단부터 차가운 것이다. 양기가 안으로 침범하여 열기가 잘못 잠복하여 손발이 차가워진다.

先熱而後厥者, 熱伏於內也. 先厥而後熱者, 陰退而陽氣得復也. 始得便厥者, 是陽氣不足, 而陰氣勝也. 大抵厥逆爲陰所主, 寒者多差¹.

먼저 열(熱)이 난 후에 궤(厥)이 생긴 것은 열(熱)이 안에 잠복한 경우이다. 먼저 궤(厥)이 생긴 후에 열(熱)이 나는 것은 음기(陰氣)가 물러나고 양기(陽氣)가 회복된 경우이다. 만약 처음부터 궤(厥)만 있는 것은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왕성한 것이다. 궤역(厥逆)은 음(陰)이 주관하는 것으로 한(寒)이 많다.

發熱七八日, 身冷, 此名臟厥, 難治.

열(熱)이 난지 7~8일째에 몸이 차가운 것을 장궤(臟厥)이라고 부르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有冷厥、熱厥. 證治引孫兆云, 若證未辨陰陽, 且與四順丸試之. 直指方云, 未辨疑似, 且以理中丸試之, 陽厥則有熱, 陰厥則無熱.

냉궤(冷厥)과 열궤(熱厥)이 있다. 《증치》에서 손조(孫兆)의 말을 인용하여 "만약 음증(陰證)과 양증(陽證)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우선 사순환(四順丸)을 주어 시험한다."라고 하였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분명히 감별되지 않을 때는 우선 이중환(理中丸)으로 시험하니, 양궤(陽厥)이면 열이 나고 음궤(陰厥)이면 열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溫 온법(溫法)

冷厥, 才病便厥. 高保衡云, 寒厥, 外多靜而了了, 脈雖伏, 按之遲弱², 陰氣勝, 陽不得復, 厥多熱少, 當溫之, 理中湯. 龐氏曰, 寒熱而厥, 面色必澤³, 昏昧者, 當用綿衣包手足溫煖, 必大汗而解也. 少陰病, 吐利, 手足厥冷, 煩躁欲絕者, 吳茱萸湯. 厥日多, 熱日少, 爲陽氣退, 病進也. 謂其脈浮遲, 或微, 或細, 或沈, 皆屬裏有寒也.

냉궤(冷厥)은 병들자마자 바로 궤(厥)이 생긴 것이다. 고보형(高保衡)은 "한궤(寒厥)은 맥이 복(伏)하고 누르면 느리고 약하다. 음기(陰氣)가 왕성한데 양기(陽氣)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궤(厥)이 많고 열(熱)이 적으니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중탕(理中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방안시(龐安時)는 "오한과 발열이 있으면서 궤(厥)이 있고 낮빛이 윤택하지 못하며 정신이 혼미할 때는 천으로 손발을 싸서 따뜻하게 해주면 반드시 많은 땀을 흘리고 나서 낫는다."라고 하였다. 소음병(少陰病)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번조(煩躁)가 심해 죽을 것 같을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쓴다. 궤(厥)이 있는

날 수가 많고 열(熱)이 나는 날 수가 적은 것은 양기(陽氣)가 물러나서 병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 맥이 부(浮)·지(遲)하거나 미(微)하거나 세(細)하거나 침(沈)한 것은 모두 속에 한(寒)이 있는 것이다.

正陽回陰 양(陽)을 바루고 음(陰)을 되돌림

無熱證而厥, 當歸四逆加茱萸生薑湯、白通湯、白通加猪膽汁湯選用之.

열증(熱證)이 없이 결(厥)만 있을 때는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백통탕(白通湯)·백통가저담즙탕(白通加猪膽汁湯)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虛者, 宜附子湯.

허증(虛證)에는 부자탕(附子湯)을 쓴다.

補原氣 원기(原氣)를 보함

證治曰, 有熱者, 黃芪人參建中湯. 熱厥, 必四五日才發, 半日之間熱復來也. 發熱日多, 厥日少, 病自愈. 外證多, 昏憤, 脈雖伏, 按之數而有力, 兼下兩解下例法中約之.

《증치》에서 말하였다. "열(熱)이 있을 때는 황기인삼건중탕(黃芪人參建中湯)을 쓴다. 열결(熱厥)은 반드시 병든 지 4~5일 되어서 나타나며 12시간 사이에 열이 다시 나타난다. 열(熱)이 나는 날 수가 많고 결(厥)이 있는 날 수가 적으면

병이 절로 낫는다. 결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많고 정신이 맑지 못하며 맥이 비록 복(伏)하지만 깊이 누르면 삭(數)하면서 힘이 있다. 치법은 <하법(下)>과 <양해(兩解)> 내용 속에 정리해 두었다.

下 하법(下法)

其脈沈伏而滑, 頭面有汗, 指爪溫, 皆陽實伏熱在內也. 小便赤, 大便秘, 脈沈滑, 四肢逆冷, 熱深⁴也, 皆宜急下之, 大小承氣湯.

맥이 침(沈)·복(伏)하면서 활(滑)하고 머리와 얼굴에서 땀을 흘리며 손과 손톱이 따뜻한 것은 모두 양(陽)이 실(實)하여 잠복한 열(熱)이 안에 있는 것이다. 소변 색이 붉고 대변이 나오지 않으며 맥이 침(沈)·활(滑)하고 손발이 차가운 것은 열(熱)이 깊고 결(厥)도 깊은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급히 공하시켜야 하므로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片玉云, 熱深厥深, 調胃承氣湯.

《편옥》에서 "열(熱)이 깊고 결(厥)도 깊을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吐 토법(吐法)

諸陽受氣於胸中, 邪氣留客, 則陽氣不得敷布, 而手足爲之厥, 脈乍緊, 心中滿而煩, 飢不能食, 病在胸中, 當吐之.

모든 양(陽)은 가슴속에서 기(氣)를 받는다. 사기(邪氣)가 침입하여 양기(陽氣)가 퍼지지 못한 까닭에 손발에 결증(厥證)이 생기고 맥이 잠깐씩 긴(緊)하며 가슴 속이 그득하면서 답답하고 배가 고프지만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병이 가슴속에 있으므로 토법(吐法)을 써야 한다.

解表 해표

寒熱而厥, 面色不澤, 胃昧, 兩手忽無脈, 或一手無脈, 必是有汗也, 與麻黃桂枝各半湯. 厥而心下悸, 先治其水, 茯苓甘草湯.

오한과 발열이 있으면서 결(厥)이 나타나고 낮빛이 윤택하지 못하며 정신이 맑지 못하고 양손에서 갑자기 맥이 잡히지 않거나 한 손에서 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분명 땀을 흘릴 것이니 마황계지각반탕(麻黃桂枝各半湯)을 쓴다. 결(厥)이 있으면서 명치가 두근거릴 때는 먼저 수(水)를 다스려야 하므로 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을 쓴다.

兩解 양해

初得之身熱頭痛, 已後大便秘, 小便赤, 或渴, 有譫語而厥, 大柴胡湯.

처음 병이 들어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가 그런 뒤에 대변이 나오지 않고 소변 색이 붉으며 갈증이 나기도 하고 섬어(譫語)가 있으면서 결(厥)이 나타날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清熱瀆形 열을 식히고 땀을 냄

厥而渴者, 白虎湯.

결(厥)이 있으면서 갈증이 날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刺 자침(刺鍼)

具不仁例中.

〈불인(不仁)〉 내용 중에 있다.

灸 뜸

龐氏曰, 脈促而厥者, 灸之.

방안시(龐安時)가 "맥이 축(促)하면서 결(厥)이 있을 때는 뜸을 뜬다."라고 하였다.

1. 寒者多差 ㉞ 寒者多矣 ※《상한명리론》↩

2. 外多靜而了了, 脈雖伏, 按之遲弱 ㉞ 脈伏按接遲弱 ※《고금의통대전》↩

3. 面色必澤 ㉞ 面色不澤 ※《상한총병론》↩

4. 熱深 ㉞ 熱深厥亦深 ※《고금의통대전》↩



鄭聲 정성

汗後人及久病人, 聲轉者是也, 爲重語也. 鄭爲聲轉也. 若聲重而轉本音者, 亦是也.

止爲正氣虛而不全, 故使轉聲而不正也. 如大小便利, 手足冷, 脈細微弱者是.

한법(汗法)을 쓴 환자나 병을 오래 앓은 환자가 목소리가 변하는 것으로 목소리가 잠기는 것이다. 정(鄭)은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다. 목소리가 잠겼다가 본래 소리로 돌아가는 것도 정성(鄭聲)이다. 단지 정기(正氣)가 허하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여 바르지 못한 것이다. 대소변이 잘 나오고 손발이 차가우며 맥이 미(細)、세(微)、약(弱)하다.

補 보법(補法)

助陽扶正也.

양기(陽氣)를 돕고 정기(正氣)를 북돋는다.

和解 화해

見譴語例下.

〈섬어(譴語)〉 내용을 참고하라.



讖語 섬어(讖語)

脈短者死. 沈細不過一二日死. 實則讖語, 氣收斂在內而實者, 本病也. 或氣上逆而喘, 或下利, 皆爲逆也, 不治.

맥이 단(短)하면 죽는다. 침(沈)·세(細)하면 1~2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실(實)하면 섬어(讖語)가 생기므로 기(氣)가 안에서 수렴되어 실(實)한 것이 순증(順證)이다. 기(氣)가 위로 거슬러 올라 숨이 차거나, 기(氣)가 아래로 내려가 설사하는 것은 모두 역증(逆證)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又作讖, 謂妄有所見而言也. 直氣昏¹, 神識不清所致. 有被火劫, 有汗出, 有下利, 有下血, 有燥屎在胃, 有三陽合病, 有過經, 有亡陽讖語.

또 '섬(讖)'이라고도 쓰는데 헛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진기(眞氣)가 어지럽고 신지(神識)가 분명하지 못해 생긴다.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제거하다 섬어가 생긴 경우, 땀이 나며 섬어가 있는 경우, 하리(下利)를 하며 섬어가 있는 경우, 하혈(下血)을 하며 섬어(讖語)가 있는 경우, 조시(燥屎)가 위(胃)에 있어 섬어를 하는 경우, 삼양합병(三陽合病)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 과경(過經)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 망양(亡陽)으로 섬어가 생긴 경우가 있다.

下 하법(下法)

下之, 緩, 微熱, 病久眞氣昏², 神氣不清所致. 脈虛而長, 微弦滑者, 宜大承氣或柴胡飲子. 或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 面垢, 讞語, 遺尿, 是三陽合病也. 汗出讞語, 此爲風也, 須下之, 過經方可, 早則言必亂. 如下利讞語者, 下之, 急有燥屎也³, 小承氣主之. 有潮熱, 反不能食者, 胃中必有燥屎五六枚也. 大熱入胃, 水竭躁煩, 必發讞語. 又腹滿微喘, 口乾咽燥, 或不大便, 久則讞語, 是因火劫所致也, 宜調胃承氣.

하법(下法)을 쓴 뒤에 맥이 완(緩)하고 미열(微熱)이 나며 섬어(讞語)를 하는 것은 병인의 진기(眞氣)가 어지럽고 신지(神識)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맥이 허(虛)하면서 장(長)하고 미(微)、현(弦)、활(滑)할 때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시호음자(柴胡飲子)를 써야 한다. 또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워 몸을 뒤척이기 어렵고 입맛이 없고 얼굴에 때가 낀 듯하며 섬어와 유뇨(遺尿)가 있는 것은 삼양합병(三陽合病)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이다. 땀을 흘리면서 섬어(讞語)가 있는 것은 풍(風) 때문이다. 공하시키는 것은 반드시 태양경에서 양명경으로 넘어와야만 공하시킬 수 있다. 그 전에 하법을 쓰면 분명 난폭하게 말하게 된다. 하리(下利)를 하며 섬어(讞語)가 있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는 것이니 급히 하법(下法)을 써야 하므로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섬어(讞語)를 할 때 조열(潮熱)이 있고 도리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분명 위(胃) 속에 조시 5~6개가 있기 때문이다. 심한 열이 위(胃) 속으로 들어가서 수(水)가 고갈되어 조변(躁煩)이 있으면 반드시 섬어(讞語)가 생긴다. 또 복만(腹滿)과 가벼운 천(喘)이 있고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험며 대변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증상이 오래되면 섬어(讞語)가 생긴다. 이 2가지는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제거하다 섬어가 생긴 경우이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써야 한다.

刺 자침(刺鍼)

下血讖語者, 此爲熱入血室, 當刺期門, 隨其虛實而瀉之. 脇下滿⁴, 如結胸狀, 而讖語者, 是及經水適來, 皆熱入血室也.

하혈(下血)을 하며 섬어(讖語)가 있는 것은 열입혈실(熱入血室) 때문이니 기문(期門)에 자침하고 허실에 따라 사법을 써야 한다. 결흉(結胸)과 같이 가슴과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며 헛소리(讖語)를 할 때 마침 월경이 시작되었다면 모두 열이 혈실(血室)로 침입한 것이다.

解錯雜之邪 뒤엉킨 병사(病邪)를 풀어줌

傷寒八九日, 下之, 胸滿煩驚, 小便不利, 讖語, 一身盡重, 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兼欽鎮神氣.

상한이 든 지 8~9일째에 하법을 사용하고 나서 가슴이 그득하고 갑갑하며 극도로 두려워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헛소리(讖語)를 하고 온몸이 다 무거워 몸을 뒤척이지도 못할 때는 시호가용골모려탕(柴胡加龍骨牡蠣湯)으로 치료한다.

和解 화해

發汗多, 亡陽, 反身和讖語者, 不可下, 與柴胡桂枝湯, 和其榮衛.

많이 흘린 땀으로 망양(亡陽)이 되어 섬어(讞語)가 생겼을 때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주어 영위를 조화롭게 한다.

溫 온법(溫法)

亦有陽虛陰盛而讞妄, 脈沈細弱者, 當溫經助陽.

양기(陽氣)가 허하고 음기(陰氣)가 왕성한 상태에서 섬어(讞語)가 있고 맥이 침(沈)·세(細)·약(弱)할 때는 경맥을 따듯이 하고 양기를 도와야 한다.

逐瘀血 어혈(瘀血)을 몰아냄

晝夜讞語, 喜忘, 小便不利⁵, 小腹滿, 爲瘀血, 抵當湯.

밤낮으로 섬어(讞語)를 하고 기억을 잘 잊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그득한 것은 어혈(瘀血) 때문이니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清熱 청열

讞語, 不惡寒, 反惡熱, 白虎湯. 煩不得眠, 白虎加梔子湯.

섬어(讞語)를 하는데 오한(惡寒)은 없고 도리어 오열(惡熱)이 있을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백호가치자탕(白虎加梔子湯)을 쓴다.

1. 直氣昏 眞氣昏亂 ※《상한명리론》↩

2. 病久眞氣昏 病人眞氣昏亂 ※문맥 ↩

3. 下之, 急有燥屎也 有燥屎也, 急下之 ※《상한명리론》↩

4. 脇下滿 胸脇下滿 ※《상한론》↩

5. 小便不利 小便自利 ※《상한명리론》↩



短氣 단기

氣短而不能相續者, 是呼吸雖如¹, 而不能相續, 似喘而不搖肩, 似呻吟而無痛者, 短氣也.

단기(短氣)는 숨이 짧아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비록 숨을 빠르게 쉬더라도 숨이 서로 이어지지 못한다. 천(喘)과 유사하나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며, 신음(呻吟)을 내는 듯하나 통증이 없다.

發汗 발한

短氣但坐, 以汗出不徹故也, 更發汗則愈矣.

단기(短氣)가 있어 앉아만 있을 수 있는 것은 발한을 철저히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발한시키면 낫는다.

下 하법(下法)

乾嘔短氣, 汗出, 裏未和, 十棗湯. 短氣煩躁, 心中懊懣, 陽氣內陷, 心中困鞭, 則爲結胸, 大陷胸湯. 有短氣, 腹滿而喘, 有潮熱者, 大柴胡²主之, 此短氣之實者也.

헛구역질과 단기(短氣)가 있고 땀을 흘리는 것은 속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이다. 십조탕(十棗湯)으로 치료한다. 단기(短氣)와 조번(躁煩)이 생기고 가슴 속이 괴로우며 양기(陽氣)가 안으로 침범하여 심하(心下)가 단단해지면 결흉(結

胸)이 된다.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치료한다. 단기(短氣)가 있고 복만(腹滿)과 천(喘)이 있으며 조열(潮熱)이 있을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 이것은 실증(實證)의 단기이다.

溫經 온경

腹濡滿而短氣者, 邪在表而爲虛也.

배가 그득하지만 말랑하면서 단기(短氣)가 있는 경우는 사기(邪氣)가 겉에 있고 허증이다.

趺陽脈浮而緊³, 緊則爲寒, 微則爲虛, 微虛相搏, 則爲短氣, 此短氣之虛者也.

부양맥(趺陽脈)이 미(微)하면서 긴(緊)할 때, 긴맥(緊脈)은 한(寒)이고, 미맥(微脈)은 허(虛)이다. 두 맥이 함께 나타나면 단기(短氣)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허증의 단기이다.

1. 是呼吸雖如 是呼吸雖數 ※《상한명리론》↩

2. 大柴胡：大承氣湯 ※《상한론》↩

3. 浮而緊 微而緊 ※《상한명리론》↩

痲痺 계종

痲者, 筋脈急也. 痺者, 筋脈緩也. 或搐急, 或舒緩而不止, 名曰痲痺也. 俗謂之搐是也. 邪熱氣極也. 熱盛則風搏併經絡, 風主動, 致四肢痲痺而不寧也, 病勢已過矣.

계(痲)는 근맥(筋脈)이 팽팽한 것이고, 종(痺)은 근맥이 늘어진 것이다. 수축하고 이완하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것을 계종이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이搐(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기(邪氣)가 열(熱)로 변해 극에 달한 것이다. 열이 치성하면 풍(風)이 경락(經絡)을 손상시킨다. 풍은 움직임을 주관하므로 팔다리에 계종(痲痺)이 나타나 편안하지 못하게 된다. 병세가 이미 심해진 상태이다.

兩解 양해

踈風滌熱, 防風通聖散之類.

풍(風)을 흘리고 열(熱)을 내보내야 하므로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등을 쓴다.

汗 한법(汗法)

或汗不流, 是汗出時蓋發不同¹, 設²腰背手足搐搦, 用牛蒡根散.

만약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는 땀이 날 때 고루 덮어주지 않아서 허리, 등, 손, 발이 수축한 것이다. 우방근산(牛蒡根散)을 쓴다.

1. 蓋發不同 ㉠ 蓋覆不周 ※《고금의통대전》↩

2. 設 ㉠ 故 ※《고금의통대전》↩



筋惕肉瞤 근척육순

此汗多亡陽之所致也. 久而成痿, 逆之甚也. 內經曰,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發汗及下後亡津液, 陽虛, 筋肉失所養, 故惕然而跳瞤, 虛甚也.

이것은 지나치게 발한시켜 망양(亡陽)이 된 결과이다. 오랜 뒤에 위(痿)가 되기도 하는데, 역증(逆證)이 심한 경우이다.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양기(陽氣) 가운데 정미로운 것은 신(神)을 기르고 부드러운 것은 근(筋)을 기른다."라고 하였다.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쓰고 나서 진액(津液)이 마르면 양기(陽氣)가 매우 허해져 근육이 길러지지 못하므로 푸들푸들 뛰고 움찔 움찔 움직거리니 심한 허증이다.

溫經益陽 경맥을 따뜻하게 하고 양(陽)을 더함

具前振溫經下

앞의 <진(振)> '온경(溫經)'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踈風濕 풍습(風濕)을 흩어줌

防風白朮牡蠣湯.

방풍백출모려탕(防風白朮牡蠣湯)을 쓴다.

和經益陽 경맥을 조화롭게 하고 양(陽)을 더함

具前振下.

앞의 〈진(振)〉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鬱胃 울모

鬱結爲氣不舒, 胃爲昏, 神不清也. 世俗謂之昏迷是也. 多虛極乘寒所致, 或因吐下使然.

울(鬱)은 울결(鬱結)되어 기(氣)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고, 모(冒)는 혼모(昏冒)하여 신(神)이 맑지 못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혼미(昏迷)"라고 하는 것이 다. 주로 허증(虛證)이 극에 달했을 때 침입한 한(寒) 때문에 생겨난다. 토법(吐法)·한법(汗法)을 써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

潰形爲汗 발한시켜서 땀을 냄

太陽病, 悞先下之而不愈, 因復發汗, 以此表裏俱虛, 其人因致胃. 胃家汗出自愈, 所以然者, 汗出表和也.

태양병에 먼저 하법을 잘못 사용하여 낫지 않고 그 뒤 다시 발한시키면 이 때문에 표리가 모두 허해져 환자에게 모(冒)가 생긴다. 평소 모(冒)가 있는 이가 땀을 흘리면 절로 낫는다. 그 이유는 땀이 나면 겉이 조화로워지기 때문이다.

溫中 온중

吐下後極虛, 復極汗者, 復與之水, 因得噦.

토법(吐法)이나 한법(汗法)을 사용한 뒤에 매우 허해지고 나서 다시 한법을 심하게 사용했을 때 다시 물을 주면 그로 인해 딸꾹질하게 된다.

下 하법(下法)

有熱而怫鬱, 或不得卧, 有燥屎故也.

열이 나고 답답하여 경우에 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기 때문이다.

刺 자침(刺鍼)

太陽少陽併病, 頭痛, 或胃悶, 如結胸狀, 當刺大椎第一間及肺肝二俞, 慎不可汗.

태양과 소양의 병병(併病)은 머리가 아프거나 혹은 어지럽고 답답하며, 때때로 결흉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 경추와 제1 흉추 사이에 있는 대추(大椎)·폐수(肺俞)·간수(肝俞)에 자침해야 하며 한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動氣 동기

奔豚者, 動氣也, 築築然動於腹中者是矣. 臟氣不治, 隨臟所主, 發泄於臍之四傍, 動跳築築然, 謂之動氣. 難經所謂臍左右有動氣, 是臟氣不治. 眞氣虛, 雖有表裏攻發之證, 卽不可汗下.

분돈(奔豚)은 동기(動氣)로, 동기(動氣)는 배 속에서 공이질 하듯 움직이는 것이다. 오장(五臟)의 기운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오장이 주관하는 곳을 따라 배꼽 사방으로 새어 나와 공이질 하듯 뛰는 것을 동기(動氣)라고 한다. 《난경(難經)》에서 말한 배꼽 좌우에 동기(動氣)가 있는 경우는 오장의 기운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다. 동기는 진기(眞氣)가 허(虛)한 경우이므로 사기(邪氣)가 겹이나 속에 있어서 공하시키거나 발한시켜야 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

行氣逐熱 기(氣)를 운행시키고 열(熱)을 몰아냄

汗下後, 臍四傍有動氣, 方見保命集中.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배꼽 상하좌우에 동기가 생긴 경우에 대한 처방은 《보명집》 내용을 참고하라.

溫衛 위기(衛氣)를 따뜻하게 함

汗下後, 臍下有動氣, 茯苓散.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배꼽 아래에 동기가 생겼을 때는 복령산(茯苓散)을 쓴다.

補養血氣 혈기(血氣)를 보하고 길러줌

行氣養血, 枳殼散. 行氣清熱, 防葵散.

기(氣)를 움직이고 혈(血)을 길러줄 때는 지각산(枳殼散)을 쓴다. 기(氣)를 움직이고 열(熱)을 식힐 때는 방규산(防葵散)을 쓴다.

自利 자리

謂不經攻下爲自漉洩。自利不渴屬太陰也，以其臟寒也。下利，欲飲水者，以有熱也。

자리(自利)는 공하(攻下)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나오는 묽은 설사를 말한다. 자리가 있고 갈증이 없는 것은 태음(太陰)에 속하니 장(臟)이 차갑기 때문이다. 설사하며 물을 마시려는 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다.

身熱，脈大爲逆。五臟氣絕於內者，則下利不禁。

몸이 뜨겁고 맥이 대(大)하면 역증(逆證)이다. 오장(五臟)의 기운이 안에서 끊어지면 하리(下利)가 멈추지 않는다.

發汗 발한

太陽陽明合病，必自下利，葛根湯以發之。嘔者，加半夏。

태양과 양명의 합병에 반드시 하리가 있으니 갈근탕(葛根湯)으로 치료한다. 이때 구역질하면 반하(半夏)를 더한다.

下 하법(下法)

陽明與少陽合病，必自下利，大承氣主之。發熱後重，泄色黃赤，此爲有熱。下利，脈遲而滑者，內實也。脈滑而數者，皆有宿食也。

양명과 소양의 합병에 반드시 하리가 있으니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 열이 나고 뒤가 무거우며 누렁거나 붉은색의 설사를 하는 것은 열(熱)이 있는 경우이다. 설사하며 맥이 지(遲)하면서 활(滑)한 것은 속이 실(實)한 것이다. 맥이 활(滑)하면서 삭(數)한 것은 모두 속식(宿食)이 있는 것이다.

和解 화해

太陽與少陽合病, 下利, 黃芩湯. 三陽病, 身必熱.

태양과 소양의 합병에는 하리를 하니 황금탕(黃芩湯)으로 치료한다. 삼양병(三陽病)은 몸에서 반드시 열이 난다.

灸 뜸

下利, 脈微澁, 嘔而汗出, 必更衣, 反少者, 當溫其上, 灸之以消陰. 少陰, 吐利, 手足不冷, 反發熱, 脈不至, 灸少陰太谿穴.

설사하고 맥이 조금 삽(澁)하며 구토하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는 반드시 자주 대변을 보지만 양은 적다. 이때는 그 위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므로 뜸을 떼서 음기를 제거한다. 소음병(少陰病)에 구토와 설사를 하지만 손발이 차지 않고 도리어 열이 나며 맥이 짙이지 않을 때는 족소음경(足少陰經)의 태계혈(太谿穴)에 뜸을 뜬다.

分利 분리

五苓、猪苓等湯.

오령산(五苓散)、저령탕(猪苓湯) 등을 쓴다.

溫 온법(溫法)

挾太陽脈證, 便不可溫. 脈微, 自利清穀, 此爲寒. 少陰必瀉, 腎虛也, 可溫, 理中、白通、諸四逆湯主之. 鴨溏者, 寒也. 脇¹寒而利, 臍下必寒, 四逆湯輩. 少陰, 吐利, 手足必冷², 煩躁欲死, 吳茱萸湯主之.

태양병(太陽病)의 맥상과 증상이 있으면 쉽게 온법(溫法)을 쓸 수 없다. 맥이 미(微)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 섞인 설사하는 것은 한(寒) 때문이다. 소음병(少陰病)에 반드시 설사하는 것은 신(腎)이 허(虛)하기 때문이니 온법(溫法)을 쓸 수 있다. 이중탕(理中湯)、백통탕(白通湯) 그리고 여러 사역탕(四逆湯)으로 치료한다. 압당(鴨溏)은 한(寒) 때문이다. 한(寒)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경우는 배꼽 아래가 반드시 차가울 것이니 사역탕(四逆湯) 종류를 쓴다. 소음병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번조(煩躁)로 죽을 듯할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

却 겁법(却法)

少陰病, 下利便膿血者, 下焦不約, 而裏寒也, 宜用桃花湯, 以固澁之. 如關腸洞泄, 便溺遺失, 用赤石禹餘糧湯. 薛汝明家傳名朱雀湯.

소음병(少陰病)에 피고름이 섞인 설사를 하는 것은 하초(下焦)가 풀어진 상태에서 속이 한(寒)하기 때문이니 도화탕(桃花湯)을 써서 꼭 조여준다. 만약 관장시킨 것처럼 설사하며 대변이 줄줄 새어 나올 때는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을 쓴다. 설여명(薛汝明) 가문에서는 주작탕(朱雀湯)이라고 불리며 전해졌다.

刺 자침(刺鍼)

少陰, 下利, 便膿血者, 可刺之, 宜通血氣.

소음병(少陰病)에 설사하고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올 때는 자침하여 혈기를 소통시켜야 한다.

清熱 청열

自利而渴³ 屬少陰, 白虎湯, 或黃連阿膠散. 脈浮大而長, 千金翼用葛根黃芩黃連湯. 協熱利, 白頭翁湯. 下血, 類要栝皮湯.

설사하면서 갈증이 나는 것은 소음병(少陰病)에 속한다. 백호탕(白虎湯)이나 황련아교산(黃連阿膠散)을 쓴다. 맥이 부(浮)、대(大)하면서 장(長)할 때 《천금익방(千金翼方)》에서는 갈근황금황련탕(葛根黃芩黃連湯)을 썼다. 열을 끼고 설사할 때는 백두옹탕(白頭翁湯)을 쓴다. 설사하면서 하혈(下血)을 할 때는 유요백피탕(類要栝皮湯)을 쓴다.

邪自陽傷入少陰, 腎虛客熱, 下利咽痛, 胸滿心煩者, 猪膚湯主之. 陽垢者⁴, 熱也. 協熱而利, 必臍下熱, 赤石脂丸、白頭翁湯.

병사(病邪)가 양경(陽經)에서부터 소음(少陰)으로 전경(傳經)된 까닭에 신(腎)이 허한데 열(熱)이 침입하여 설사하고 목구멍이 아프며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할 때는 저부탕(猪膚湯)으로 치료한다. 대변에 굵이 섞여 나오는 것은 열(熱) 때문이다. 열을 끼고 설사하면 배꼽 아래가 반드시 뜨거울 것이니 적석지환(赤石脂丸)、백두옹탕(白頭翁湯)을 쓴다.

解錯雜之邪 뒤엉킨 병사(病邪)를 풀어줌

邪傷裏, 下後脈沈遲, 手足冷, 或吐膿血, 下利不止, 爲難治, 麻黃升麻湯, 以潤肺除熱助陽.

사기(邪氣)가 속을 손상시켜 하법(下法)을 쓴 뒤에 손발이 차갑고 더러 피고름을 토하며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이때는 마황승마탕(麻黃升麻湯)으로 폐(肺)를 적시고 열을 제거하며 양기를 돕는다.

1. 脇 ㉞ 挾 ※문맥 ㉞

2. 手足必冷 ㉞ 手足逆冷 ※《상한론》 ㉞

3. 自利而渴 ㉞ 自利而渴 ※《상한론》 ㉞

4. 陽垢者 ㉞ 腸垢者 ※문맥 ㉞



熱入血室 열입혈실

男子由陽明而傷, 女人則隨經而入. 男子則下血譫語, 婦人則月水適來. 邪得乘虛而入, 血自下則愈.

남자에게는 사기(邪氣)가 양명(陽明)으로부터 충맥(衝脈)을 손상시키고, 여자는 사기가 월경할 때 충맥으로 침입한다.¹ 그렇게 되면 남자는 하혈(下血)과 섬어(譫語)가 생기고 부인(婦人)은 월경이 시작된다. 사기(邪氣)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이니 혈(血)이 절로 아래로 나오면 낫는다.

和解 화해

婦人傷寒, 經水適來, 得之七八日, 晝則明了, 暮則譫語, 如見鬼狀, 此熱入血室也. 寒熱如瘧, 宜小柴胡湯以和血也. 許氏小柴胡加生地, 保命集加牡丹皮. 元戎曰, 先服小柴胡去其熱, 次以四物湯和之.

부인(婦人) 상한(傷寒)에 때 마침 월경이 시작되고 병든 지 7~8일 때에 낮에는 정신이 맑다가 저녁이 되면 귀신이라도 본 듯 헛소리(譫語)를 하는 경우는 열이 혈실(血室)로 침입한 것이다. 학질처럼 오한과 발열이 왕래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혈(血)을 조화롭게 한다. 허숙미(許叔微)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생지황(生地黃)을 더하여 사용하였고, 《보명집》에서는 목단피(牡丹皮)를 더하여 썼다. 《의루원용(醫壘元戎)》에서 "먼저 소시호탕(小柴胡湯)을 복용시켜 열을 내린 다음 사물탕(四物湯)으로 조화롭게 한다."라고 하였다.

下 하법(下法)

大實滿者, 桃仁承氣. 活人書云少腹滿, 小便和, 屬抵當湯.

매우 그득하고 단단할 때는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쓴다. 《활인서(活人書)》에서 "아랫배가 그득하고 소변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저당탕(抵當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刺 자침(刺鍼)

七八日熱除而脈遲, 胸脇滿, 如結胸狀, 譫語者, 此熱入血室, 刺期門. 保命集用甘草芍藥湯, 不已, 刺隱白.

병든 지 7~8일째에 열이 내렸으나 맥이 지(遲)하고 결흉(結胸)처럼 가슴이 그득하며 섬어(譫語)를 하는 것은 열입혈실(熱入血室)이니 기문(期門)에 자침한다. 《보명집》에서는 "감초작약탕(甘草芍藥湯)을 사용하고 낫지 않으면 은백(隱白)에 자침한다."라고 하였다.

溫經 온경

保命集云, 表虛自汗, 身涼拘急, 脈沈而遲, 桂枝加附子紅花湯. 活人書曰, 發熱惡寒, 經水凝滯, 桂枝加紅花湯. 索矩云, 其紅必結, 宜育腸湯.

《보명집》에서 "걸이 허하여 자한(自汗)을 흘리고 몸이 차며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맥이 침(沈)하면서 지(遲)할 때는 계지가부자홍화탕(桂枝加附子紅花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활인서(活人書)》에서 "열(熱)이 나고 오한이 들며 경수

(經水)가 응체되었을 때는 계지가홍화탕(桂枝加紅花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색구》에서 "월경 피가 반드시 엉켜있을 것이니 육장탕(育腸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不須治 반드시 치료할 필요가 없음

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必自愈. 是不須治也, 謂針藥皆不可. 以裏無留邪, 但不妄犯, 熱隨血散必自愈.

열입혈실(熱入血室)은 위기(胃氣)와 상초(上焦)、중초(中焦)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분명 절로 낫는다. 이는 반드시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침이나 약이 필요 없음을 말한다. 속에 머물러 있는 병사(病邪)가 없으므로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열(熱)이 월경혈을 따라 흩어지므로 반드시 절로 낫는다.

1. 《고금의통대전》을 근거로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 >

發黃 발황

瘀熱在裏, 身必發黃. 有濕熱, 有畜血¹, 濕熱而實, 風濕熱而虛, 寒濕, 痞氣.

어열(瘀熱)이 속에 있으면 몸이 반드시 누렇게 된다. 습열(濕熱) 때문인 경우, 축혈(蓄血) 때문인 경우가 있고, 습열(濕熱)이 있으면서 실한 경우, 풍습열(風濕熱)이 있으면서 허한 경우, 한습(寒濕) 때문인 경우, 비기(痞氣) 때문인 경우가 있다.

發汗 발한

瘀熱身黃, 麻黃連翹赤小豆湯². 脈浮而緊, 不可下, 宜各半湯.

어열(瘀熱) 때문에 몸이 누렇게 되었을 때는 마황연교적소두탕(麻黃連翹赤小豆湯)을 쓴다.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할 때는 하법(下法)을 써서는 안 되며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이 합당하다.

下熱 열을 내림

陽明, 身熱, 頭汗出³, 小便不利, 渴引水, 此瘀熱在裏, 身黃, 茵陳蒿湯主之.

양명병(陽明病)에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에서만 땀이 나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것은 속에 어열(瘀熱)이 있기 때문이니 이 때 몸이 누렇게 되면 인진호탕(茵陳蒿湯)으로 치료한다.

逐血 혈(血)을 몰아냄

身黃, 脈沈結, 少腹鞭而小便自利, 其人如狂者, 又爲畜血⁴在下焦使之黃也, 抵當、桃仁承氣主之.

몸이 누르고 맥이 침(沈)、결(結)하며 아랫배가 단단하지만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며 그 환자의 증상이 광증(狂證)과 같을 것은 축혈(蓄血)이 하초(下焦)에 있기 때문에 몸이 누렇게 된다. 저당탕(抵當湯)、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으로 치료한다.

散熱 열을 흩음

傷寒, 身黃發熱, 爲熱未實, 與梔子栝皮湯. 若大便自利而黃者, 茵陳梔子黃連三物湯.

상한(傷寒)에 몸이 누르고 열이 나지만 열(熱)이 아직 실증이 아닐 때는 치자백피탕(梔子栝皮湯)을 쓴다. 만약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몸이 누렇게 되었을 때는 인진치자황련삼물탕(茵陳梔子黃連三物湯)을 쓴다.

溫經散濕 경맥을 따뜻하게 하고 습(濕)을 흩음

發熱, 身黃, 一身盡痛, 或小便自利, 與朮附湯. 韓祗和云, 病人三五日, 脈微, 下藥太過虛甚, 脾胃津竭, 渴飲水自傷, 此陰濕傷脾變黃, 宜溫之, 茵陳茯苓湯, 及茯苓橘皮湯、小茵陳湯、茵陳四逆湯、茵陳附子湯、茵陳吳茱萸湯, 皆治陰黃證. 略例云, 病

後飲食, 勞動中州, 變黃之病⁵而生黃, 非壞之⁶而得, 只用建中、理中、大建中等藥足矣.

열이 나며 몸이 누렇게 온몸이 모두 아프며 더러 소변이 시원할 때는 출부탕(朮附湯)을 쓴다. 한지화(韓祗和)가 말하였다. "환자가 병든 지 3~5일이 되어 맥이 미(微)한데 몸이 누렇게 된 것은 하법(下法)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매우 허해진 까닭에 비위(脾胃)의 진액이 고갈되어 갈증으로 물을 마시다 스스로 손상된 경우이다. 이는 음습(陰濕)이 비(脾)를 상하여 발황(發黃)이 된 것이므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인진복령탕(茵陳茯苓湯)、복령굴피탕(茯苓橘皮湯)、소인진탕(小茵陳湯)、인진사역탕(茵陳四逆湯)、인진부자탕(茵陳附子湯)、인진오수유탕(茵陳吳茱萸湯)은 모두 음황증(陰黃證)을 치료한다. 《음증약례(陰證略例)》에서 말하였다. "병든 뒤에 음식(飮食)에 상하거나 과로로 중초(中焦)를 자극한 까닭에 한(寒)으로 변하여 몸이 누렇게 된 것은 외감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단지 건중탕(建中湯)、이중탕(理中湯)、대건중탕(大建中湯) 등의 약이면 충분하다.

和解 화해

有潮熱, 嗜臥, 心脇疼, 鼻乾, 身及目黃, 小便難, 小柴胡主之.

조열(潮熱)이 나고 자려고만 하며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코가 마르며 몸과 눈이 누렇게 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分利 분리

發熱, 頭汗, 渴引水, 小便利⁷, 大便反快, 五苓加茵陳. 補亡云, 茵陳蒿汁調五苓散.

열이 나고 머리에서 땀이 나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지만 대변은 시원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에 인진호(茵陳蒿)를 더하여 쓴다. 《상한보망론(傷寒補亡論)》에서는 "인진호(茵陳蒿) 즙에 오령산(五苓散)을 타서 쓴다."라고 하였다.

搐鼻 코에 불어넣음

初覺黃, 以瓜蒂散吹鼻內, 出黃水.

처음 발황이 생겼을 때 과체산(瓜蒂散)을 콧속에 불어넣어 누런 물이 나오도록 한다.

外治 외치

春夏時身黃而熱悶, 按萐菜向胸間擦之.

봄과 여름에 몸이 누렇게 되면서 열이 나서 갑갑하면 짓이긴 구채(萐菜)로 가슴을 문질러 준다.

內消 안에서 소화시킴

傷寒後, 因飲食致黃者, 用枳朮內消丸.

상한(傷寒)에 걸린 뒤 음식(飮食)을 먹고 몸이 누렇게 되었을 때는 지출내소환(枳朮內消丸)을 쓴다.

1. 畜血 ㉠ 蓄血 <

2. 麻黃連翹赤小豆湯 ㉠ 麻黃連翹赤小豆湯 ※문맥상 <

3. 頭汗出 ㉠ 但頭汗出 ※《상한론》 <

4. 畜血 ㉠ 蓄血 <

5. 變黃之病 ㉠ 變寒之病 ※《증치준승》 <

6. 壞之 ㉠ 外感 ※《증치준승》 <

7. 小便利 ㉠ 小便不利 ※문맥 <

發狂 발광

有陽毒, 多嘔, 煩躁面赤, 脈實是也.

양독(陽毒)으로 광증(狂證)이 생긴 경우는 주로 구역질하고 번조(煩躁)가 있으며 낯빛이 붉고 맥이 실(實)하다.

畜血¹發狂, 多脈沈微, 但欲嗽水不嚥入.

축혈(蓄血)로 광증(狂證)이 생긴 경우는 주로 맥이 침(沈)·미(微)하며 물로 입을 헹구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는다.

吐 토법(吐法)

升麻梔子湯. 龐氏云, 溫病無熱, 但狂言, 煩不安, 宜以猪苓散方寸匕服之, 隨以水一升服, 以吐之.

승마치자탕(升麻梔子湯)을 쓴다. 방안시(龐安時)가 말하였다. "온병(溫病)에 열이 나지 않는데 헛소리만 하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를 때는 저령산(猪苓散) 1방촌시(方寸匙)를 복용시키고 이어서 물 1되를 마시게 한 다음 토하도록 한다.

發散 발산

證治用升麻鱉甲散.

《증치》에서는 승마별갑산(升麻鱉甲散)을 사용하였다.

水漬 물을 적서증

用新汲水濕布搭於胸上.

새로 길어온 물에 적신 천을 가슴 위에 올려둔다.

溫散² 따뜻하게 흠어증

雙解 쌍해

黑奴丸

흑노환(黑奴丸)을 쓴다.

下 하법(下法)

畜血³者, 其人如狂, 以熱在下焦, 小腹當硬, 小便自利, 下血乃愈, 抵當湯. 脈弦而長, 調胃承氣湯. 脈沈實, 有表證, 大柴胡湯.

축혈(蓄血)이 있으면 환자의 증상이 광증(狂證)과 비슷하니 열이 하초(下焦)에 있기 때문이다. 아랫배가 단단하지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올 때는 어혈(瘀血)을 제거해야 낫는다.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맥이 현(弦)하면서 장(長)할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맥이 침(沈)·실(實)하고 표증(表證)이 있을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小腹結急者, 用桃仁承氣湯.

아랫배가 마치고 단단할 때는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쓴다.

淸鎮 식히고 진정시킴

吐下後及虛人未解者, 宜與人參白虎辰砂之類, 淸其浮火也. 直指方用寒水石、黃連末各一錢, 調冷水送下. 又龍膽草一物湯, 治陽狂.

토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광증이 나타나거나, 허약한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았는데 광증이 나타났을 때는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에 진사(辰砂)를 더한 것 등으로 떠오른 화(火)를 식힌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는 한수석(寒水石)、황련(黃連) 가루 각 1돈을 시원한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 또 용담초일물탕(龍膽草一物湯)으로 양광(陽狂)을 치료하였다.

救逆 구역

有因火劫, 亡陽驚狂, 卧起不安, 屬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救逆湯.

화법(火法)으로 사기(邪氣)를 몰아낸 까닭에 망양(亡陽)이 되어 미쳐 날뛰고 항상 불안할 때는 계지거작약가촉칠모려옹골구역탕(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을 쓴다.

逐熱 열을 몰아냄

三陽熱極, 脈大身熱, 渴而狂者, 黃連解毒湯. 不已, 用承氣湯.

삼양증(三陽證)에 열이 심하여 맥이 대(大)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갈증이 나면서 광증(狂證)이 있을 때는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을 쓴다. 낮지 않으면 승기탕(承氣湯)을 쓴다.

逐血 혈(血)을 몰아냄

血上逆則喜忘, 血下畜則內爭, 其人如狂, 用抵當湯. 輕者, 犀角地黃湯. 活人書, 承氣湯.

혈(血)이 거슬러 오르면 잘 잊고 혈(血)이 아래에 쌓이면 안에서 다투므로 환자의 증상이 광증(狂證)과 비슷하니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쓴다. 《활인서(活人書)》에서는 승기탕(承氣湯)을 썼다.

喜忘如狂, 身黃屎黑, 血證諦也, 抵當湯.

잘 잊거나 증상이 광증(狂證) 같으며 몸이 누렇게 대변이 검은 것은 혈증(血證)이 분명하다.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無求子曰, 胸滿唇痿, 舌青口燥, 但嗽水不嚥, 無熱, 爲有瘀血, 必發狂也. 下血, 用犀角地黃芍藥湯.

무구자(無求子)가 말하였다. "가슴이 그득하고 입술이 위축되며 혀가 푸르고 입이 마르지만 물로 입을 행구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며 열이 없는 것은 어혈(瘀血)이 있기 때문이니 반드시 광증(狂證)이 생긴다. 하혈(下血)시켜야 하므로 서각지황작약탕(犀角地黃芍藥湯)을 쓴다.

踈風 풍(風)을 흠어줌

龐氏曰, 人患時氣六七日, 因發狂, 目瞪, 口噤, 手攣⁴ 脰曲, 或張口⁴, 不知人事, 口鼻氣絕, 但心頭溫, 面色和, 六脈皆動, 一如尸厥, 不知人五六日. 因作成敗計, 救之用風引湯加附子灌下, 兩服遂省.

방안시(龐安時)가 말하였다. "환자가 유행병(時氣)을 앓은 지 6~7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광증(狂蒸)이 생기고 눈을 부릅뜨며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입은 악다물거나 헤벌리며 의식이 흐릿하고 입과 코에서 숨이 끊어졌다. 그렇지만 가슴에 온기가 있고 낮빛이 좋으며 육맥(六脈)이 모두 뛰었다. 증상이 모두 시겔(尸厥)과 같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지는 5~6일이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치료 때문으로, 풍인탕(風引湯)에 부자(附子)를 더하여 목으로 넘겨주기를 2차례 하자 마침내 깨어났다."

壯陰 음(陰)을 튼튼히 함

陽氣獨盛, 陰氣暴絕, 必發狂走, 妄言面赤, 咽痛發班, 或下利赤黃, 脈洪實, 或滑促, 宜酸苦之藥, 收陰抑陽, 苦酒葶藶生艾湯主之.

양기(陽氣)가 홀로 왕성하고 음기(陰氣)가 완전히 끊어지면 반드시 미쳐 날뛰고 내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낮빛이 붉으며 목구멍이 아프고 피부에 발반(發班)이 일고 때에 따라 붉거나 누런 설사를 하고 맥이 홍(洪)·실(實)하거나 활(滑)·촉(促)하게 된다. 맛이 시고 쓴 약으로 음(陰)을 수렴시키고 양(陽)을 억눌러야 하므로 고주정력생애탕(苦酒葶藶生艾湯)으로 치료한다.

抑陽 양(陽)을 억누름

陽毒, 狂躁發班, 甚者踰牆上屋, 輕者桔梗大黃湯、升麻湯、梔子仁湯.

양독(陽毒)이 있으면 미쳐 날뛰고 피부에 발반(發班)이 일어나며 심하면 담을 넘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가벼울 때는 길경대황탕(桔梗大黃湯)、승마탕(升麻湯)、치자인탕(梔子仁湯)을 쓴다.

1. 畜血 ㉞ 蓄血 ←

2. 溫散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3. 畜血 ㉞ 蓄血 ←

4. 口噤, 手攣脰曲, 或張口 ㉞ 手攣脰曲, 口噤或張口 ※《상한총병론》←

霍亂 곽란

上吐而下利, 揮霍而撩亂也. 邪在中焦, 胃氣不治, 爲邪所傷, 使陰陽乖隔, 遂上吐而下利. 躁擾煩亂, 乃謂之霍亂, 但稱吐利者, 是有以異也.

곽란은 위로 토하며 아래로 설사하는 증상이 매우 빠르고〔揮霍〕뒤엉켜 있는〔撩亂〕 것이다. 사기(邪氣)가 중초(中焦)에 있을 때 위기(胃氣)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기에 손상 받아 음양(陰陽)이 이어지지 못하여 마침내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한다. 심한 번조(躁煩)가 동반된 경우에만 곽란이라고 하므로 "토리(吐利)"라고만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溫中 온중

寒多不渴者, 理中丸主之. 無求子曰, 用扁荳湯、治中湯、四順附子湯、小麥湯.

발열에 비해 오한(惡寒)이 우세하고 갈증이 나지 않을 때는 이중환(理中丸)으로 치료한다. 무구자(無求子)는 "편두탕(扁荳湯)、치중탕(治中湯)、사순부자탕(四順附子湯)、소맥탕(小麥湯)을 쓴다."라고 하였다.

吐利, 手足冷, 腹痛甚, 加吳茱萸. 百證歌云, 吐利, 轉筋, 入腹者, 雞矢白湯主之. 脈微緩, 四肢冷, 建中加附子當歸湯. 沈細, 四君子加芍藥良姜湯.

토하고 설사하며 손발이 차갑고 배가 매우 아플 때는 오수유(吳茱萸)를 더하여 쓴다. 《상한백증가(傷寒百證歌)》에서 말하였다. "토하고 설사하다 근육이 뒤틀려 배로 들어갔을 때는 계시백탕(雞矢白湯)으로 치료한다. 맥이 미(微)、

완(緩)하고 팔다리가 차가울 때는 건중가부자당귀탕(建中加附子當歸湯)을 쓴다. 맥이 침(沈)·세(細)할 때는 사군자가작약양강탕(四君子加芍藥良薑湯)을 쓴다."

分利 분리

吐利, 頭痛而熱, 熱多, 欲飲水, 五苓散主之.

토하고 설사하며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는데 오한에 비해 발열이 우세하고 물을 마시려 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으로 치료한다.

散表 표사(表邪)를 흠음

通用藿香正氣散加桂. 風寒暑濕邪自外入, 正氣散、除濕湯. 轉筋, 白朮湯.

보통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쓴다. 풍(風)、한(寒)、서(暑)、습(濕)의 사기(邪氣)가 밖으로부터 침입하였을 때는 정기산(正氣散)、제습탕(除濕湯)을 쓴다. 근육이 뒤틀릴 때는 백출탕(白朮湯)을 쓴다.

平胃 평위

脈弦, 木尅土, 平胃散加木瓜.

맥이 현(弦)한 것은 목(木)이 토(土)를 극하는 형국이니 평위산(平胃散)에 모과(木瓜)를 더하여 쓴다.

刺 자침(刺鍼)

乾霍亂, 或腹中急痛絞刺, 宜刺委中及絞刮奪命穴¹.

건곽란(乾霍亂)으로 때에 따라 배속이 갑자기 쥐어짜거나 찌르는 듯 아플 때는 위중(委中)이나 탈명혈(奪命穴)에 자침한다.

兩解 양해

發熱脈弦, 汗出不解, 心下痞而吐利, 大柴胡主之. 一法具自利下.

열(熱)이 나고 맥이 현(弦)한데 땀을 내도 병이 풀리지 않고 심하(心下)가 막히면서(痞) 토하고 설사할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 다른 방법은 〈자리(自利)〉 내용에서 설명하였다.

解肌 해기

汗後霍亂, 身體重者, 桂枝湯.

한법(汗法)을 쓴 뒤에 곽란(霍亂)이 생기고 몸이 무거울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消暑 서사(暑邪)를 삭임

吐利, 大渴煩躁, 冷汗出, 轉筋, 脈遲沈, 宜清暑益氣湯、白虎湯、香薷飲.

토하고 설사하며 갈증이 심하고 번조(煩躁)가 나타나며 차가운 땀을 흘리고 근육이 뒤틀리며 맥이 지(遲)·침(沈)할 때는 청서익기탕(淸暑益氣湯)·백호탕(白虎湯)·향유음(香薷飲)을 쓴다.

和解 화해

嘔而潮熱, 小柴胡. 乾霍亂, 塩湯、紫蘇丸主之.

구토하면서 조열(潮熱)이 나타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건곽란(乾霍亂)은 염탕(鹽湯)·자소환(紫蘇丸)으로 치료한다.

散陰通陽 음(陰)을 흘리고 양(陽)을 통하게 함

吐利止, 汗出而厥, 不欲水, 四肢拘急², 脈微欲絶, 通脈四逆加猪膽汁湯.

구토와 설사가 그친 뒤 땀을 흘리면서 손발이 차갑고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며 뒤틀렸던 팔다리가 풀리지 않고 맥이 끊어질 듯 미(微)할 때는 통맥사역가저담즙탕(通脈四逆加猪膽汁湯)을 쓴다.

1. 宜刺委中及絞刮奪命穴 ㉞ 宜刺委中及奪命穴 ※《침구취영》↩

2. 四肢拘急 ㉞ 四肢拘急不解 ※《상한론》↩

勞復 노복

有差後勞役復, 有食復, 有女勞復.

병이 나은 뒤에 과로 때문에 병이 도진 경우, 음식 때문에 병이 도진 경우, 성생활 때문에 병이 도진 경우가 있다.

和解 화해

勞役復, 發熱, 冲和湯.

과로로 병이 도져 열이 날 때는 충화탕(冲和湯)을 쓴다.

解表 해표

脈浮, 以汗解之.

맥이 부(浮)할 때는 한법(汗法)으로 풀어준다.

清熱 청열

竹葉石膏湯、麥門冬湯.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맥문동탕(麥門冬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脈沈實, 勞復, 至腹滿譫語, 枳實大黃湯.

맥이 침(沈)·실(實)한데 과로로 병이 도져 배가 그득하고 헛소리를 할 때는
지실대황탕(枳實大黃湯)을 쓴다.

吐 토법(吐法)

宿熱而熱復¹, 枳實梔子豉湯吐之.

숙식(宿食)이 있으면서 열이 다시 날 때는 지실치자시탕(枳實梔子豉湯)으로
구토시킨다.

補 보법(補法)

補中益氣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쓴다.

升陽益胃² 양(陽)을 올리고 위(胃)를 도움

養榮³ 영기(榮氣)를 기름

1. 宿熱而熱復 : 宿食未克者 ※《고금의통대전》↩

2. 升陽益胃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3. 養榮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陰陽易 음양역

其人身體重, 少氣, 少腹裏急, 或引陰中拘攣¹, 熱上冲胸, 頭重不舉, 眼中生花.

환자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며 아랫배 속이 당기거나 고향이 부으며, 팔다리가 당기고 열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며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고 눈 속에 꽃무늬가 나타난다.

導陰氣 음기(陰氣)를 빼냄

燒棍散、猥鼠橘皮湯.

소곤산(燒棍散)、가서굴피탕(猥鼠橘皮湯)을 쓴다.

1. 或引陰中拘攣 ⇨ 陰腫, 四肢拘急 ※《고금의통대전》⇨

大便秘 大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脈數爲熱, 陽邪偏結於內, 陰氣不能相雜, 故其證能食, 不大便, 名陽結. 脈沈遲爲寒, 陰邪偏結於內, 陽氣不能相雜, 故其證不能食, 身重, 大便閉, 爲陰結.

맥이 삭(數)한 것은 열(熱) 때문이다. 양사(陽邪)가 안에서 홀로 맏혀 음기(陰氣)와 서로 섞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증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대변을 보지 못한다. 이를 양결(陽結)이라고 부른다. 맥이 침(沈)한 것은 한(寒) 때문이다. 음사(陰邪)가 안에서 홀로 맏혀 양기(陽氣)와 서로 섞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증상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몸이 무거우며 대변이 막힌다. 이를 음결(陰結)이라고 부른다.

汗 汗법(汗法)

小便難, 爲有津液, 可作汗, 小便數, 不可悞汗. 證似煩臥不着席, 服梔子湯, 或五苓散, 得汗而解.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소변도 잘 나오지 않으면 진액이 있는 것이니 한법(汗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소변이 잦다면 한법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슴이 갑갑하여 가만히 있지 못할 때 치자탕(梔子湯)이나 오령산(五苓散)을 복용시키면 땀을 흘리고 나서 증상이 풀어진단다.

下 下법(下法)

潮熱大便鞭, 陽盛陰虛, 下證已具. 陽結證, 趙氏用調胃承氣. 難知用七宣丸.

조열(潮熱)이 나고 대변이 단단하며 양(陽)은 치성하지만 음(陰)이 허하면 하법(下法)을 써야 할 증상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다. 양결증(陽結證)에 조씨(趙氏)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사용하였다. 《차사난지(此事難知)》에서는 칠선환(七宣丸)을 사용하였다.

醫鏡用五柔丸、枳實湯、備急丸.

《의경》에서는 오유환(五柔丸)、지실탕(枳實湯)、비급환(備急丸)을 사용하였다.

許氏用大柴胡.

허숙미(許叔微)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사용하였다.

吐 吐법(吐法)

三下不通, 不可下攻, 便當上吐提之.

3차례 하법을 사용하여도 소통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하시켜서는 안 되며 토법(吐法)으로 기운을 끌어 올려주어야 한다.

導 대변을 빼냄

蜜導, 猪膽汁導.

밀도법(蜜導法)、저담즙도법(猪膽汁導法)을 쓴다.

滋陰 음(陰)을 늘림

陽藏陰虛者¹, 頻進兔肉.

양(陽)이 왕성한데 음(陰)이 허할 때는 토끼고기를 자주 먹게 한다.

溫 온법(溫法)

陰結, 活人書用金液丹, 索矩用審慎丸, 難知用厚朴湯, 醫鏡用半硫丸.

음결(陰結)에 《활인서(活人書)》에서는 금액단(金液丹), 《색구》에서는 심신환(審慎丸), 《차사난지(此事難知)》에서는 후박탕(厚朴湯), 《의경》에서는 반류환(半硫丸)을 사용하였다.

龐氏云, 臟厥, 四逆輩極冷服之.

방안시(龐安時)는 "장결(臟厥)에는 사역탕(四逆湯) 등을 매우 차갑게 하여 복용시킨다."라고 하였다.

和解 화해

陽結, 能食不大便, 或頭汗出, 惡寒, 手足冷, 或心滿不食, 大便硬, 不可下, 與冲和湯.

양결(陽結)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대변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머리에 땀을 흘리고 오한이 들며 손발이 차갑거나, 또는 가슴이 그득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대변이 단단할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되니 충화탕(冲和湯)을 써야 한다.

潤腸 장(腸)을 적서증

大便堅, 小便數, 不可下. 趺陽脈浮瀦, 麻仁丸、枳實丸.

대변이 단단하고 소변이 잦을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부양맥이 부(浮)、
삽(瀦)할 때는 마인환(麻仁丸)、지실환(枳實丸)을 쓴다.

浴 목욕

用棕櫚皮燒湯, 坐盆內浴之, 亦謂之外迎.

종려피(棕櫚皮)를 태워 끓인 물을 욕조에 넣고 그 안에 앉아 목욕한다. 외영
(外迎)이라고도 한다.

熏 훈증

虛者, 用皂角烟熏, 大便即通.

허할 때 조각(皂角)을 태워 훈증시키면 대변이 바로 통한다.

熨 찜질

服藥不通, 卽以塩炒熱, 熨臍下, 須臾即通. 若臍下冷結不通, 不可便熨, 冷散攻心必
死. 須先服溫藥, 久乃可熨.

약을 먹어도 대변이 나오지 않으면 볶아 뜨겁게 만든 소금으로 배꼽 아래를 찜질해 주면 조금 있다가 대변이 나온다. 배꼽 아래가 차갑고 대변이 뭉쳐서 나오지 않을 때는 쉽게 찜질해서는 안 된다. 냉기(冷氣)가 흠어져 심장을 공격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반드시 먼저 따뜻한 성질의 약을 복용시키고 오래 지나 찜질해야 한다.

1. 陽藏陰虛者 ☞ 陽盛陰虛者 ※문맥 ☜

脇痛 협통

少陽證, 表解裏未和. 素有痞積在臍傍, 痛引小腹入陰筋者, 名臍結, 主死.

협통은 소양병(少陽病)에 표증은 풀어졌지만 속이 편해지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평소 배꼽 주변에 막히거나 쌓인 것이 있어 옆구리 통증이 아랫배까지 미치고 성기까지 들어간 것을 장결(臍結)이라고 부르는데 죽는다.

下 하법(下法)

心下堅滿, 引脇痛, 十棗湯.

명치가 단단하고 그득한데 옆구리까지 아플 때는 십조탕(十棗湯)을 쓴다.

和解 화해

往來寒熱, 胸脇滿痛, 柴胡牡蠣湯.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며 아플 때는 시호모려탕(柴胡牡蠣湯)을 쓴다.

鍼¹ 침

¹. 鍼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腹痛 복통

有實, 有虛, 寒、熱邪, 燥屎, 舊積.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실한 경우, 허한 경우, 한사(寒邪) 때문인 경우, 열사(熱邪) 때문인 경우,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 오래된 적(積)이 있는 경우가 있다. 배를 눌러 아프지 않는 것은 허증이고 아픈 것은 실증이다.

建中 건중

陽脈濇, 陰脈弦, 并泄利, 建中湯、桂枝芍藥湯、小建中. 薛汝明名芍藥湯.

양맥(陽脈)이 색(濇)하고 음맥(陰脈)이 현(弦)하며 아울러 설사할 때는 건중탕(建中湯)、계지작약탕(桂枝芍藥湯)、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설여명(薛汝明)은 작약탕(芍藥湯)이라고 불렀다.

和血 화혈

厥陰證, 小腹痛, 當歸四逆湯.

결음병(厥陰病)에 아랫배가 아플 때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關脈實, 大便秘硬, 腹滿爲實, 繞臍腹痛, 煩躁, 發作有時, 有燥屎也, 大小承氣. 腹滿時痛, 桂枝加大黃.

관맥(關脈)이 실(實)하고 대변이 막혀 단단하며 배가 그득한 것은 실증(實證)이다. 이때 배꼽 주변이 아프고 정해진 때에 번조(煩躁)가 생겨나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플 때는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을 쓴다.

溫中 온중

兼泄利下重, 脈沈微, 四逆湯. 兼小便不利, 眞武湯, 隨證選用.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하고 뒤가 무거우며 맥이 침(沈)·미(微)할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복통이 있으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증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逐熱 열을 몰아냄

胸中有熱, 胃中有邪氣, 腹中痛, 欲嘔吐者, 黃連湯.

가슴속에 열이 있고 위(胃) 속에 사기(邪氣)가 있어 배 속이 아프고 구토하려고 할 때는 황련탕(黃連湯)을 쓴다.

外接法 외접법

略例云.¹

《음증약례(陰證略例)》에서 말하였다.

熨 찜질

用灰包熨之.

재를 싸서 찜질한다.

灸 뜸

龐氏云, 合灸不灸, 令病人冷結, 久而彌困, 氣冲心而死.

방안시(龐安時)가 말하였다. "뜸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아서 환자에게 냉기(冷氣)가 맺히고 오래 지나 만성화되면 냉기가 가슴으로 치밀어 죽게 된다."

刺括 자침(刺鍼)과 괄법(括法)

欲吐利而煩躁者, 多有 毒, 世俗以刺括委中穴.

잘 토하고 설사하며 번조(煩躁)가 있는 것은 주로 사독(毒)이 있는 경우이다.

요즘 항간에서는 위중혈(委中穴)에 침을 찌르거나 괄법(括法)을 사용한다.

¹. 이하 내용은 탈락되었다. ↩



咽痛 목구멍이 아픈 경우

陽毒, 少陰證, 伏氣.

양독(陽毒)인 경우, 소음병(少陰病)인 경우, 복기(伏氣)가 있는 경우가 있다.

清熱 清열

少陰, 腹痛, 脈沈細, 猶有咽痛者, 黃連龍骨湯.

소음병(少陰病)에 배가 아프고 맥이 침(沈)·세(細)한데도 목구멍이 아플 때는 황련용골탕(黃連龍骨湯)을 쓴다.

溫中 온중

脈微弱, 有伏氣, 必先痛, 次下利, 當溫之. 手足冷, 或加吐利, 少陰證也. 下利不止, 手足冷, 咽痛, 無熱證, 四順丸. 少陰中風, 胸滿心煩, 咽痛自汗, 腰痛連脣, 頭痛吐沫, 脈弦, 三因用桂枝附子.

맥이 미(微)·약(弱)하고 복기(伏氣)가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통증이 생겼다가 이어서 설사하니 온법(溫法)을 써야 한다. 손발이 차갑고 구토와 설사가 있기도 한 것은 소음증(少陰證)이다. 설사가 멎지 않고 손발이 차가운데 목구멍이 아프고 열증(熱證)이 없을 때는 사순환(四順丸)을 쓴다. 소음중풍(少陰中風)으로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며 목구멍이 아프고 자한(自汗)을 흘리며 허

리 통증이 다리까지 미치고 머리가 아프며 연말을 토하고 맥이 현(弦)할 때
《삼인극일병증방론(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사용하였다.

散結下痰 맏힌 것을 풀고 담(痰)을 내림

脈數而滑, 甘桔半夏湯.

맥이 삭(數)하면서 활(滑)할 때는 감길반하탕(甘桔半夏湯)을 쓴다.

鍼¹ 침

吹點² 취점

敷 도포

咽痛有瘡, 黃栢細辛末敷之.

목구멍이 아프고 헐었을 때는 황백(黃栢)과 세신(細辛) 가루를 헐 곳에 뿌려준
다.

解毒 해독

陽毒, 脈浮數而大, 唾膿血, 千金、外臺烏扇膏治之.

양독(陽毒)으로 맥이 부(浮)·삭(數)하면서 대(大)하고 피고름을 뱉는 것을
《천금방(千金方)》과 《외대비요(外臺秘要)》에서는 오선고(烏扇膏)로 치료하
였다.

1. 鍼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2. 吹點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虯厥 회궐

溫胃 위(胃)를 따뜻하게 함

烏梅丸、理中丸.

오매환(烏梅丸)、이중환(理中丸)을 쓴다.

利 설사시킴

消渴, 吐虯, 但用理中加大黃, 入蜜以利之.

소갈(消渴)에 회충을 토할 때는 이중탕(理中湯)에 대황(大黃)을 더하고 밀(蜜)을 넣어 설사시킨다.

陽證陽毒 양증양독

二陽¹病不治, 陽獨盛, 陰欲暴絕, 變爲陽毒, 必發狂, 內外熱結, 舌又卷, 鼻內煤烟, 脈洪實滑促.

삼양병(三陽病)이 치료되지 않고 양(陽)만 홀로 치성하고 음(陰)은 완전히 끊어지려고 하면 변하여 양독(陽毒)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광증(狂證)이 생기고 안팎으로 열이 맺히며 혀 또한 말리고 콧속에 그을음이 낀 듯하며 맥이 홍(洪)·실(實)·활(滑)·촉(促)하다.

토 토법(吐法)

升麻梔子湯.

승마치자탕(升麻梔子湯)을 쓴다.

下² 하법(下法)

1. 二陽 ⇨ 三陽 ※문맥 ⇨

2. 下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陰證陰毒 음증음독

陰病盛¹則微陽消于上, 故其候沈重, 四肢逆冷, 臍腹築痛, 厥逆或冷, 六脈沈細, 時來疾, 尺脈小短而微, 寸口盛, 時大者, 皆其候也.

음(陰)만 홀로 치성해지면 미약해진 음(陽)이 위로부터 소멸한다. 그러므로 그 증상은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차가우며 배꼽 주변이 공기로 찢듯이 아프며 손발이 차갑다. 육맥(六脈)은 침(沈)·세(細)하고 때때로 빠르게 오며, 척맥(尺脈)은 소(小)·단(短)하면서 미(微)하고 촌구맥(寸口脈)은 왕성하며 때때로 대(大)하다. 모두가 음독(陰毒)의 증상이다.

溫經 온경

眞武湯、四逆湯.

진무탕(眞武湯)、사역탕(四逆湯)을 쓴다.

正陽回陰 양(陽)을 바꾸고 음(陰)을 되돌림

霹靂散.

벽력산(霹靂散)을 쓴다.

灸 뜸

關元、氣海.

관원(關元)·기해(氣海)에 뜸을 뜬다.

却 渴 法 (却法)

金液丹.

금액단(金液丹)을 쓴다.

熨 찜질

腹中急痛, 灰包熨之.

배 속이 매우 아플 때는 회포법(灰包法)으로 찜질한다.

熏 훈증

逆冷囊縮者, 以炒豆投熱醋中如法熏之.

팔다리가 차갑고 고환이 위축되었을 때는 볶은 콩을 뜨거운 식초 속에 넣고 보통의 방법대로 훈증시킨다.

1. 陰病盛 ⇨ 陰獨盛 ※문맥 ⇐



太陽陽明合病 태양양명합병

自利.

설사한다.

發汗 발한

喘而胸滿者, 麻黃湯.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할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和解 화해

不下利, 但嘔者, 葛根加半夏湯.

설사하지 않고 구역질만 할 때는 갈근가반하탕(葛根加半夏湯)을 쓴다.

兩解 양해

止利發表, 葛根湯.

설사를 멎게 하고 표사(表邪)를 풀 때는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太陽少陽合病 태양소양합병

和解 화해

黃芩湯止利. 利者爲邪在半表半裏, 非汗下所宜.

황금탕(黃芩湯)으로 설사를 멎게 한다. 설사하는 것은 병사(病邪)가 반표반리
에 있기 때문이니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이 적당하지 않다.

止嘔清熱 구토를 멈추고 열을 식힘

嘔者, 胃氣逆也, 黃芩加半夏生薑湯.

구토는 위기(胃氣)가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 황금가반하생강탕(黃芩加半夏生
薑湯)을 쓴다.

三陽合病 삼양합병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中不仁, 譫語遺尿皆, 不可汗下.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우며 몸을 뒤척이기 어렵고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으며 헛소리를 하고 소변을 지릴 때는 모두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

清熱和表裏 열을 식히고 표리(表裏)를 조화함

白虎湯.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太陽少陽併病 태양소양병병

頭痛眩暈, 如結胸, 心下痞硬, 或譫語.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아찔하며 증상이 결흉(結胸)과 비슷하고 명치가 막혀
단단하며 더러 헛소리를 한다.

刺 자침(刺鍼)

肺俞、肝俞. 如頭項強, 刺大椎.

폐수(肺俞)·간수(肝俞)를 쓴다.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뻣뻣하면 대추(大
椎)에 침을 찌른다.

陰證似陽 양증처럼 보이는 음증

煩躁面赤, 身熱, 脈反沈微. 韓氏微旨曰, 面見¹雖見陽證, 盖是陽在上焦, 其下二焦²陰色已盛, 若調理得下焦有陽, 則上焦陽氣必下降也. 上焦雖見陽證, 其勢³淺於下焦也.

번조(煩躁)가 있고 낯빛이 붉으며 몸에서 열이 나는데 맥이 도리어 침(沈)·미(微)하다. 한지화(韓祗和)는 《상한미지론(傷寒微旨論)》에서 말하였다. "낯빛에 양증(陽證)이 나타나는 것은 대개 양기(陽氣)가 상초(上焦)에 있으나 하초(下焦)에는 음기(陰氣)가 이미 왕성한 경우이다. 만약 조리하여 하초(下焦)에 양기가 생기면 상초(上焦)의 양기가 반드시 아래로 내려간다. 상초(上焦)에서 양증(陽證)이 나타나더라도 그 열은 하초까지 이르지 않는다."

溫 온법(溫法)

見前發熱溫經例下. 直指方云, 理中湯, 四逆甘草乾薑湯, 隨證輕重用.

앞의 <발열(發熱)> '온경(溫經)' 내용을 참고하라.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말하였다. "이중탕(理中湯)·사역탕(四逆湯)·감초건강탕(甘草乾薑湯) 중에서 증상의 경중에 따라 골라 사용한다."

1. 面見 面色 ※《고금의통대전》←

2. 其下二焦 其下焦 ※《고금의통대전》←

3. 其勢 其熱 ※《고금의통대전》



陽證似陰 음증처럼 보이는 양증

大便秘, 小便赤, 其脈沈滑, 四肢逆冷, 以其伏熱深也.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이 붉으며 맥이 침(沈)·활(滑)하고 팔다리가 차가운 것은 열사(熱邪)가 깊이 잠복하였기 때문이다.

下 하법(下法)

治法見前厥證例下.

치료법은 앞의 〈궤증(厥證)〉 내용을 참고하라.

陰盛隔陽 음이 성하여 양을 막음

溫 온법(溫法)

傷寒例云, 面少赤, 陰盛於內, 隔陽在外, 其病必重, 用通脈四逆湯, 正合仲景法.

《상한례》에서 말하였다. "낮빛이 조금 붉은 것은 음(陰)이 속에서 왕성하여 따로 떨어진 양(陽)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병이 틀림없이 위중하다.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을 사용하면 중경(中景)의 방법에 온전히 부합한다."

陽盛拒陰 양이 성하여 음을 막음

下 하법(下法)



癍 발반(發癍)

汗下後發者, 熱毒不散所致. 有溫毒熱病, 有表證脈浮數. 有表虛裏實, 熱毒不散, 所以不可發汗, 不可輕易下. 有時氣所致.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반(癍)이 생기는 것은 열독(熱毒)이 흠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독(溫毒)이나 열병(熱病)으로 인한 경우, 표증(表證)에 맥이 부(浮)、삭(數)한 경우가 있다. 겉은 허하고 속은 실한 경우는 열독(熱毒)이 흠어지지 않았으므로 쉽게 한법(汗法)을 쓰거나 하법(下法)을 쓸 수 없다. 또 유행병(時氣)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消散 삭이고 흠음

白虎加參名化癍湯、升麻玄參湯.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승마현상탕(升麻玄蔘湯)을 쓴다. 백호가인삼탕은 화반탕(化癍湯)이라고도 한다.

表證多, 防風通聖去硝黃.

표증(表證)이 많을 때는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에서 망초(芒硝)와 대황(大黃)을 빼고 쓴다.

調胃溫中 위(胃)를 조리하고 중기(中氣)를 따뜻하게 함

陰證發癍.

음증으로 인한 발반에 쓴다.

補 보법(補法)

汗下後, 胃虛極而發者, 此火遊行於外所致, 宜補以降之, 白虎加參朮.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위(胃)가 매우 허한 상태에서 반(癍)이 생긴 것은 화(火)가 밖에서 떠돌기 때문이니 보하여 화를 내려주어야 하므로 백호가삼출탕(白虎加參朮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身無大熱, 煩渴便實, 有癍, 調胃承氣.

몸에 심한 열이 없으나 갈증이 심하고 대변이 단단하며 반(癍)이 있을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洩熱 열을 배출함

猪膽雞子湯. 兼咽痛, 紫雪、大青.

저담계자탕(猪膽雞子湯)을 쓴다. 반(癍)이 있을 때 목구멍이 아프면 자설(紫雪)、대청(大靑)을 쓴다.

凉血 혈을 서늘하게 함

溫毒發斑, 嘔逆, 黑膏、化毒丹.

온독(溫毒)으로 반(斑)이 생기고 구역질할 때는 흑고(黑膏)·화독단(化毒丹)
을 쓴다.



晝夜偏劇 낮이나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熱入血室, 陰虛, 亡陽.

열이 혈실(血室)로 들어간 경우, 음이 허한 경우, 망양(亡陽)된 경우가 있다.

溫經 온경

汗下後, 身無熱, 不渴, 晝則煩躁, 夜而安靜, 脈沈, 宜乾薑附子湯.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쓴 뒤에 몸에 열이 없고 갈증도 없으나 낮에 번조(煩躁)가 생겼다가 밤이 되어야 안정되며 맥이 침(沈)할 때는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을 써야 한다.

和解 화해

婦人熱入血室, 夜則譫語, 小柴胡加牡丹皮.

부인(婦人)이 열입혈실증(熱入血室證)으로 밤에 헛소리를 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목단피(牡丹皮)를 더하여 사용한다.

鍼¹ 침

¹. 鍼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口燥咽乾 입과 목구멍이 마름

慎不可發汗.

삼가 한법(汗法)을 써서는 안 된다.

清熱凉胃 열을 식히고 위(胃)를 서늘하게 함

口乾, 少津液, 脈浮緊微數, 白虎加人參湯.

입이 마르고 진액(津液)이 적으며 맥이 부(浮)·긴(緊)·미(微)·삭(數)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을 쓴다.

和解 화해

口苦, 脈浮緊, 咽乾舌燥, 宜小柴胡.

입이 쓰고 맥이 부(浮)·긴(緊)하며 목구멍과 혀가 마를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少陰病, 得之三二日, 口燥咽乾, 急下之.

소음병(少陰病)이 든 지 2~3일째에 입과 목구멍이 마를 때는 급히 하법(下法)을 써야 한다.



百合病 백합병

百脈一宗, 悉致其病, 無經絡之狀, 欲食不食, 欲卧不卧, 有寒非寒, 有熱非熱, 默默, 不知所苦, 服藥即吐, 如有鬼神.

백합(百合)은 모든 맥(百脈)이 한 다발로 모두 병드는 것으로 경락을 구분할 수 없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잠자려 해도 자지 못하며, 한(寒)이 있는 듯하지만 한(寒)이 아니고 열(熱)이 있는 듯하지만 열(熱)이 아니며, 말이 없고 아픈 곳을 알지 못하며 약을 먹으려 하면 곧 토하니 귀신이 든 것 같다.

清熱凉血 열을 식히고 혈(血)을 서늘하게 함

百合湯.

백합탕(百合湯)을 쓴다.

狐惑 호혹

其後齒燥¹, 惡飲食, 面目乍赤乍白舌黑², 舌上白, 唇黑有瘡, 四肢沈重, 喜眠. 蛭食其喉爲惑, 其聲嘎. 蛭食下部爲狐, 其咽乾. 甚者蛭食臟而死.

그 증상은, 이(齒)가 마르고 음식(飲食)을 멀리하며 얼굴과 눈이 붉었다가 희었다가 검었다가 하고 혀 위에 백태가 끼며 입술이 검고 혈며 팔다리가 무겁고 자려고만 한다. 벌레가 목구멍을 갉아 먹는 것을 혹(惑)이고 하는데 목소리가 잠긴다. 벌레가 항문을 갉아 먹는 것을 호(狐)라고 하는데 목구멍이 마른다. 심한 경우 벌레가 장(臟)을 갉아 먹어 죽게 된다.

殺蛭 살충

雄黃銳散膏, 納穀道中.

웅황예산고(雄黃銳散膏)를 항문 속에 넣는다.

涼血 혈을 서늘하게 함

唇瘡聲嘎, 桃仁湯

입술이 혈고 목소리가 잠겼을 때는 도인탕(桃仁湯)을 쓴다.

清熱安蛭 열을 식히고 회충을 안정시킴

黃連犀角湯.

황련서각탕(黃連犀角湯)을 쓴다.

1. 其後齒燥 其候齒燥 ※《고금의통대전》↩

2. 舌黑 乍黑 ※《고금의통대전》↩



漱水不欲嚥 물로 입을 헹구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경우

熱在經也.

열(熱)이 경(經)에 있기 때문이다.

凉血 혈을 서늘하게 함

陽明身熱頭疼, 漱水不欲嚥, 必發衄, 犀角地黃湯主之.

양명병(陽明病)으로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물로 입을 헹구려고만 하고 삼키려 하지 않으면 반드시 코피가 난다.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으로 치료한다.

水氣 수기

兩解 양해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發熱, 喘欬, 渴或利, 小青龍主之.

겉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명치에 수기(水氣)가 있어 헛구역질하고 열(熱)이 나며 숨이 차고 기침하며 갈증이 나거나 설사할 때는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 치료한다.

下 하법(下法)

結胸有水氣, 但頭汗出, 大陷胸湯.

결흉(結胸)에 수기(水氣)가 있어 머리에서만 땀이 날 때는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溫 온법(溫法)

少陰, 腹痛, 小便不利, 四肢疼痛, 下利, 此有水, 眞武湯. 厥而心下悸, 宜先治水, 茯苓甘草湯.

소음병(少陰病)에 배가 아프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팔다리가 아프고 설사하는 것은 수기(水氣)가 있기 때문이니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손발이 차면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우선 수기(水氣)를 치료해야 하니 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

草湯)을 쓴다.

分利 분리

煩渴飲水, 水入卽吐, 名水逆, 五苓散主之.

갈증이 심하여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하는 것을 수역(水逆)이라고 한다. 오령산(五苓散)으로 치료한다.

軟堅淸熱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열을 식힘

病在陽, 當汗解, 反以水噉之, 其熱被却不得去, 彌更益堅¹, 肉上栗起, 反不渴, 文蛤散.

병이 양(陽) 부위에 있으면 한법(汗法)으로 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차가운 물을 뿌려주면 열(熱)이 겁박되어 제거되지 않아 결국 다시 더욱 가슴이 답답해지고 살 표면에 좁쌀 같은 것이 일어나지만 도리어 갈증은 나지 않게 된다. 이때는 문합산(文蛤散)을 쓴다.

¹. 彌更益堅 ㉞ 彌更益煩 ※《상한론》↩

小便不利 소변이 불편한 경우

邪畜於內, 津液不下行.

병사(病邪)가 안에 쌓여서 진액(津液)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 것이다.

分利 분리

汗後脈浮, 煩渴, 五苓散.

한법(汗法)을 쓴 뒤에 맥이 부(浮)하고 갈증이 심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和解 화해

汗後, 脇滿¹, 寒熱², 不利³, 心煩, 桂枝乾薑湯⁴.

한법(汗法)을 쓴 뒤에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시호계지건강탕(柴胡桂枝乾薑湯)을 쓴다.

下 하법(下法)

小便不利, 大便乍難乍易, 大小承氣湯選用.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대변보기가 어려웠다 쉬웠다 할 때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소승기탕(小承氣湯)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溫 온법(溫法)

自汗身寒, 小便不利, 甘草附子湯.

자한(自汗)이 나고 몸이 차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감초부자탕(甘草附子湯)을 쓴다.

坐藥 좌약

婦女用之, 男子用猪膽套定.

여자에게 사용한다. 남자에게는 저담투정(猪膽套定)을 사용한다.

固下散寒 하초를 든든히 하고 한(寒)을 흠음

少陰病四五日, 腹滿痛, 小便不利, 下利膿血, 桃花湯.

소음병(少陰病)이 든 지 4~5일째에 배가 그득하고 아프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피고름 섞인 설사를 할 때는 도화탕(桃花湯)을 쓴다.

灸 뜸

陰寒甚, 下閉者, 灸之. 陰證, 小便不利, 必陰囊縮入小腹, 痛欲死者, 灸石門穴.

음한(陰寒)이 심하여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땀을 뚝뚝 땀는다. 음증(陰證)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필시 고환이 위축되어 아랫배로 들어가서 죽도록 아플 때는 석문(石門) 혈(穴)에 땀을 뚝뚝 땀는다.

仍與返魂丹、當歸四逆湯。世有醫人見小水不通，炒塩及熱藥臍下熨之，以致陰氣俱熱熨，無處出⁵，即上衝心，徃徃有死者。

또 반혼단(返魂丹)、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요즘 의원(醫員)들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붉은 소금과 뜨거운 성질의 약재로 배꼽 아래를 찜질한다. 그러나 음기(陰氣)가 뜨거운 찜질을 받고 배출될 곳이 없어서 심(心)을 치받는 바람에 환자가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洩濕熱 습열(濕熱)을 배출함

頭汗出，小便不利，渴引水漿，瘀熱在內，必發黃，茵陳湯。

머리에서 땀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는 것은 어열(瘀熱)이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길 것이니 인진탕(茵陳湯)을 쓴다.

解錯雜之邪 뒤엉킨 병사(病邪)를 풀어줌

傷寒八九日下之，胸滿煩驚，小便不利，譫語，一身盡重，不可轉側者，柴胡龍骨牡蠣湯主之。

상한(傷寒)이 든 지 8~9일째에 하법(下法)을 사용하여 가슴이 그득하고 갑갑하며 극도로 두려워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헛소리를 하고 온몸이 다 무거워 몸을 뒤척이지도 못할 때는 시호용골모려탕(柴胡龍骨牡蠣湯)으로 치료한다.

散傳陰之熱閉 소음경(少陰經)으로 전경되어 생긴 열(熱) 때문에 막힌 것을 흩어줌
少陰陰病⁶, 四逆, 其人或欬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吐利下重者⁷, 四逆散主之.

소음병(少陰病)에 손발이 차면서 환자가 기침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배 속이 아프거나, 설사하고 뒤가 무겁거나 할 때는 사역산(四逆散)으로 치료한다.

溫經散濕 경맥을 따뜻하게 하고 습(濕)을 흩음

少陰二三日不已, 至四五日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利者, 眞武湯.

소음병이 든 지 2~3일이 되어도 병이 낫지 않고 4~5일이 되어 배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팔다리가 무겁고 아프며 설사할 때는 진무탕(眞武湯)으로 치료한다.

1. 脇滿 ⇨ 胸脇滿 ※《상한론》↩

2. 寒熱 ⇨ 寒熱往來 ※《상한론》↩

3. 不利 ㉞ 小便不利 ※《상한론》↩

4. 桂枝乾薑湯 ㉞ 柴胡桂枝乾薑湯 ※《상한론》↩

5. 以致陰氣俱熱熨, 無處出 ㉞ 陰氣致被熱物熨着, 無處出得 ※《활인서》↩

6. 少陰陰病 ㉞ 少陰病 ※《상한론》↩

7. 或吐利下重者 ㉞ 或泄利下重者 ※《상한론》↩



陽瘧 양치

本作瘧, 仰目是陽瘧. 直指方云, 無汗先譫語者, 發剛瘧.

본래 "치(瘧)"라고 쓴다. 눈을 치켜뜨는 것은 양치(陽瘧)이다.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말하였다. "땀을 흘리지 않고 다른 증상에 앞서 헛소리를 하면 강치(剛瘧)가 된다."

發汗 발한

證治曰, 太陽, 無汗, 小便少, 氣上冲昏¹, 口噤欲作剛瘧, 麻黃加葛根湯. 雲岐子用麻黃加獨活防風湯.

《증치》에서 말하였다. "태양병(太陽病)에 땀을 흘리지 않고 소변이 적으며 기(氣)가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고 입을 악다물면 강치(剛瘧)가 되려는 것이니 마황가갈근탕(麻黃加葛根湯)을 쓴다." 운기자(雲岐子)는 마황가독활방풍탕(麻黃加獨活防風湯)을 썼다.

下 하법(下法)

胸滿口噤, 臥不着席, 脚攣急, 其人必咬牙, 大承氣湯. 許氏次用小續命湯調之.

가슴이 그득하고 입을 악다물며 누워도 바닥에 몸을 붙이지 못하고 다리가 당기면 환자가 분명 어금니를 꼭 물 것이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허숙미(許叔微)는 그 뒤에 소속명탕(小續命湯)을 써서 조리하였다.

1. 氣上冲昏 氣上冲胸 ※《金匱要略》↔



陰瘧 음치

眼合是陰瘧. 有汗先厥逆, 發柔瘧.

눈을 감으면 음치(陰瘧)이다. 땀을 흘리고 다른 증상에 앞서 손발이 차가우면 유치(柔瘧)가 된다.

發汗 발한

龐朱二氏用桂枝葛根湯 [朱肱]

방안시(龐安時)와 주굉(朱肱)은 계지갈근탕(桂枝葛根湯)을 사용하였다.

溫 온법(溫法)

陰瘧厥逆, 筋脈俱急, 汗出不止, 桂心白朮散. 項強頭搖, 口噤, 附子散.

음치(陰瘧)에 팔다리가 차고 근맥(筋脈)이 모두 당기며 땀이 멈추지 않고 흐를 때는 계심백출산(桂心白朮散)을 쓴다. 목덜미가 뻣뻣하고 머리를 흔들며 입을 악다물 때는 부자산(附子散)을 쓴다.

閉目合面, 附子防風湯.

눈을 감고 얼굴을 가릴 때는 부자방풍탕(附子防風湯)을 쓴다.

分利 분리

頭項強, 小腹滿, 小便難, 已成瘧, 五苓散.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뻣뻣하며 아랫배가 그득하고 소변보기 힘들며 이미 치(瘧)가 되었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疎風養血 풍(風)을 흠어주고 혈(血)을 기름

防風當歸散.

방풍당귀산(防風當歸散)을 쓴다.

不仁 불인

謂不柔和, 則痒痛寒熱皆不知也. 正氣爲邪氣閉伏, 鬱而不散, 榮衛血氣虛少, 不能通行, 故斯然也. 經曰, 少陰脈不至, 腎氣微, 精血少, 奔氣促迫, 上入胸膈, 宗氣反復, 血結心下, 陽氣退下, 熱歸陰股, 與陰相動, 令身不仁, 此爲尸厥. 其乘寒之厥, 鬱胃不仁可知矣.

불인(不仁)은 부드럽고 온화하지 않다는 말로, 가려움과 통증과 차가움과 뜨거운 것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정기(正氣)가 사기(邪氣)로 인해 가로막히게 되어 울체되고 펼쳐지지 못하게 되면 영(榮)·위(衛)·혈(血)·기(氣)가 적어져 흐르지 못하게 되므로 불인이 생겨난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소음맥이 이르지 않으면 신기(腎氣)가 미약하고 정기(精血)가 적어지며, 급히 혈떡이는 숨이 위쪽 흉격으로 들어가서 종기(宗氣)가 도리어 멎치고 혈(血)이 심하(心下)에 맺히며 양기(陽氣)가 아래로 물러나고 열(熱)이 사타구니로 돌아가서 음(陰)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몸에 불인(不仁)이 생긴다. 이것이 시궤(尸厥)이다." 이것으로 침입한 한(寒)이 궤(厥)이 되어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溫 온법(溫法)

直指方用甘草乾薑湯、桂枝芍藥湯加乾薑、各半湯, 以意度用.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는 감초건강탕(甘草乾薑湯), 건강(乾薑)을 더한 계지작약탕(桂枝芍藥湯),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 중에서 상황에 따라 사용하였다.

鍼 침

若越人入虢, 太子病尸厥, 以鬱冒不仁爲可治, 刺之而痊濟者, 神醫之診也. 設脈浮洪, 身汗如油, 喘不休, 體不仁, 雖越人其能起之哉.

진월인(秦越人)이 껍(虢)나라에 들어가 태자를 시궐(尸厥)이라고 진단하고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 침을 놓아 모두 낫게 하였으니, 참으로 신의(神醫)의 솜씨이다. 만약 맥이 부(浮)·홍(洪)하고 몸에서 기름 같은 땀이 흐르며 설 새 없이 숨이 차고 몸에 불인(不仁)이 있는 경우라면 진월인(秦越人)이라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直指¹ 직시(直視)

心腎臟氣絶也. 針經云,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 血之精爲絡, 氣之精爲白. 五經血氣調和, 榮於目則明矣. 今邪氣壅盛, 正氣已絶, 故衄家不可發汗, 汗則額上陷脈急緊, 直視不能眴也.

심(心)과 신(腎)의 장기(臟氣)가 끊어진 것이다. 《침경(針經)》에서 "골(骨)의 정은 눈동자가 되고, 근(筋)의 정은 검은자위가 되며, 혈(血)의 정은 혈락(血絡)이 되고, 기(氣)의 정은 흰자위가 된다."라고 하였다. 오장의 혈(血)과 기(氣)가 조화롭고 눈에서 충만하면 눈이 맑고 밝다. 직시는 사기(邪氣)가 왕성한데 정기(正氣)는 이미 끊어진 경우이다. 그러므로 "평소 자주 코피를 흘릴 때는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땀을 내면 이마 위쪽이 꺼지고 맥이 급(急)하고 긴(緊)하며, 직시(直視)가 생겨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下 하법(下法)

其或有目中不了了, 睛不和, 無表裏證, 大便難, 身微熱者, 非直視, 此內實也, 可於大承氣、大柴胡選用之.

만약 "눈앞이 맑지 않고 눈동자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며 표리의 증상이 없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몸에서 조금 열이 나는 경우"는 직시(直視)가 아니다. 이것은 안에서 사기(邪氣)가 실(實)해진 경우이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대시호탕(大柴胡湯) 중에서 선택하여 치료한다.

1. 直指  直視 ※문맥 



遺尿 유뇨

風溫證被下, 必失洩. 三陽合病.

풍온(風溫) 증상에 하법(下法)을 사용하면 반드시 유뇨가 생긴다. 삼양합병(三陽合病)에도 유뇨가 있을 수 있다.

下焦氣絕不歸其部. 濁邪中下.

하초(下焦)의 기(氣)가 끊어져 제 위치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탁한 사기(邪氣)는 하초(下焦)에 적중되기 때문이다.

溫 온법(溫法)

下焦脫陰陽虛, 用附子湯.

하초(下焦)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고 음양(陰陽)이 허해졌을 때는 부자탕(附子湯)을 쓴다.

清熱 청열

自汗而熱, 白虎湯主之.

자한(自汗)을 흘리고 열이 날 때는 백호탕(白虎湯)으로 치료한다.

灸¹ 뜸

1. 灸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循衣摸床 옷이나 침상을 더듬는 경우

兼微喘直視, 小便利, 脈弦實者, 可治.

옷이나 침상을 더듬고 아울러 조금 숨이 차며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데 소변이 잘 나오고 맥은 현(弦)·실(實)한 경우는 치료할 수 있다.

下 하법(下法)

大小承氣選用.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소승기탕(小承氣湯)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溫病 온병

春月病發熱惡寒, 頭疼, 脈來浮數.

봄에 병이 들어 발열(發熱)과 오한(惡寒)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며 오는 맥이 부(浮)、삭(數)한 경우이다.

溫病, 當分治之.

온병(溫病)과 구분하여 치료해야만 한다.

解肌 해기

升麻解肌湯.

승마해기탕(升麻解肌湯)을 쓴다.

和解 화해

小柴胡、竹葉湯.

소시호탕(小柴胡湯)、죽엽탕(竹葉湯)을 쓴다.

溫瘧 온학

重感於寒, 變成溫瘧, 脈尺寸俱盛, 兼弦數.

한(寒)에 거듭 감촉되면 변하여 온학(溫瘧)이 되는데, 척촌맥이 모두 왕성하면
서 현(弦)·삭(數)하다.

和解 화해

先熱後寒, 小柴胡或白虎加桂枝.

먼저 열이 난 뒤에 오한이 들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이나 백호가계지탕(白
虎加桂枝湯)을 쓴다.

清熱 청열

但熱不寒, 止用白虎.

열만 나고 오한이 들지 않을 때는 백호탕(白虎湯)만 쓴다.

風溫 풍온

發汗 발한

敗毒、獨活湯. 許氏用續命湯減麻黃、附.

패독산(敗毒散)、독활탕(獨活湯)을 쓴다. 허숙미(許叔微)는 속명탕(續命湯)에서 마황(麻黃)、부자(附子)의 용량을 줄여 사용하였다.

解肌 해기

柴胡桂枝湯, 或白朮湯加減用.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쓰거나 백출탕(白朮湯)에 가감하여 사용한다.

清熱 청열

汗後惡熱¹, 無下證, 知母石膏湯.

한법(汗法)을 쓴 뒤에 열이 나는데 하법(下法)을 써야 할 증상이 없을 때는 지모석고탕(知母石膏湯)을 쓴다.

疎風 풍(風)을 흠어줌

頭目昏眩, 四肢煩疼, 荊芥散、金櫃風引湯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하며 팔다리가 매우 아플 때는 형개산(荊芥散)·
금궤풍인탕(金匱風引湯)을 쓴다.

1. 汗後惡熱  汗後發熱 ※《고금의통대전》<



溫疫¹ 온역

¹. 溫疫 :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다. [↩](#)



溫毒 온독

陰脈實大, 陽脈洪數, 發熱, 發癍、癰疹, 咳兼心悶.

음맥이 실(實)·대(大)하고 양맥이 홍(洪)·삭(數)하며 열이 나고 발반(發癍)
·은진(癰疹)이 나타나며 기침하고 아울러 가슴이 갑갑하다.

清熱 청열

玄參升麻湯.

현삼승마탕(玄參升麻湯)을 쓴다.

濕溫 습온

發熱頭疼, 胸間多汗, 兩脛逆冷, 妄言, 脈陽濡而弱, 陰小而急.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가슴 가운데에서 땀이 많이 흐르고 두 다리가 차가우며 헛소리를 하고 맥이 양(陽) 부위에서는 유(濡)하면서 약(弱)하고 음(陰) 부위에서는 소(小)하면서 급(急)하다.



暑證 서증

中暑, 病熱, 自汗, 脈虛細弱.

중서(中暑)로 열이 나며 자한(自汗)을 흘리고 맥이 허(虛)·세(細)·약(弱)하다.

清神益氣 신(神)을 맑게 하고 기(氣)를 더함

東垣清暑益氣湯.

동원(東垣)의 청서익기탕(清暑益氣湯)을 쓴다.

清熱 청열

白虎湯.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解肌 해기

五苓散.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降痰逆 거스르는 담(痰)을 내림

消暑丸、橘皮湯.

소서환(消暑丸)、귤피탕(橘皮湯)을 쓴다.

溫 온법(溫法)

冷香飲子.

냉향음자(冷香飲子)를 쓴다.



喝證 갈증

中暑喝, 脈洪緊盛, 身熱惡寒, 頭痛心煩, 躁渴乃是.

서갈(暑渴)에 적중되면 맥이 홍(洪)·긴(緊)하고 왕성하며 몸에서 열이 나고 오한(惡寒)이 들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안절부절못하고 갈증이 나는 것이 이것이다.

分利 분리

五苓散·益元散.

오령산(五苓散)·익원산(益元散)을 쓴다.

降火 화를 내림

黃連解毒湯加香薷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에 향유(香薷)를 더하여 쓴다.

消暑 서사(暑邪)를 삭임

香薷飲

향유음(香薷飲)을 쓴다.

傷寒治例終

상한치례(傷寒治例) 끝.



해제

개요

《상한치례(傷寒治例)》는 중국 명(明) 때 유순(劉純)이 저술한 의서이다. 상한(傷寒) 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두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책의 저자 유순은 14세기 중국 명(明) 때의 의학자로 자(字)는 종후(宗厚)이다. 그의 아버지 유숙연(劉叔淵, 호는 귤천橘泉)은 단계(丹溪) 주진형(朱震亨)의 문하에서 의학을 배웠다. 유순은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의학을 배웠으므로 단계(丹溪)의 재전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순의 의학은 단계의 의학 사상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의학에 정통하였고 《의경소학(醫經小學)》·《상한치례(傷寒治例)》·《잡병치례(雜病治例)》를 저술하였으며, 서언순(徐彦純)의 《의학절충(醫學折衷)》을 증보하여 《옥기미의(玉機微義)》를 찬집하였다. 조선 시대 의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의학입문(醫學入門)》이 유순의 《의경소학(醫經小學)》과 《옥기미의(玉機微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구성

책은 상한(傷寒)과 관련된 95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에 해당하는 다양한 치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상한에 나타날 수 있는 병증으로 발열(發熱)부터 순의모상(循衣摸床)에 이르기까지 87가지를 수록해 놓았다. 그리고 끝에는 상한과 구분해야 할 질병으로 온병(溫病)과 온학(溫瘡) 등 8가지 조목을 덧붙였다. 이 책은 《황제내경(黃帝內經)》·《침경(鍼經)》·《상한론(傷寒論)》·《금궤방(金匱方)》·《맥경(脈經)》 등 한의학의 고전 서적에서부터 《활인서(活人書)》·《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 등 후대 저명한 상한 관련서, 그리고 한지화(韓祗和)·왕해장(王海藏)·방안상(龐安常)과 같이 앞선 이들의 의학 사상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의의

한의학에서 상한(傷寒)을 다루고 있는 서적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서술 방식에 따라 상한론 조문을 중심으로 엮은 서적, 상한 처방을 중심으로 엮은 서적, 상한의 병증을 중심으로 엮은 서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은 《상한명리론》 등과 같이 상한의 병증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상한명리론》이 병증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데 반해 이 책에서는 해당 병증을 어떤 치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치법에 해당하는 처방은 무엇인지를 주로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 《상한명리론》이 이론서라면 이 책은 임상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임상에서의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인지 《상한론변증광주(傷寒論辨證廣注)》를 저술한 청(淸)의 왕호(汪琥)는 이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판본

《상한치례(傷寒治例)》의 판본은 크게 명(明) 성화(成化) 15년(1479) 소검각본(蕭謙刻本), 청(淸) 정병장명각본(丁丙藏明刻本)이 전해지고 있다. 본 번역은 소검각본을 모본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醫籍考》
- 姜典华(主编). 刘纯医学全书.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 裘沛然(主编). 中国医籍大辞典.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2.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歛=斂, 蓂=莖, 褰=裹, 郤=卻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서적의 작은 글씨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상한치례 傷寒治例
저자 : 유순 劉純
국역 : 오준호
발행인 : 이진용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3년 12월 12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 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23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